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창세기 25장 19-34절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 창세기 25장 19-34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 창세기 25장 19-34절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쭙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 창세기 25장 19-34절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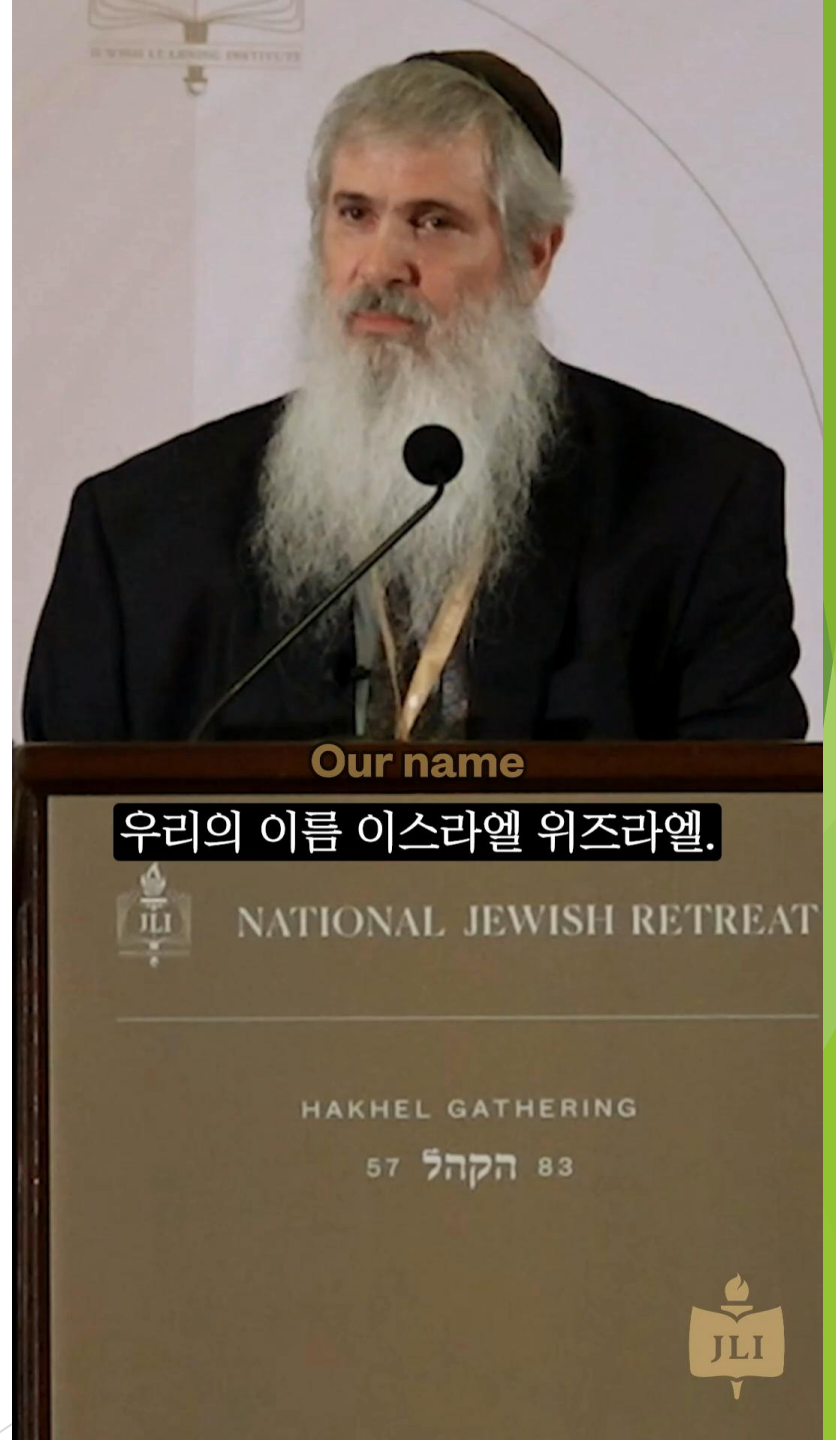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던지라.

#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인가? What does Israel mean? 한글 자막



## 에서 (אֵשֶׁת 에사우)의 어원

- 히브리어 어근 אָשַׁף(아사)에서 파생되었으며, ‘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다. 아마도 에서(에사우)가 태어날 당시 신체적 성숙 정도를 가리킨 말이었을 것이다.

## 야곱(יַעֲקֹב 야아콥)의 어원

- 히브리어 어근 אָכַף(아퀘브)에서 파생되었으며, ‘발꿈치’ 또는 ‘대체자’(지위 등을 빼앗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 창세기 25장 19-34절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동시에 나온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서로에게 이질적인 형제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쌍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두 형제가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싸웠고, 또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뒤진 쪽의 놈이 앞서 나가는 놈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두 형제간의 싸움이 장차 두 민족간의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와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끈질긴 악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겉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생존권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생사를 거는 싸움**이었습니다.
-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들이 생사를 걸었던 땅들이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란 것이고, 그 땅들이 수천 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검은 황금 곧 석유를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내면적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힘과 지혜의 겨룸**이었습니다.
- 에서와 야곱의 겨룸은 **힘(Muscle)과 정신(Mind)의 싸움**이었습니다.
- 에서와 야곱의 다툼은 **무(武)와 문(文)의 싸움**이었습니다. **칼과 펜의 싸움**이었습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게 무(武)의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토라’라 일컫는 ‘모세오경’이란 문(文)의 힘 혹은 종교의 힘이 있었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칼을 손에 쥔 자들의 횡포가 펜을 손에 쥔 자들을 떡 주무르듯 해왔지만, 역사는 펜이 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칼로써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제국은 소리 없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없지만, 힘없이 당하기만 하던 기독교는 과거 2천년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 힘으로 말하자면 야곱이 에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용사요 사냥꾼이었기 때문입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여성스런 면이 강했습니다.
- **에서에게는 타고난 힘이 있는 반면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힘이 약한 반면에 슬기로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나온 것은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돼서가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야곱보다 앞서 나온 것입니다.
- 그러나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야곱은 비록 힘이 없어 에서를 뒤따라 나올 망정 먼저 나옴의 가치와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그래서 그는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나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 과연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 가치관은 우리의 생각,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입니다. 가치관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영원히 사는 길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갖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그러나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현대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과연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붙들지 말아야 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못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가치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짓밟듯이, 가치를 모른다면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걸어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것이나 야곱이 장자권에 목을 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에서와 야곱이 벌린 장자권의 다름은 재산상속이란 세속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하게 된 것은 그의 관심대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힘없는 자는 언제나 남이 잡아 놓은 사냥감을 얻기 위해 아첨해야 하는 비굴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반면에 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에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장자의 명분보다는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의 원천** 이었습니다. 때문에 에서는 팔죽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사냥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여긴 장자권을 포기하고 야곱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대적 사명의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야곱은 바로 그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여기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 장자권의 문제는 재산상속이란 문제보다는 과연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 실제로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는 에서이지 야곱이 아닙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20년 가깝게 멀리 피난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특권을 상속받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고, 자신의 열 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 이처럼 성경에서 장자권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특권이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창대케 해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과 그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란 암시도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이어받는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이어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 야곱은 이런 장자권의 가치를 바로 인식했으며 마침내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야곱은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짐승을 쫓는 사냥꾼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 곧 돈과 명예와 권세를 붙잡으려고 골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축복을 붙잡는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과 행복이 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창세기 26장 1-35절

[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창세기 26장 1-35절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 창세기 26장 1-35절

[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으로라.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창세기 26장 1-35절

-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 창세기 26장 1-35절

-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 창세기 26장 1-35절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 창세기 26장 1-35절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 창세기 26장 1-35절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 창세기 26장 1-35절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 창세기 26장 1-35절

[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34] 에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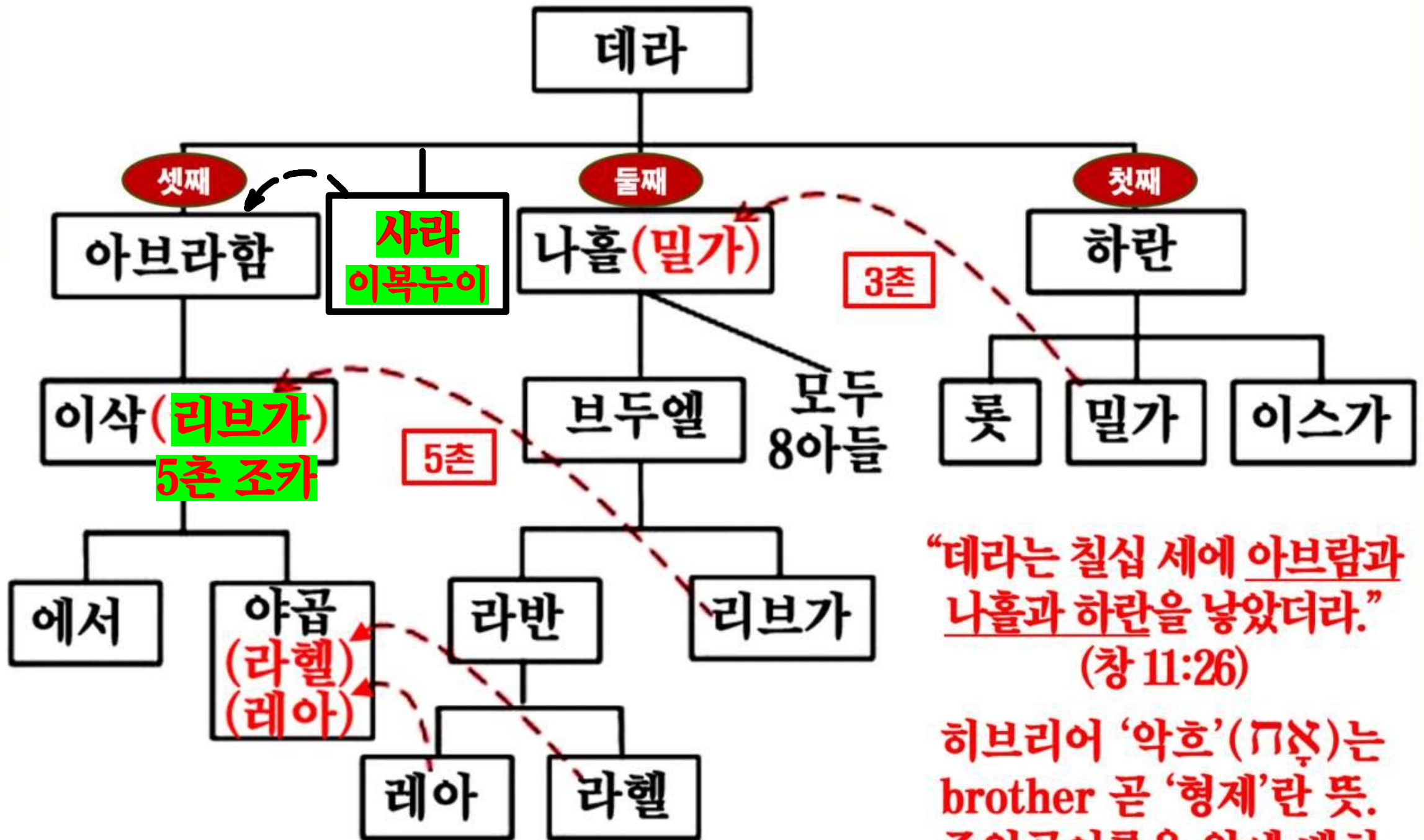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28:6).  
성경은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복받기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

- **“아비멜렉”** (אַבִּימֶלֶךְ)의 뜻: “나의 아버지는 왕”
-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 예: 바로(파라오),  
가이사(케사르), 대통령
- **“나의 이복 누이”** (בְּתֻלַּת אִמִּי)의 뜻:  
“딸, 나의 아버지, 그녀, 그러나, 아니다,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다.”(창 20:12)

אִשְׁתִּי (나의 아내) ... הִיא (그녀) אֵת (나의 누이)  
(창 26:7)



“테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 11:26)

히브리어 ‘악흐’(אָח)는 brother 곧 ‘형제’란 뜻. 주인공이름을 앞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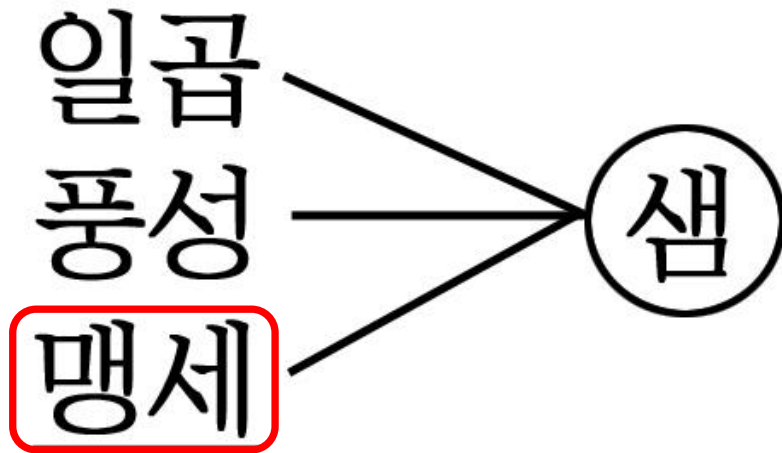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놓고  
그랄 목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함

עֵשֶׂק (에세크) : 다툼, 싸움  
שִׁטְנָה (시트나) : 증오, 적대  
רֵחוֹבוֹת (레호보트) : 넓은 공간, 여유

레호보트은 이삭이 그랄 사람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백  
배의 수확을 얻은 곳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곳이다(12-13절)

# 브엘세바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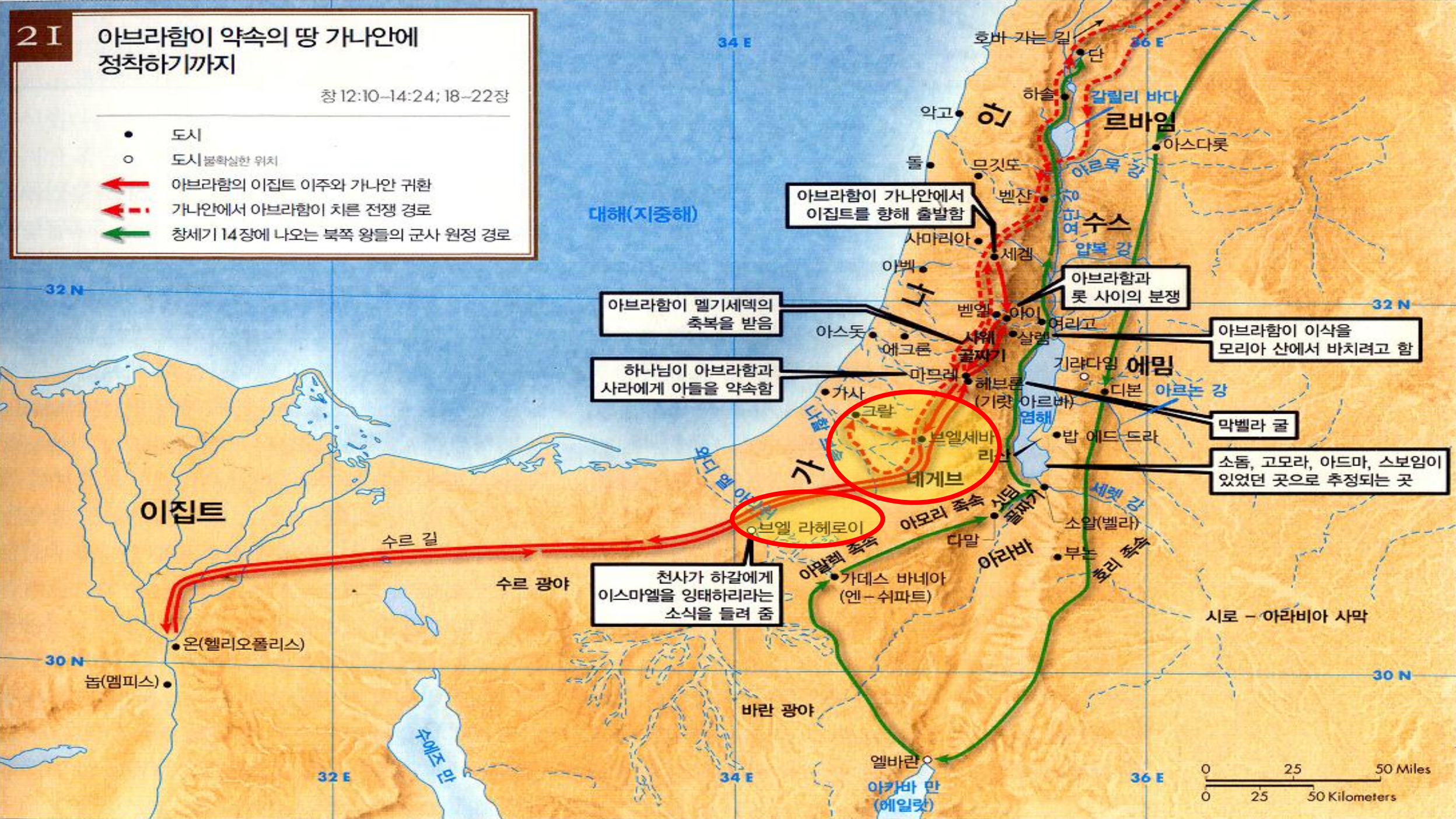
쉬바 **בְּאֵר שֶׁבַע** 브엘



#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창 12:10-14:24; 18-22장

- 도시
- 도시 불확실한 위치
- ←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와 가나안 귀환
- ←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 경로
- ←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쪽 왕들의 군사 원정 경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함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려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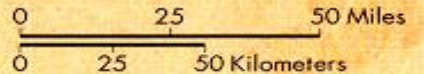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함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분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함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시로 - 아라비아 사막



# 이삭의 여정 지도





© BiblePlaces.com



© BiblePlaces.com

# 오늘날의 그랄 (Gerar) 골짜기



© BiblePlaces.com



© BiblePlaces.com



**네게브 광야**



**르호봇 (브엘세바에서 32KM 남쪽에 위치)**



**오늘날의 브엘세바**

## 에서의 부인은 몇 명?

[26: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28: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36:2-3]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웃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 에서의 부인은 몇 명?

‘바스맛’ (בַּסְמַת, Basemath)은 ‘향기로운 여인’이란 뜻이며, 고유 명사로 쓰이긴 했지만, 에서의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의 애칭愛稱이었을 것이다.

첫째 부인 :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둘째 부인 :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바스맛).

셋째 부인 :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바스맛).

넷째 부인 :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손녀 오홀리바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창세기 26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구절이 있다면, 13-14절입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 12절의 말씀에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이 주어질까요?

YES!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축복받기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그러나 이삭에게 항상 축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주하는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14절에 언급된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 기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이삭에게 기근이라는 큰 시련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권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떠들이 유대인들에게 준 임팩트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말씀이 이 땅의 나그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임팩트로 작용하고 있나요?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 기근이 들자 이삭은 **기름진 이집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 곧 약속의 땅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만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6-11절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노이라고 속였습니다.
-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곧 탄로가 났고, 이 거짓말 사건 이후 이삭은 그랄 거민들에게 큰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 그랄 주민들이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하여 그의 우물을 메웠고 그를 그 지경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 이삭은 온유함과 인내로써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랄 족속과 화해했지만, 그랄 거민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이삭의 거짓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그랄 거민들은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더 이상 그를 신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또 그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을 불러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12-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대로 복을 내리셨습니다.**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지은 농사에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는 시기(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축복의 근원인 샘을 막아버리는 이방인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평을 말하지 않고 다른 샘들을 팠고, 결국은 ‘르호봇’이라 호칭한 샘을 얻었는데, **‘르호봇’은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22절에 이르기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23-25절을 보면,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 그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며, 그들이 희생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녀에 대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리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는 말씀은 이삭이 누린 축복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16절에 보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여 자기 땅에서 추방하고 맙니다.
- 그러나 26절 이하에서는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 오히려 **화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입니다. 28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한 아비멜렉의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창세기 26장 1-35절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적대하던 자들까지도 찾아와 빌게 만드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 이삭은 삶의 위기를 인내와 지혜로 대처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은 매우 귀중합니다. 이러한 삶의 젖줄인 우물을 메워버리는 이방인들의 적대적 행위에 이삭은 분개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세 번이나 참았습니다.

##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

- 이삭의 우물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선왕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떠나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삭은 이 명령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그곳을 떠나 자신의 처소를 옮겼습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그의 온유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 **이삭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써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얻게 되었고, 아비멜렉과의 우호조약도 체결하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 34-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는** 대대에 이르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애한 까닭이 아니라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천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창세기 27장 1-46절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창세기 27장 1-46절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 그런즉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 창세기 27장 1-46절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 창세기 27장 1-46절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야 네가 누구냐?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창세기 27장 1-46절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 창세기 27장 1-46절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 창세기 27장 1-46절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창세기 27장 1-46절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 창세기 27장 1-46절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 창세기 27장 1-46절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 창세기 27장 1-46절

[43]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Isaac and Jacob” by Jusepe de Ribera(나폴리에서 활동한 스페인 화가), 1637**



“Isaac Blessing Jacob” by Gerrit  
Willemsz Horst(네덜란드 출신 화가), 1638

## 이삭이 두 아들을 위해 계획한 유산상속

- 야곱은 단순한, 온전한 사람(25:27), 토라를 공부하며 양을 치는 목자
- 에서는 사냥꾼, 들판의 사람(25:27), 신뢰할 수 없는 사람
- 계획된 축복(랍비 Naftali Tzvi Yehudah, 19세기 베를린) : Birkas Avraham – 아브라함의 복, 대제사장의 영적 세계를 유산상속
- 계획된 축복(랍비 Naftali Tzvi Yehudah, 19세기 베를린) : Birkas Haaretz – 땅의 복, 물질적 풍요, 물질 세계를 유산상속

##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계획한 유산상속

- 에서에게 준비된 땅의 복까지 야곱이 받아 아브라함을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유: 에서가 장자권(아브라함 계승권)을 팔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었기 때문이다.

##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위해 야훼께 드린 기도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9]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에씨 힘을 기르면, become restless)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창세기 28:5

וַיֵּשֶׁב יַעֲקֹב בְּאֶרֶץ אֵם רִבְקָה

베에사우 야아콥 엠 리베카  
에서 또 야콥의 어머니 리베카

Mother of Jacob and Esau  
“야콥과 에서의 어머니”

‘신앙의 가치’를 알고 모름이 형제의 서열을 뒤바꿨다.  
창세기 28장 5절, 여호수아 24장 4절, 히브리서 11장 20절

창세기 28:5

וְעֵשָׂו אָבִי יַעֲקֹב אֵם רִבְקָה

베에사우 야아콥 엠 리베카

에서 또 야콥의 어머니 리베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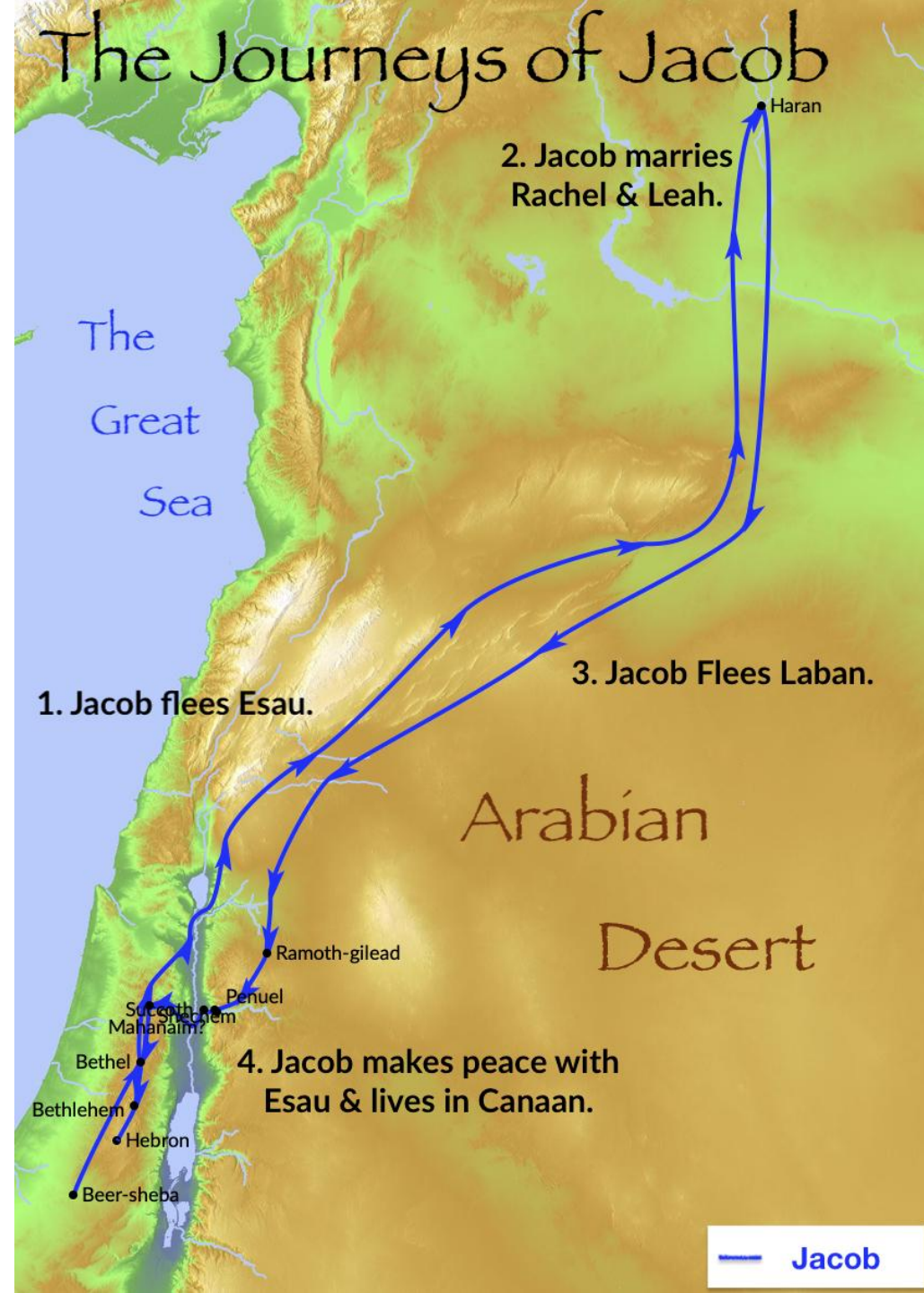
Mother of Jacob and Esau

“야콥과 에서의 어머니”

-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마 19:30)
-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8)
-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갈 4:28)

#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킨 이유

- 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다.
- 형제살인을 차단함으로써 에서가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고,
- 야곱이 살해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이 사건은 수천년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며 사냥을 즐겼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브라함 가정의 신앙 유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은 이런 에서를 편애하였습니다. 특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은 에서는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 에서는 밖으로만 나돌아 다녔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문의 전통인 신앙 양육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고, 무시하는 경향조차 있었을 것입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에서는 경박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고, 왜 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해서는 안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장자권의 축복은 물질적 축복에 국한된 것이기 보다 영적 축복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야곱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양육 받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야곱은 영적 축복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에서를 망친 것은 이삭의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에서를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았고, 에서를 위해 야훼신앙을 가진 신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삭은 에서의 요리를 즐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 인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방여인을 두 명씩이나 데려왔을 때에도 혼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 무엇보다 **이삭은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몰방**하려고 작정했습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 곧 훗날의 민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과 에서의 편에 서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 비록 야곱이 간교한 수법을 써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까지 가로챘다고는 하나, **야곱은 장자권이라든지 임종직전에 부친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 야곱과 리브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은 그가 요리해 주는 별미 때문이었지만,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은 집안일을 많이 도와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하나님 앞에서는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시 됩니다. 서열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격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쟁취해야 할 내용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기만과 술수에 의한 사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장자권을 판 후에 장자의 축복을 열망한다는 것은 그 역시 야곱에게 **속임수로 팔죽을 빼앗아 먹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야곱이 비열해 보여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해 온 사람입니다.
- 야곱은 장자권 축복이 물질 축복보다 한층 더 뛰어난 영적 축복이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 로마서 9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도 있고, 인간이 결정하게 하는 일도 있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 누군가를 버리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고백은** ‘야훼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야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이지, ‘야훼께서 00를 저주하시고 버리셨다’가 아닙니다.
- **누군가가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주했거나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택한 것입니다.
-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물질 축복보다는 영적 축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구약성경에 물질 축복이 많이 언급된 것은** 유대교가 백퍼센트 문자적 육체적 실천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내용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영적 실체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시야선경이고 그리스도교입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전통을 혈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전통을 완전하게 따르고 **완전하게 개종만 한다면**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따라서 **에서의 헷 족속부인들은** 아브라함 신앙의 전통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고 개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 솔로몬과 아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또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들의 정복자**입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계락을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한 리브가와 야곱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삭과 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 리브가는 이삭에게 매우 합당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일에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았던 여성이었습니다.
- 리브가라면 서열에 상관치 않고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할 후계자로 믿음위에 선 야곱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따라서 리브가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리브가는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사냥꾼 에서보다도 더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모자가 합세하여 받아낸 축복은 도덕적으로 볼 때 야비한 속임수였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 만일에 이삭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 리브가와 야곱의 윤리적인 결단

-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일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 리브가와 야곱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창세기 28장 1-22절

-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창세기 28장 1-22절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 창세기 28장 1-22절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추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 창세기 28장 1-22절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창세기 28장 1-22절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Bethel)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Luz)더라.

## 창세기 28장 1-22절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אַל שַׂדַּי

샤다이 엘

*"Guardian of the doors of Israel"*

שׁוֹמֵר הַדְּלָתוֹת יִשְׂרָאֵל  
עֲלֵי יְדֵי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시는...

## "엘 샤다이"에서 "샤다이"의 다양한 의미

산(山) - 전능하신 하나님

파괴자 - 전능하신 하나님

젖가슴 -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들의 수호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 17:1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28:3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땅을 유업으로 받게"

창 35:11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 49:25 "하늘의 복과 ...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

#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증조부의 하나님

고조부의 하나님

현조부의 하나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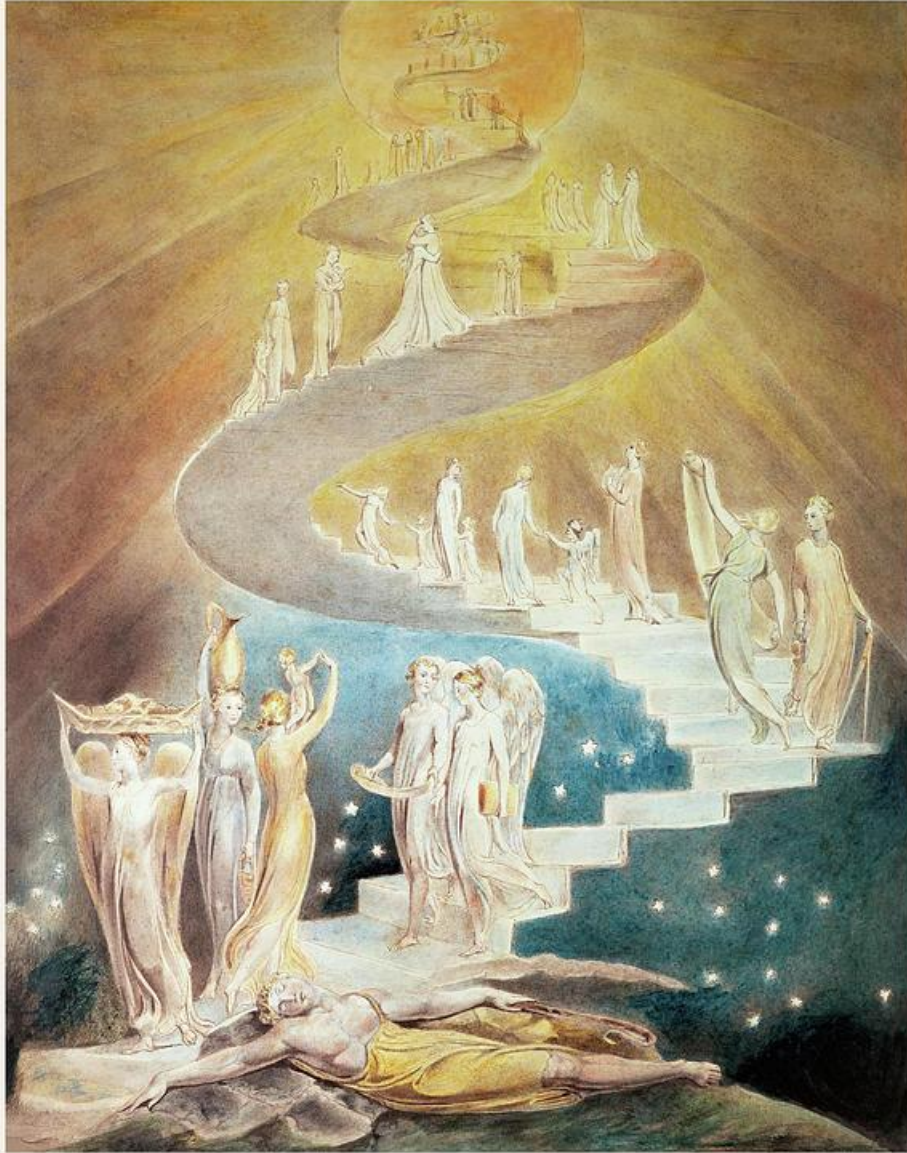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르크 샤갈, '야곱의 사닥다리'(1958)



Jacob's Ladder  
1805

## 야곱의 꿈(희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는 조상의 하나님 야훼와 연결하는 믿음(신앙)의 다리, 믿음의 통로(채널)였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1805년에 그린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야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꿈 곧 희망 사항(13-15절)을 성취시키시는 모습을 묘사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자신이 머문 곳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전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신앙이 있다면,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의  
사닥다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  
(Ziggurat)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야곱의 꿈' : 베네치아 소재 총대주교 궁전 천장 프레스코  
조바니(Giovanni Battista Tiepolo, 1696-1770)**



**지상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과 야훼의 보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 계시록의 4-5장의 하늘 성전은 지상 성막과 성전의 원형과 실체이다.  
그러므로 지상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형태와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Haran

Sea of Galilee

Bethel

Beersheba



Sea of Galilee

Shechem

Shiloh

Ancient Bethel ~ Luz

Jerusalem

Bethlehem

Hebron



D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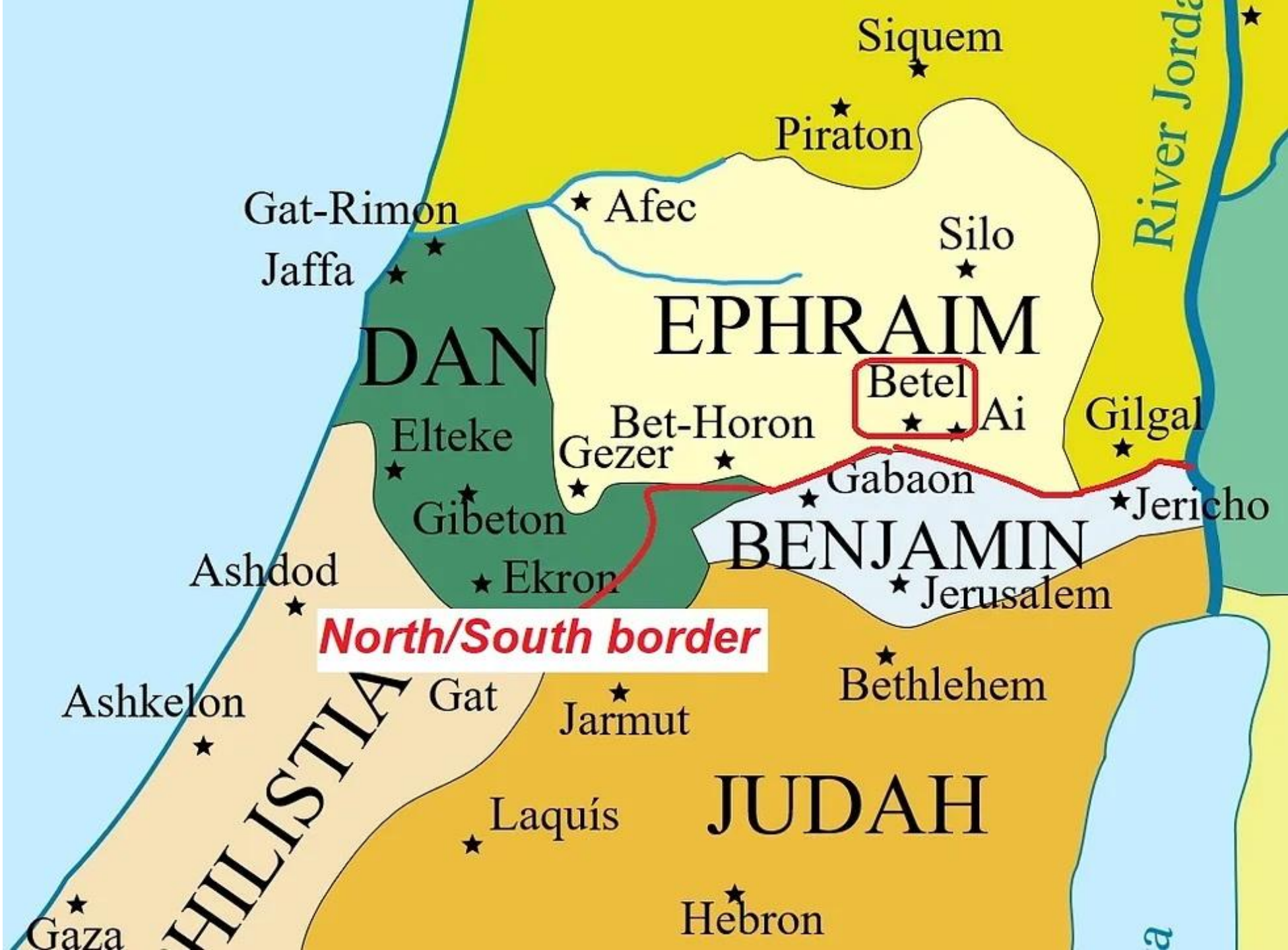
Sea of Galilee

Shechem

Bethel

Jerusalem

Hebron



Siquem

Piraton

Gat-Rimon

Afec

Silo

Jaffa

DAN

EPHRAIM

Betel

Ai

Gilgal

Bet-Horon

Gezer

Gabaon

Jericho

Gibeton

BENJAMIN

Jerusalem

Ashdod

Ekron

**North/South border**

Ashkelon

Gat

Jarmut

Bethlehem

HILISTIA

Laquis

JUDAH

Hebron

Gaza

River Jordan

a

**벤허(880M)은 예루살렘(해발 750M) 북쪽 10Km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

**Golden Calf Altar**

**Tabernacle**

**אל בית־אל**  
**EL BETHEL God of the House of God**

**HolyLandSite.com** 

# אל בית-אל

EL BETHEL God of the House of God

*Golden Calf Altar*

*Golden Calf Platform*



Bethel High Place of Worship

Ancient Bethel ~ Luz

Abraham & Jacob Altars

Ai ~ Site 1

Ai ~ Site 2

**אל בית'אל**  
EL BETHEL God of the House of God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본문은 에서를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밧단아람은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북편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고원지대로써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한 것은 아내 리브가의 간곡한 부탁도 한몫을 했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삭이 늦게나마 큰 아들 에서의 장래에 대한 자신의 큰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이삭이 야곱에게 빈 축복, 3-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야곱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빈 축복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첫째**, 야곱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아담의 범죄 이후 멸망 당한 인류로부터 건짐을 받은 새로운 조상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존권을 보장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 이 언약이 바벨탑 사건 이후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 마침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1:28; 9:1-8; 28:3-4)는 축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하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인류는 바벨탑 사건이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거부하고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인간이 왕이 되는 인간중심의 나라를 건설해 왔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 받은 민족을 통해 그분의 주권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새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 아브라함을 새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새 나라를 건설토록 하시겠다는 약속은 마침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이제 야곱은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후손들을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12:1-3). 실제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왔고, 그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 오늘날에는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중심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야말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 곧 힘의 논리를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이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축복의 근원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3절)이란 표현을 쓴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아람의 브두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은 야곱이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함께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기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가 떠난 고향의 친척을 통해서 구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삭은 야곱에게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에게서 구하라고 했을까요?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이 물음에 정확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첫째는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맞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롯이 소돔사람들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이유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실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롯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함께 피신해 줄 것을 강청했지만, 사윗감들 중에는 조롱하고 비웃을 뿐 그 누구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그나마 나오미는 성공적인 케이스에 듭니다.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중에 **룻**이 나오미의 백성과 신앙을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녀의 백성과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룻기 1:15).
-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공유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나서 이스마엘 가계에서 부인을 한 사람 더 얻지만, 이것 또한 인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는 하나 어머니가 이집트 출신이요, 부인이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딸 마할랏은 에서의 사촌뻘이긴 하지만, 혈통이나 신앙에서 거리가 꽤 먼 관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얹혀살면서 자기들이 신세지고 사는 땅을 넘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민족의 땅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거주민이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와서는 그 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말 것을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하나님은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 야곱이 밧단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하여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벰엘에 이르러 유숙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새롭게 약속하셨습니다.
-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13-14절).

- 이 약속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를 야곱을 통해 건설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 스스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5절)는 약속은 야곱을 위해서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할 뿐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 베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며, 동시에 야곱과 동행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 야곱이 인식한 하나님(창 28:1-22)

-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장막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편만해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벧엘에서도 하란에서도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절)고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야곱은 생각이나 머릿속에서만만의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제 야곱의 삶은 야곱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연속성이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란 발자취로 역사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각과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생 행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야곱의 인생 행로를 통해서 역사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며, 야곱의 인생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 살아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나그네의 행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발자취로 자신의 인생 행로를 그려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짧은 인생 살면서, 야곱의 도망자의 신세처럼, 우리 자신만의 답답한 삶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로 남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창세기 29장 1-35절

-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 [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 [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 창세기 29장 1-35절

[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 창세기 29장 1-35절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 창세기 29장 1-35절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창세기 29장 1-35절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 창세기 29장 1-35절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 창세기 29장 1-35절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 창세기 29장 1-35절

[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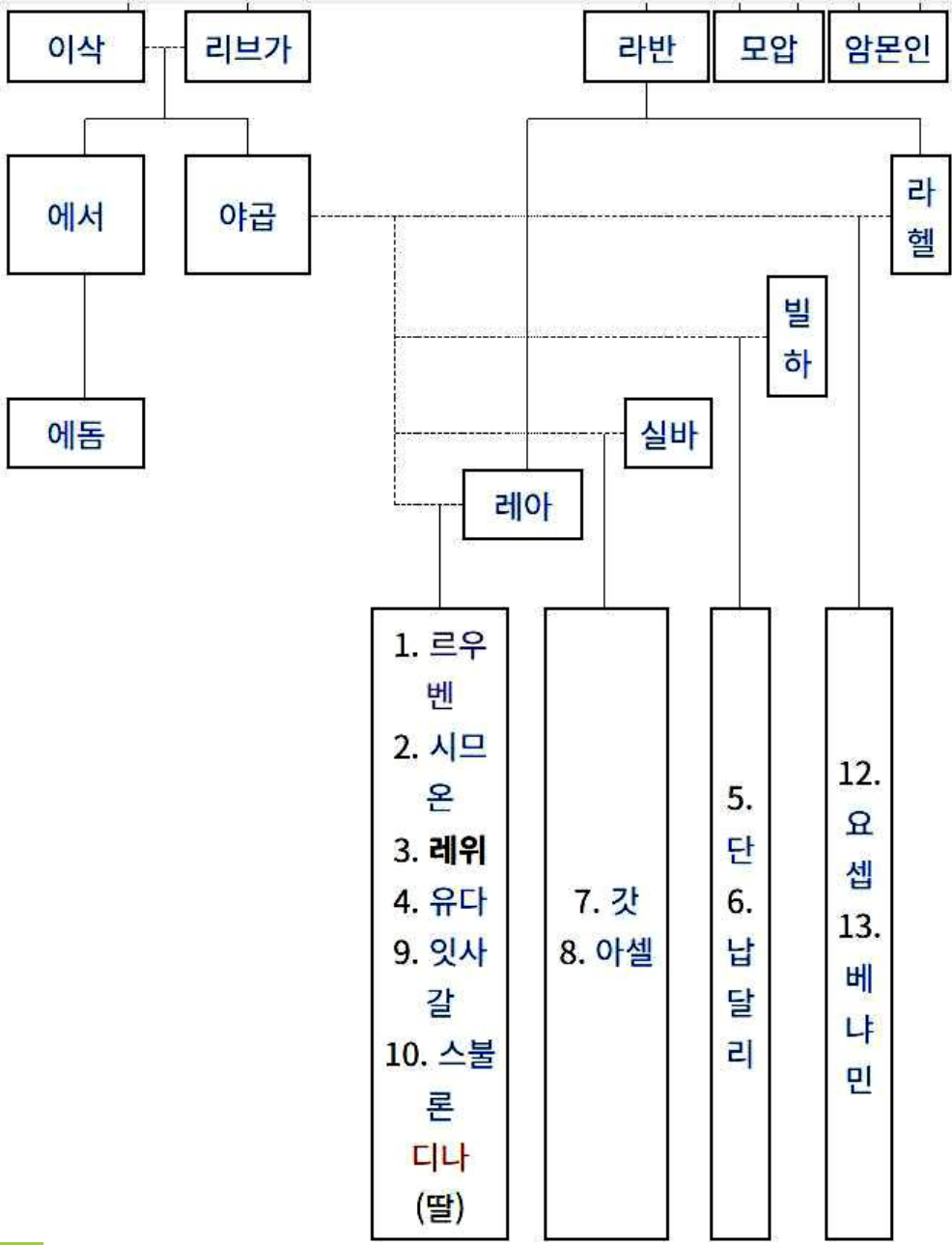
- 레아(Leah)는 히브리어로 “לֵאָה” (Le’ah)에서 유래하며, 그 뜻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첫번째는 “피곤한” 또는 “지친”입니다. 이는 레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두 번째는 “야생 암소”라는 뜻으로 고대 목축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었던 소와 연관되어 생산성과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여섯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 그녀의 생애는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야곱은 라헬만을 자신으로 본처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에게 입하는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392766.exbible.net/entry/레아의-생애와-교훈>

- **라헬(Rachel)**은 히브리어로 **“רַחֵל” (Raḥel)**에서 유래합니다.
- 라헬의 뜻은 **“어린 양” 또는 “암양”**을 의미합니다.
- 이 이름은 **순결, 아름다움, 부드러움**을 상징하며, 라헬의 온유한 성품과 외모의 아름다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성경에서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됩니다(17절).
-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시기와 질투의 여신으로 그려집니다.
- 라헬의 삶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사랑, 희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여정으로 기록됩니다.
- 출처: <https://392766.exbible.net/entry/라헬의-생애와-교훈>

- **실바 또는 질파( נִלְפָּא, Zilpā, 불확실함을 의미)**는 창세기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처럼 준 레아의 여종으로 추정되는 노예였습니다(30:9). 실바는 두 아들을 낳았고, 레아는 그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30:10-13).
- 초기 랍비 주석인 피르케 데 랍비 엘리에제르(Pirke De-Rabbi Eliezer)는 실바와 빌하가 라반의 첩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11세기 주석가인 라시(Rashi)에 따르면, 실바는 빌하보다 어렸거나 신분이 더 낮았고, 그녀를 레아에게 주기로 한 라반의 결정은 그가 야곱을 속여 라헬보다 나이가 많은 레아와 결혼시키기 위해 사용한 속임수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 결혼식이 해진 후에 치뤄지므로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 위해 실바에게 베일을 씌움으로써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 **빌하( בִּלְחָה, Bilhah, “무심한”이란 뜻)**는 29절에서 라반의 여종(**יְתוּמָה** **šip-hā-tōw**)으로 묘사되는데, 그는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 여종으로 라헬에게 주어졌습니다. **נְתָנָה**=몸종(노예가 아닌)
-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빌하를 아내로 주어 자식을 낳게 했고, 빌하가 두 아들을 낳자 라헬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름을 단과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 나프탈리(**Naftali**)의 외경은 빌하와 실바의 아버지가 로떼우스(Rotheus)이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라반이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라반은 로떼우스에게 유나(**Euna**)를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 초기 랍비 주석인 피르케이 데 랍비 엘리에제르(Pirkei De-Rabbi Eliezer) 및 기타 랍비 출처(미드라시 라바 및 기타)에서는 빌하와 실바가 라반의 첩에서 태어난 딸들이었으며, 라헬과 레아의 이복 자매였다고 말합니다.



## 이스라엘 열두 아들 이름과 뜻

순서	이름	모친	뜻	성경구절
1	르우벤	레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창 29:32
2	시므온	레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창 29:33
3	레위	레아	나와 연합하리로다.	창 29:34
4	유다	레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 29:35
5	단	빌하/라헬	내 호소를 들으시다. (원뜻은 '판결하다')	창 30:6
6	납달리	빌하/라헬	경쟁에서 이기다.	창 30:8
7	갓	실바/레아	복되도다 (원뜻은 행운)	창 30:11
8	아셀	실바/레아	나를 기쁜 자라하리라(원뜻은 행운,복되다)	창 30:13
9	잇사갈	레아	그 값을 주셨다. (원뜻은 '임금' '가격')	창 30:18
10	스불론	레아	나와 함께 살리라(원뜻은 '거처')	창 30:20
11	요셉	라헬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원뜻은 '없애다')	창 30:24
12	베냐민	라헬	오른쪽의 아들	창 35:18

## 야곱의 열 두 아들과 딸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은혜와 응보의 함수=아가페=그리스도의 십자가

-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속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정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혼합된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 본래 정의와 사랑은 두 가닥의 철로처럼 피차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울면 정의가 웃고, 정의가 울면 사랑이 웃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없는 것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 그런데 영영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정의와 사랑이 만나진 곳, 정의와 사랑이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은혜와 응보의 함수=아가페=그리스도의 십자가

- 아가페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절묘한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무한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질 때는 죄의 삯인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될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보는 피차 함수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은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큰 법입니다. 그 희생을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그러나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이 바로 응보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물질과 반물질, 예를 들면, 빛과 어둠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쾌락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승리에는 피나는 훈련이 따르게 되어 있듯이, 혹은 그 반대로 피나는 훈련 후에 승리의 기쁨이 따르고, 고통이 있는 후에 쾌락이 있듯이 말입니다.
- 야곱이 쟁취한 축복의 언덕에는 응보라는 골짜기도 있었다는 것을 본문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Function of Grace and Chastisement

-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응보가 함수관계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야곱은 은혜라는 곳감만 빼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과감히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란 것은 신앙고백적인 면에서 보면, '연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 본문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야곱이 몇 가지 연단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첫째**, 야곱은 외로움이란 정신적인 연단을 통과 했습니다(1-13절).
-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와 형제를 떠나 떠나면 타향 낯선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자였습니다(25:27). 이것은 그의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 먼 타향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야곱은 분명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사촌 누이인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11절)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외로움이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속임수의 삶을 청산하고, 진솔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 **둘째,** 야곱은 노동이란 육체적인 연단을 통과했습니다(15-30절). 야곱은 외삼촌 집에 얹혀사는 이상 편안히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그는 육체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후에 31장 40절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극심한 육체노동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시련은 야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제 손으로 하는 수고를 통해서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 이 뿐 아니라, 힘든 육체노동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였고(31:42),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28:13-15) 잊지 않게 하였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평탄한 시절에는 제 힘과 제 자랑으로 살았지만,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면서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셋째, 야곱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응보라는 연단을 통과했습니다(15-30절).
- 이삭의 예를 볼 때, 야곱은 하지 않아도 좋았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삭은 집에서 평온히 지내면서도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고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대신해 주었고, 신랑의 지참금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챙겨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치 않고 아내를 얻었던 것입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면서 14년간 무보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짧지 아니한 고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데는 그만큼 피땀의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들에 대한 사랑도 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야곱은 14년의 무보수 노동의 대가로 2명의 부인과 2명의 여종(ἡθησῆ=몸종, 노예가 아닌)을 얻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디나)을 얻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이삭이 **평탄한 여생**을 보냈다면, 그의 아들 **야곱은 파란 만장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힘약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 일백삼십 년의 **“힘약한 세월”**은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그에 따른 축복을 가로챈 대가였을 것입니다.
- **세월이 힘약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평탄한 세월을 보낸 이삭보다는 힘약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야곱의 삶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맨주먹으로 쟁취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평탄한 삶의 배후에도 늘 계셨지만, 야곱의 험악한 삶의 배후에도 늘 계셨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아이에게보다는 천방지축인 아이에게 부모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더 큰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 **넷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연단**은 오랜 고통도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젊은 처녀에게는 없는 힘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오는 힘입니다. 사랑은 진정 상식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18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애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수고하는 것 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일하게 됩니다. 일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자기 아이를 등에 업으면 가볍지만, 남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거나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은 증거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의 경중을 탓하지 말고 사랑이 식은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20절).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봉사는 세월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주고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27절).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합리한 조건조차 초월합니다.
- 인간들의 모임인 우리의 교회에도 또는 가정에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불합리를 초월하시지 않았습니까?

## 은혜와 응보의 함수(창 29:1-35)

### Function of Grace and Chastisement

- 은혜가 크면, 그에 대한 대가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야곱이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험악한 세월은 역설적이지만 축복의 세월이었습니다.  
저지른 과오도 많았고, 받은 바 은혜가 컸던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컸던 것입니다.
- 알렉산더 캠벨의 두 번째 부인 셀리나 헌팅턴 캠벨(Selina Huntington Bakewell Campbell, 1802-1897)은 〈알렉산더 캠벨의 가정생활과 회상〉(Home Life and Reminiscences of Alexander Campbell, 1882)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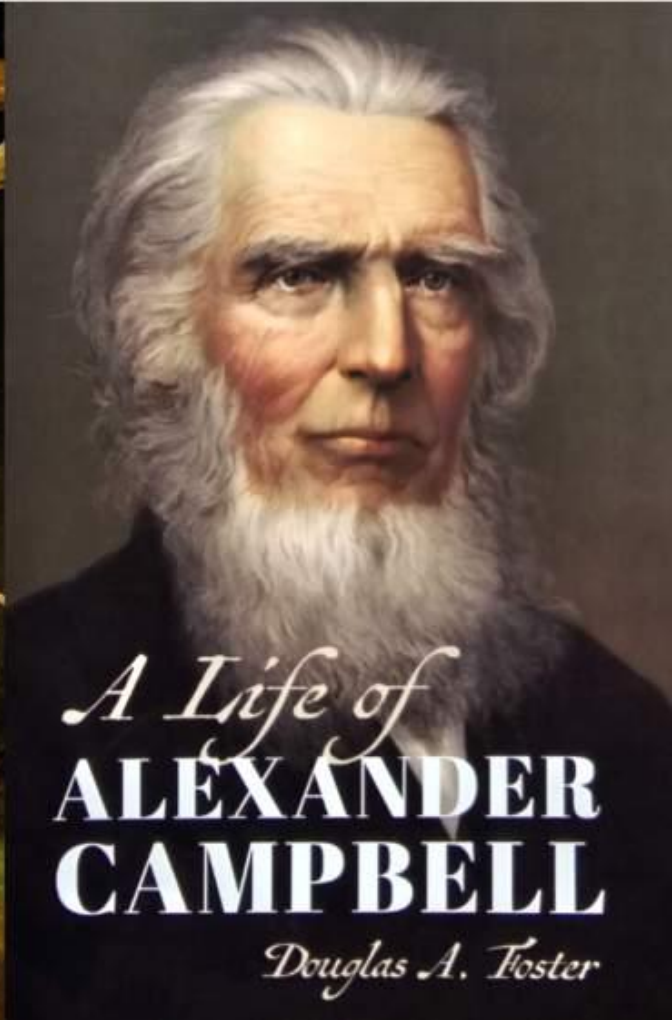
- “성경과 성경으로만 돌아가고, 인위적인 신조와 전통과 교리를 버리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모든 종파적 정당과 분열을 버리고, 우리의 종교적 실천과 예배에서 “사도시대의 복음”을 준수하자는 호소(plea, 呼訴)는 신성한 진리의 샘에서 나온 알렉산더 캠벨의 노고와 가르침에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별세하기 얼마 전, 차분하게 생각에 잠긴 채로 앉아 있었고, 나는 그분 옆에 혼자 있었는데,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Well, I had a work to do, and I did it.)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

- 애빌린(Abilene)기독교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더글러스 포스터(Douglas A. Foster)가 저술한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 “**알렉산더 캠벨은 기독교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복잡하고 영리하며 지칠 줄 모르고 오만(거만)하고 인종 차별적이며 공격적이고 다작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단련)하신 사람이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일군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캠벨의 마지막 말과 **“그는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단련)하신 사람이었습니다.”**는 포스터 교수의 말은 야곱의 삶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 은혜와 응보의 함수

- 또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삶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요 19:30)와 맥을 같이 합니다.
- 야곱, 알렉산더 캠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삶의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 곧 은혜와 응보의 함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하나님의 일군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단련)하신 일군들이었습니다.

## 창세기 30장 1-43절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창세기 30장 1-43절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 창세기 30장 1-43절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 (Please give me SOME of your son's mandrakes.)

➤ **밀 거둘 때** (5-6월, 오순절 무렵)

## 창세기 30장 1-43절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창세기 30장 1-43절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 창세기 30장 1-43절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 창세기 30장 1-43절

[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 창세기 30장 1-43절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점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 창세기 30장 1-43절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 창세기 30장 1-43절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 야곱의 아들들 בְּנֵי יַעֲקֹב



רְאוּבֵן  
르우벤



שִׁמְעוֹן  
시메온



יְהוּדָה  
예후다



דָּן  
단



נַפְתָּלִי  
나프탈리



גָּד  
가드



אַשֶּׁר  
아세르



יִשָּׂשכָר  
이싸칼



זְבֻלֹן  
즈블룬



מְנַשֶּׁה  
므나세



אֶפְרַיִם  
에프라임



בְּנִימִן  
비냐민

לוֹ '레비'와 יְהוֹסֵפִ: '예호세프'를 대신함



*Mandragora femina*



Mandragora

MANDRAGORA APPE MANDRAGORA OL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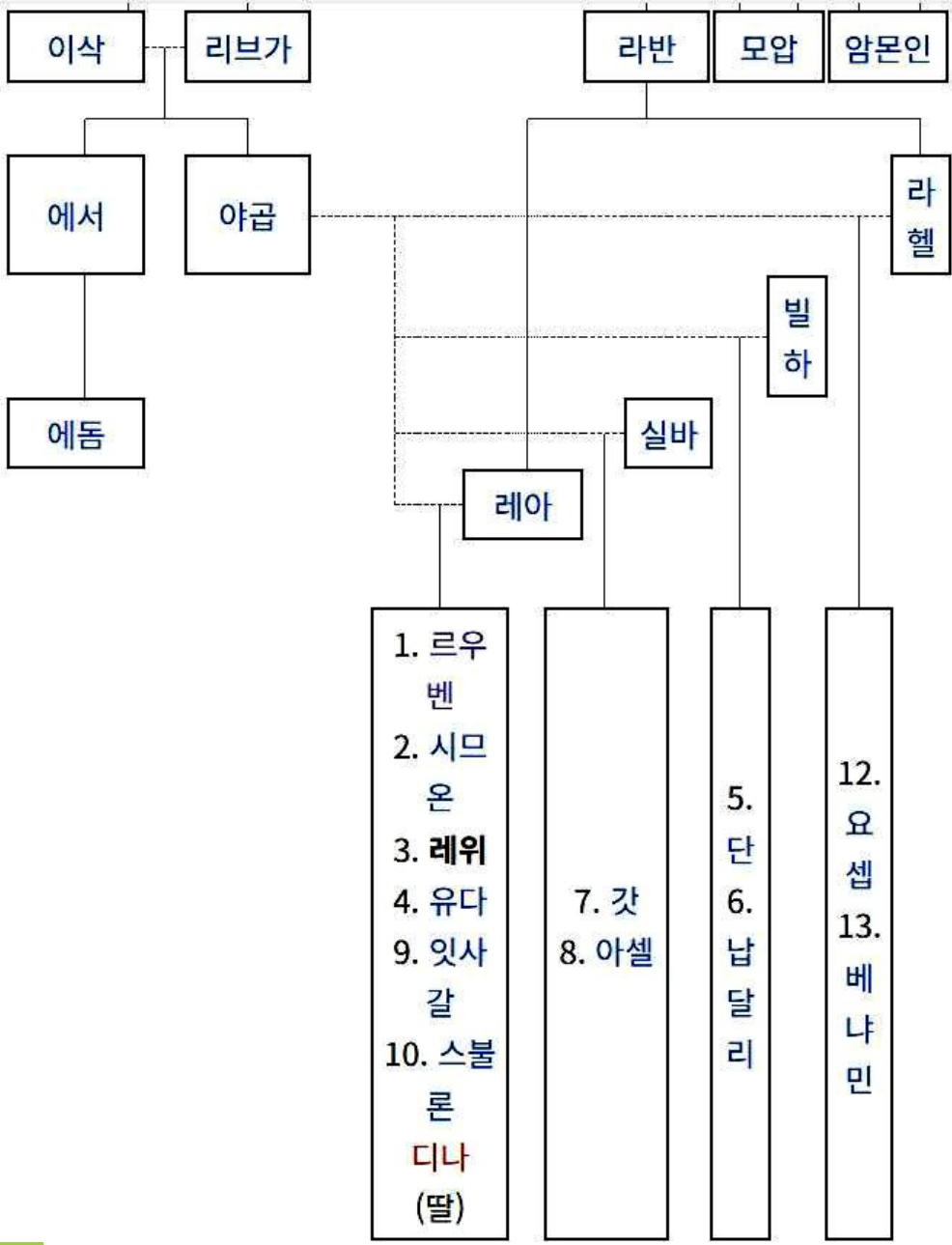


They already flower and have many fruits

- 열매는 껍질을 벗긴 후 씨를 빼고 먹어야 한다.
- 미처 빼지 못한 씨는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



- 르우벤이 들에서 캔 합환채를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합환채의 일부 (**Please give me some of your son's mandrakes. 14절**)를 자기에게 주면 야곱과의 잠자리를 레아에게 양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은 후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그 일 후로** 다시 임신하여 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라헬도 요셉을 낳았습니다.
- 라헬이 합환채(mandrake)를 갖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합환채가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불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성경에서 말하는 합환채는 히브리어로 דִּוְדָאִים(dûdāim)으로써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Mandragora officinarum'으로 봅니다.
- 합환채는 마취성이 있고 유독하다고 합니다. 플리니우스 시대(기원 23-79년)에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뿌리 조각을 씹도록 하였는데, 독성이 있으나 통증을 완화하고 진정시키며,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토제(구토 유도) 및 연옥(배변 유도)으로도 사용 되었다고 합니다(Blakemore and Jennett 2001).



## 이스라엘 열두 아들 이름과 뜻

순서	이름	모친	뜻	성경구절
1	르우벤	레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창 29:32
2	시므온	레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창 29:33
3	레위	레아	나와 연합하리로다.	창 29:34
4	유다	레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 29:35
5	단	빌하/라헬	내 호소를 들으시다. (원뜻은 '판결하다')	창 30:6
6	납달리	빌하/라헬	경쟁에서 이기다.	창 30:8
7	갓	실바/레아	복되도다 (원뜻은 행운)	창 30:11
8	아셀	실바/레아	나를 기쁜 자라하리라(원뜻은 행운,복되다)	창 30:13
9	잇사갈	레아	그 값을 주셨다. (원뜻은 '임금' '가격')	창 30:18
10	스불론	레아	나와 함께 살리라(원뜻은 '거처')	창 30:20
11	요셉	라헬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원뜻은 '없애다')	창 30:24
12	베냐민	라헬	오른쪽의 아들	창 35:18

### 야곱의 열 두 아들과 딸

라헬:베노니=내 고통의 아들  
야곱:베냐민=내 오른 팔의 아들

# 야곱의 짐승들의 유전형질의 개발

-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본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 흰색 100퍼센트의 짐승만 따로 모아서 길렀다고 해도 그 전에 이미 오랜 세월 점박이와 얼룩이 혹은 검은색 짐승들이 섞여 있었고 짝짓기들이 이뤄져 왔었기 때문에, DNA상으로 열성이기는 했지만, 점박이와 얼룩이 혹은 검은색 짐승들이 태어날 확률이 있었습니다.
- 야곱은 새로 태어난 새끼들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이 혹은 검은색 짐승만 골라서 유전형질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약용식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연한 버드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낸 후에 속가지들을 짐승들이 물을 마실 때 물통에 넣어둠으로써 비뇨기 또는 생식기를 튼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연한 버드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뭇가지 속에 약효가 있었고 그것들이 담긴 물통에서 물을 먹은 짐승들은 생식력이 증강되었던 것입니다.
-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이 마시는 물통에는 약성(藥性)이 있는 나뭇가지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라반의 양들은 생식력이 약했던 것입니다.

- **버드나무 껍질**은 열을 내리는 작용이 뛰어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키니네가 알려지기 전까지 학질 치료약으로 널리 썼으며 요즘도 더러 씁니다. 버드나무의 하얀 속껍질은 열을 내리고 통증을 멎게 하고 류머티즘 관절염, 감기, 학질, 황달, 간염 등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월간산(<http://san.chosun.com>)
- **아몬드나무**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및 메소포타미아 일부 지역이 원산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며 야생으로 자라기도 하고 과실나무로 재배되기도 합니다. 장수와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http://jdm0777.com/a-yakchotxt/amondeunamu.htm>
- **플라타너스나무**는 껍질에는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상처 치유 성분이 풍부한 베틀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껍질을 식초에 달인 것은 시린 이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인병, 피부염, 위장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리니우스(기원 23-79년)는 <박물지> 29권에 '플라타너스의 25가지 치료법'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 출처 :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185.html>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야곱은 유태인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면에서 보면, 야곱은 그다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은 인물인데, 창세기 저자는 왜 다른 인물들보다 야곱을 더 많이 소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야곱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척박한 삶의 현실을 전투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성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야곱은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항상 빈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몫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고, 얻은 것 같으면서도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워서 자기 몫을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형보다 늦게 땅에 첫발을 디딘 것처럼 주변국들에 비해서 그 출발이 상당히 늦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에 늦게 나온 만큼 자기 몫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입성 후에 차지한 땅들도 타민족이 쓸모없어서 버려둔 불모지였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야곱의 이름이 ‘아무개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관용구에서 나온 이름인데, 남에게 해를 끼쳐 이익을 취한다는 이름입니다.
-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천사를 놓아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 누구하고든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야곱, 에서, 이삭, 라반과 싸워야 했고, 하나님과도 싸워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없었던 야곱은 유태인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름입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유리하는 아람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돌이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으로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야곱도 에서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하란 땅에서 무려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을 떠나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이들 족장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이방 땅에 얹혀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데 있습니다.
-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딸들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닥쳐온 임박한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가서 흉년을 피했던 이삭도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 떠나면서 블레셋과 영구 불가침평화조약을 맺고 팔레스타인평화조약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집을 크게 번영하게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경제적으로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흉년의 때에 이집트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족장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잘 교훈 해주고 있습니다.
- 야곱은 복을 받아 네 명의 부인과 열세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그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들이 지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우리는 이 자식들의 이름에서 어머니의 한과 기쁨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레아는 첫아들을 낳자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딸보다는 아들을 낳고 싶었고, 아들을 낳자 그것이 자랑스러워 그 자식의 이름을 “야, 아들이다(르우벤)”라고 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레아 자신이 첫아들인 ‘르우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살펴 주신(라아)’ 결과라고 믿어서 아들 이름을 ‘르우벤’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시므온'(시메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한을 '들어주셔서(샤마)'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셋째 아들은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야곱 가문에 와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 넘보지 않고 자기하고만 '지내주기(라와)'를 바란다는 아낙네의 소원이 절절하게 담긴 이름입니다.
- 넷째 아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야다)"라는 뜻을 가진 '유다'(예후다)라고 지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석녀였습니다. 자기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서는 그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단)' 아들을 주셨다며 그 이름을 '단'이라 했습니다.
- '단'에 대해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우지 마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두 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이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흩어졌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미스터리란 것입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그 ‘사라진 부족’(lost tribe)의 성이 ‘단(Dan)’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檀君)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이스라엘 민족인 ‘단’부족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아들 많은 언니 레아도 부럽지 않을 뿐 아니라, 언니와의 ‘싸움(나프탈리)’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여 그 아들 이름을 ‘낱달리’(나프탈리)라고 지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언니 레아도 동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몸종 실바를 통해 아들을 얻고서는 ‘복(갓)’을 받았다고 여겨 자식 이름을 ‘갓’(가드)이라고 지었습니다.
- 실바가 또 아들을 낳자 너무 ‘기뻐서(아슈레이)’ 그 이름을 ‘아셀’(아세르)이라 했습니다.
- 이번에는 레아는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몸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준 ‘값(스카리)’을 받은 셈이 되었다 하여 그 아들을 ‘잇사갈’(이싸칼)이라고 지었습니다.
- 레아는 여섯 번째 마지막 아들을 낳고서는 이만하면 남편 야곱이 다른 아내들보다 자기를 더 ‘자랑스럽게 여겨 주리라(자발)’는 기대에서 그 이름을 ‘스블론’(즈블룬)이라고 지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전혀 임신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라헬도 태가 열려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열한 번째의 아들입니다. 열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 더 주셨으니(야싸프)'라는 뜻으로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라헬로서는 이 아들 하나만 낳고 태가 닫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야싸프)' 원하면서 첫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 이렇듯 두 어머니가 지어준 아들들의 이름에는 어머니들의 한과 기쁨과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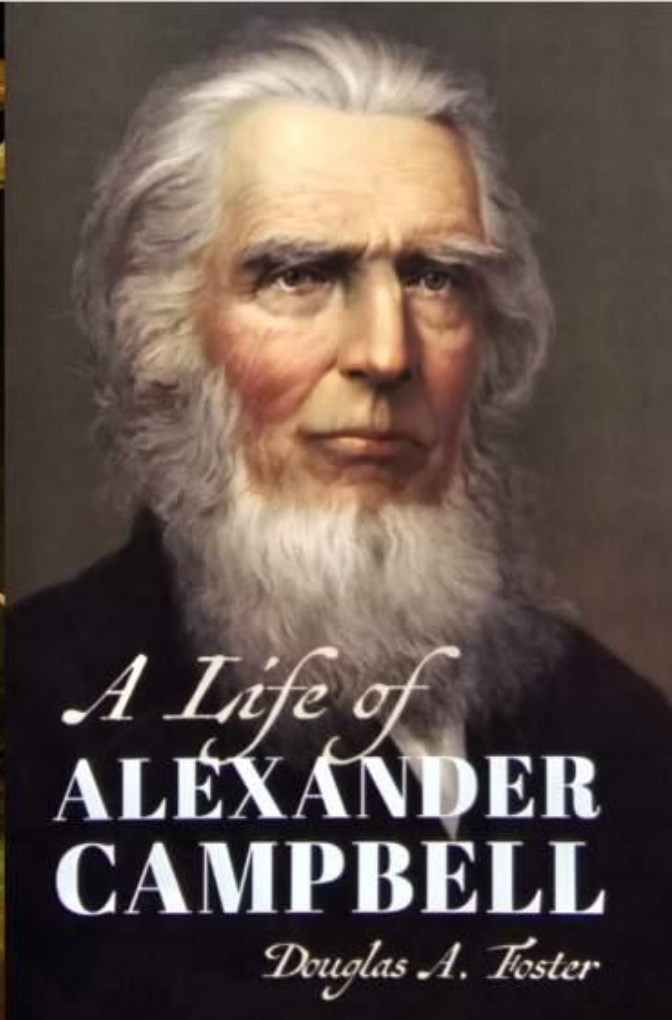
- 불임의 수치를 씻으려는 열정과 태가 열리고 생명이 출산 되는 기쁨과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하나뿐인 남편을 차지하려는 정열과 많은 자식들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가 되어 가문의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려는 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벤자민’ 출산과 동시에 죽어가면서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을 “나의 오른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벤자민’(비냐민)이라 불렀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낳아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으므로 주인과 합법적으로 성적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면 대접을 달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처와 같은 권리는 없었으며 자유가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본처에게 아이가 없으면 첩이 낳은 아이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처에게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일부는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0:1-43)

- 고대사회에서 다산은 가문을 잇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자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성의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자녀를 많이 낳아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하였습니다. 그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몸종들이 실바와 빌하였던 것입니다.
- 실바와 빌하는 여주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낳았으나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어머니 반열에 올랐습니다. 야곱이 사회적 약자에게 큰 유익을 끼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싸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하나님의 일군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단련)하신 일군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랬듯이 “Through It All” 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9]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 그 양 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13]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창 31:1-55)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הַתְּרָפִים (ha te-rā-pīm)  
the household idols  
드라빔 (가족 신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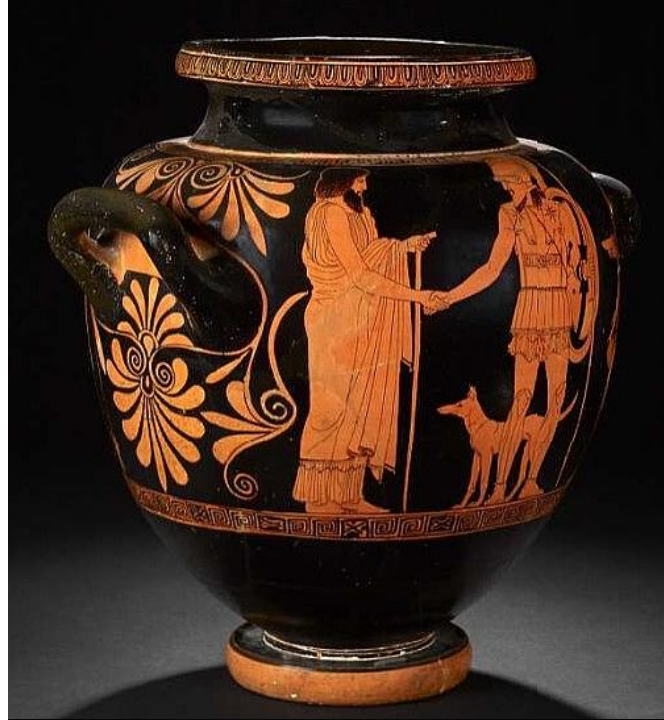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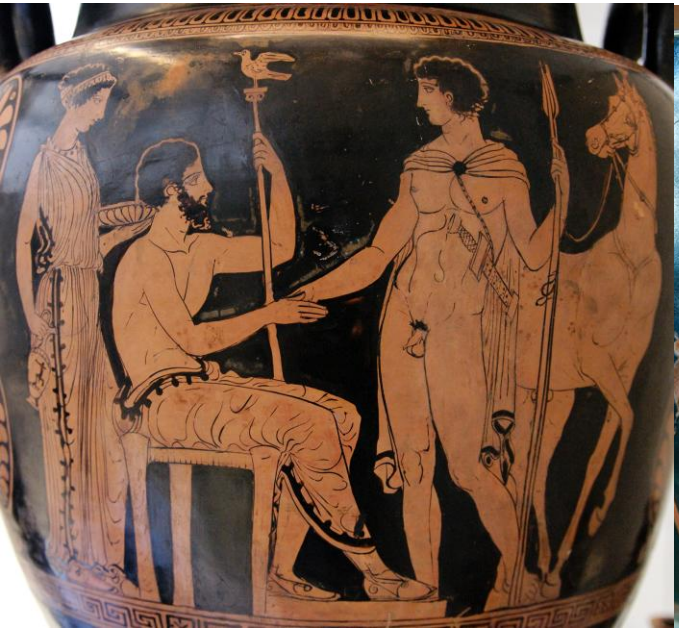
## 잘 보존된 폼페이 유적의 벽감실과 모셔진 가족 신상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노예들까지 다 함께 이곳에서 매일 제사나 기도를 바쳤다. 출정하는 군인이나 여행을 떠나는 자가 출발에 앞서 현주하며 안전을 빌었던 제단.

**출정하는 전사가 그려진  
적화도기(stamnos)  
그리스 Attica, 450-440BC,  
Vulci에서 발굴**

완전무장한 전사가 전장터로  
떠나기 전에 가족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악수를 하는 남자는 이  
군인의 부친이었을 것이고,  
가족의 신들에게 헌주할  
제주병과 잔을 들고 선 여자는  
이 군인의 모친이었거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에베소에서 발굴된 주택의 벽감실

벽감실은 가족 신들, 특히 가정의 수호신들과 집을 지키는 조상의 혼령들을 모신 성감을 말한다. 사진에 보이는 벽 앞쪽에 장식된 두 작은 기둥 안쪽이 벽감실이다.



הַר גִּלְעָד 하르 길레아드(Gilead)=길르앗 산



Haran

Sea of Galilee

Bethel

Beersheba

길르앗  
압복강



길르앗 Gilead

Jordan River

Jabbok River

Mahanaim(?)

압복강



길르앗 산지와 압복강

יְגַר שְׁהָדוּתָא

Jegar Sahadutha '여갈사하두다'(아람어) :  
증거 무더기

גַּלְעָד

Galeed '갈르엣'(히브리어) : 증거 무더기

מִצְפָּה

Mizpah '미스바'(히브리어): 망루, 석총  
(石塚 : 돌 무더기)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20년 만에 네 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와 수많은 짐승의 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본문에서만 네 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3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5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9절),**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42절)가 야곱의 신앙고백입니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듯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도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종처럼 일할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되고, 처복과 자식 복에다 재물 복까지 받았으니 셈이 날 법도 합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누이들과 소유물까지 강탈하여 부자가 된 것이라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여 말하기를 그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도 이때야 말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회개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투자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손을 떼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끊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변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열심히 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기독교 역사관에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정한 시간 곧 하나님이 짜 놓으신 스케줄을 뜻합니다. 그 스케줄대로 찾아오는 것이 정한 때라는 시간입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그 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주님께서 불시에 재림하실 때처럼, 그 때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야곱은 제멋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주도면밀하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고, 착수하고, 착수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강물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그는 때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시장한 때를 노려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한 짐승으로 요리를 해오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에서보다 한발 앞서 눈먼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서 바침으로써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거론하자,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연모하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며 칠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무보수로 봉사한 야곱에게 라반이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야곱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대단한 모험(투자)을 시도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제게 무엇을 주실 것이 아니라,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먹이는 짐승 가운데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새끼로 태어나면 그것들을 제 몫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점이 있거나 아롱진 짐승은 모두 골라내서 라반이 가져가 버리고, **점 없고 아롱진 것이 전혀 없는 짐승들만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라반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 승낙했습니다. 당장에 무엇인가를 줄 필요가 없어서 좋고, 따로 보수를 마련할 필요도 없어서 좋고, 점 없고 얼룩 없는 짐승만을 골라 맡기면 점이 있거나 아롱진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 좋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에 라반이 유전의 법칙을 조금치라도 알고 있었다면 야곱의 제안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짐작하고 거절할 수 있었겠지만, 수천 년 전에 유전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그러나 야곱은 오랜 목축경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유전의 법칙을 어렵듯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되자 야곱은 정당하게 자기 몫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야곱의 손에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야곱에게 함께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실한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야곱이 복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라반이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라반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8절 이하를 보면,
-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야곱의 편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야곱을 열 번이나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고 하였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성도님들의 지난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이 축복이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고만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하며 쌓은 부이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라헬과 레아가 친정을 떠나 먼 길을 가자는 야곱의 제안에 선뜻 그러겠노라고 응해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 그들의 야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함께 몸을 부비며 살아가는 가족들로부터 그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야곱은 가족들로부터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그간 우리는 야곱의 네 명의 부인들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했던 점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야곱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 이제 그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에서하고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가 힘겹게 얻은 재물을 지혜롭게 에서에게 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의 성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실타래처럼 엉킨 지난날의 복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게 했던 것, 최후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하고 언약의 돌기둥을 세운 후에 더불어 먹고 마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예표인 것입니다.
-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쌍방간에 계약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나 협약 또는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고(삼후 3:20),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쌍방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출 24:11).

-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성만찬으로 발전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고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히 9:14-15).
-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언약 백성’으로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이 귀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 거부가 된 야곱(창 31:1-55)

- 야곱은 बाट단아람에 머무는 20년 동안 사랑의 성취가 지연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품삯이 바뀌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귀향을 방해받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인격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 주전 7-8백 년경에 쓰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뒤세우스의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와 비교될만한 점이 약간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창세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뒤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트로이 목마의 고안자였습니다. 트로이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영웅 오뒤세우스는, 그러나, 고향에 당도하기까지 운명적인 유랑 곧 바다에서 20년간 파란만장한 방랑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 오뒤세우스는 아테나의 총애를 받던 영웅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지혜로운 호의를 베푸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20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절제된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절제된 도움'이란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영감에 해당됩니다. 영감은 마치 고삐와 같아서 성령님이 고삐를 잡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본향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슈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뒤세우스, 아테나, 나우시카아를 그린 암포라(440BC, Vulci) 및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외젠 들라크루아, 1854-61, 파리 생 실피스/Saint-Sulpice 성당) 고향을 떠나 야곱은 황야에서 오뒤세우스는 거친 바다에서 각각 20년간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파선으로 알몸이 된 '오뒤세우스'는 아테나의 주선으로 '알키누스'의 딸 '나우시카아'를 만났고, 부녀의 도움을 받아 20년 만에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고향 땅을 밟고 왕권을 회복했고, 야곱은 야훼의 도움으로 거부가 되어 부모가 계신 고향 땅을 밟았다.

## 하나님과 그의 씨름(창 32:1-32)

-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총 550마리와 그 새끼들**

## 하나님과 그의 씨름(창 32:1-32)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흑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북 나루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하나님과 의 씨름(창 32:1-32)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 '마하나임'(מַחֲנַיִם Mahanaim)

- מַחֲנַיִם Mahanaim, meaning "two camps", 두 진영, 무리, 떼
- מַחֲנֵה אֱלֹהִים mahaneh Elohim, meaning "Camp of God",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
-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장소를 야곱이 지은 지명.
- '마하나임'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격려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진영이 함께 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며,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브니엘'(פְּנִיֵּאל Peniel), '브누엘', '부느엘'(פְּנוּיֵּאל Penuel)

- פְּנִיֵּאל panim, meaning "face" and אֱלֹהִים El meaning "God"), thus "face of God." I saw God (אֱלֹהִים Elohim) face to face.
- 중세기 세파르딕 유대인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 (Maimonides, AD 1135-1204)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눈 바가 있다. 그는 '엘로힘'을 "천사들"(Malachim, 6등급)보다 못한 7등급으로 분류했다.
- 또 호세아는 야곱이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12:3-4)고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야곱이 씨름한 인물을 천사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 '브니엘' ( פְּנִיֵּל Peniel), '브누엘', '부느엘' ( פְּנִיֵּל Penuel)

-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는 즉시 죽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을 했던 인물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형태 곧 "어떤 사람"(a man, 24절)이었다. 당연히 날개가 달린 수호천사는 아니었다.
-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Elohim)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고,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called the place Peniel... I saw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30절)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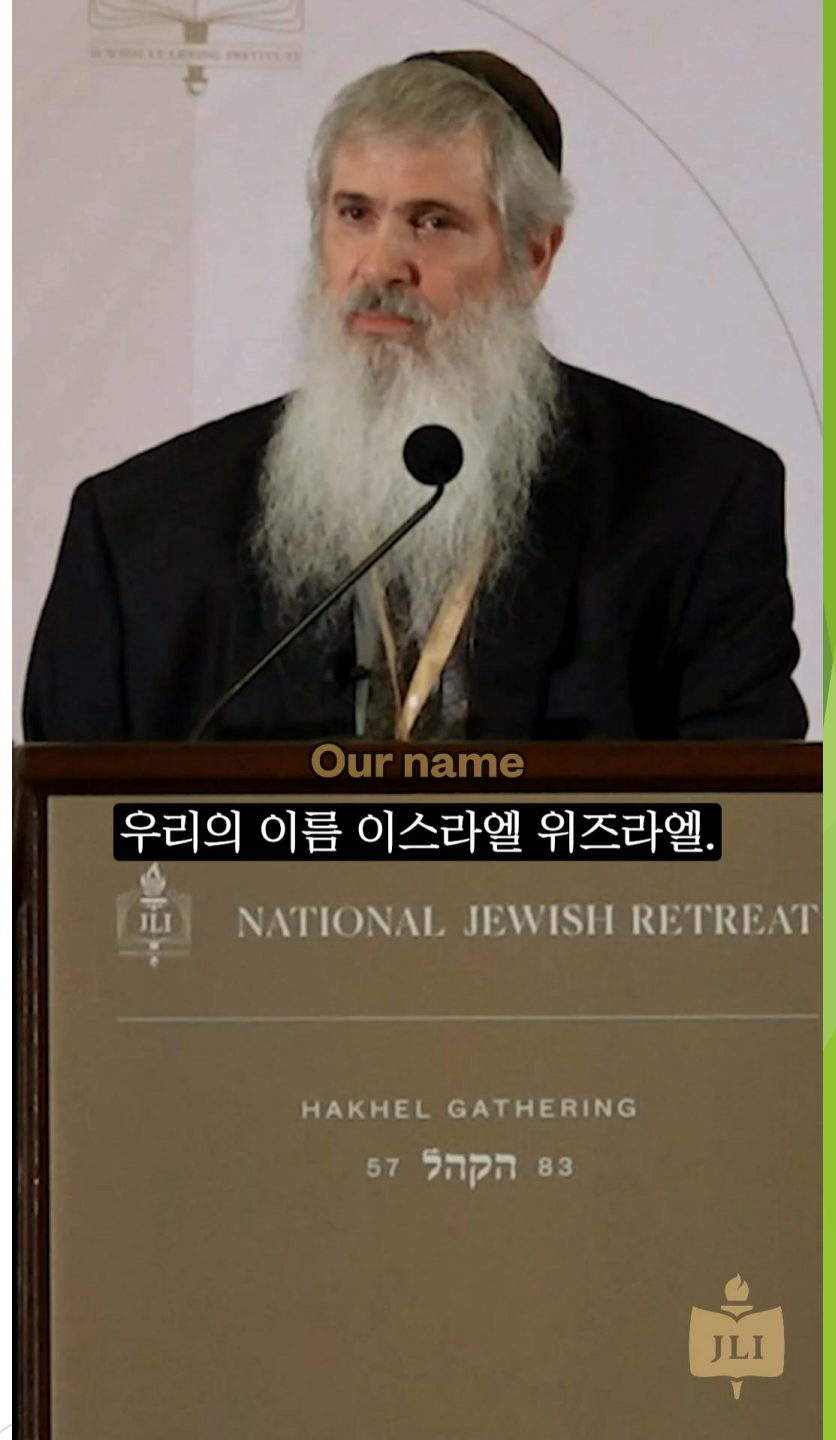
## '이스라엘'(יִשְׂרָאֵל)의 뜻

- יִשְׂרָאֵל He struggles with God.
-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28절).
-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뤘다”(as a man he struggled with God, 호세아 12:3).
- 따라서 이스라엘(יִשְׂרָאֵל)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다.

## '야곱'(יַעֲקֹב 야아콥)의 어원과 의미

- 히브리어 어근 יַעֲקֹב(아퀘브)에서 파생되었으며, '발꿈치' 또는 '대체자'(지위를 빼앗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In the womb he grasped his brother's heel, 호 12:3, 창 25:26)
- 따라서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뒤를 쫓는 자 혹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이다.

#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인가? What does Israel mean? 한글 자막



# '브니엘' ( פְּנִיֵּל Peniel), '브누엘', '부느엘' ( פְּנִוֵּל Penuel)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 '브니엘'은 하나님께서 매우 늙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영토)과 민족 곧 나라(국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그 국가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 주신 지명이다.
- '브니엘'은 본래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외지였으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진 역사성 때문에 출애굽이후 사사시대에 마을이 생기고(사사기 8장), 북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세겔과 함께 브니엘을 건축하였다(왕상 12:25).
- '브니엘'에 한 때 성전이었던 터 위에 유대교회당이 건축되었고, 그 터 위에 다시 비잔틴 교회가 들어섰던 돌들이 발굴되었으며, 여로보암이 건축한 철기시대의 성벽과 도자기도 발굴되었다.

서(西, 요르단)

다하브  
요르단강 (Alla, 8KM)  
향남

압복강

북(北)

브니엘  
(edh-Dhahab,  
90M)

동(東, 요르단)

\* Selah Merrill이  
1877년에 '다하브'를  
'브니엘'로 확인 함.  
남(南)

북(北)

요단강, 숙곳(Alla, 8KM) 방향

서(西, 요르단)

브니엘

동(東, 요르단)

(edh-Dhahab,  
90M)

압복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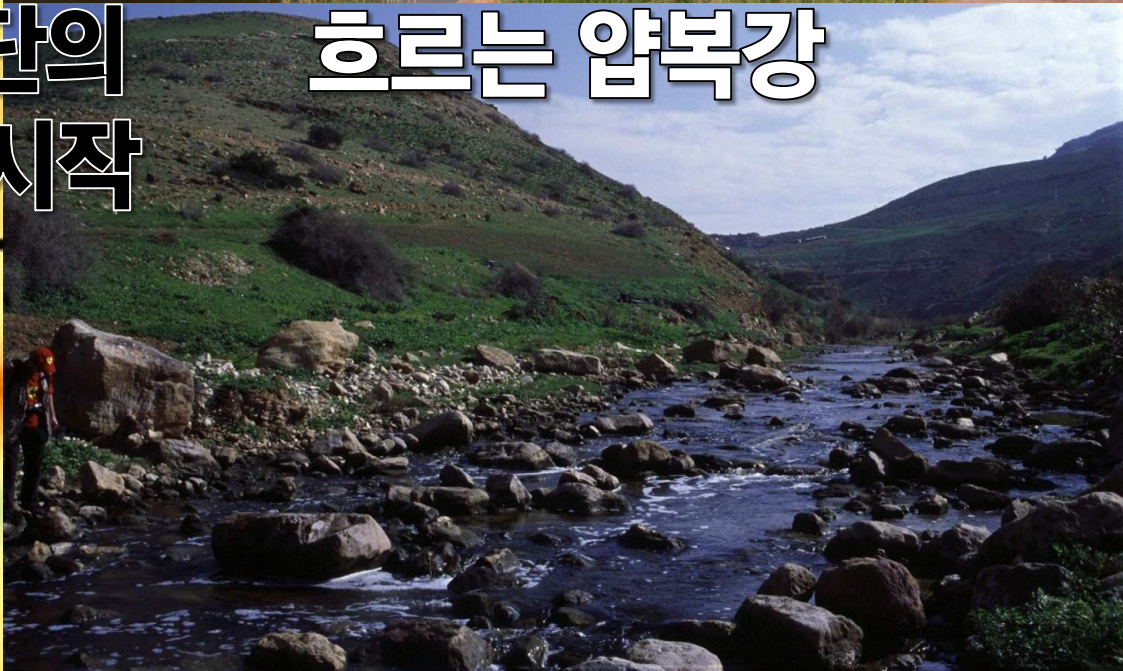
남(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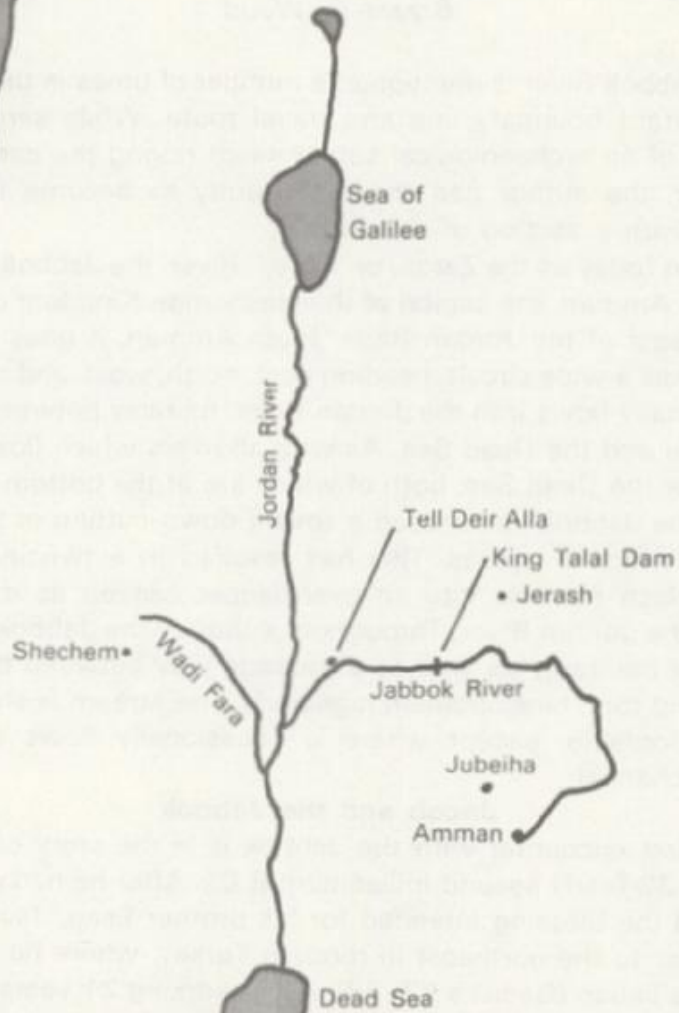
**압복강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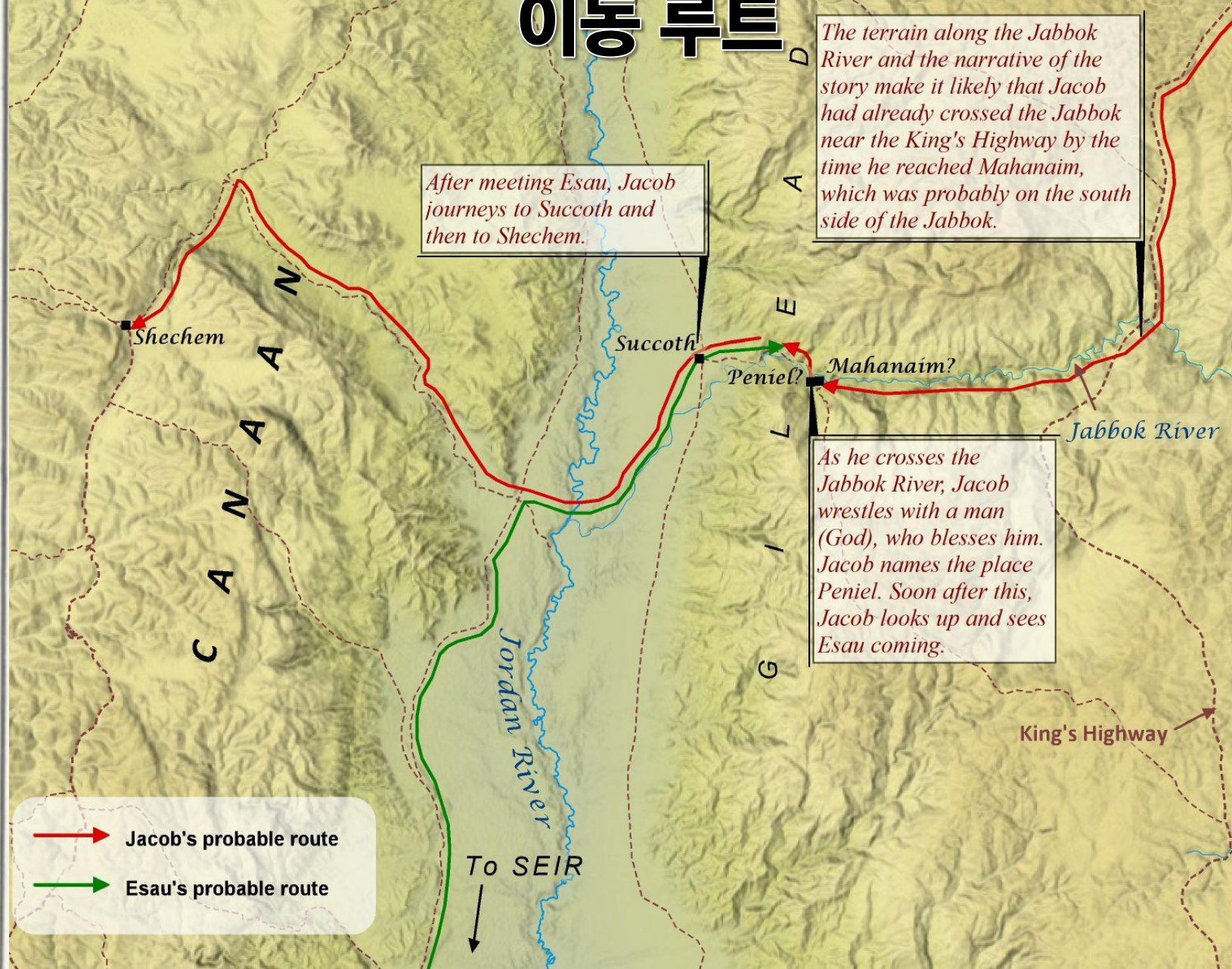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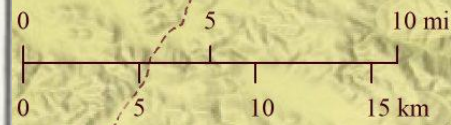
**브니엘을 감싸고 흐르는 압복강**



# 압복강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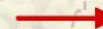

# 야곱과 에서의 이동 루트



The terrain along the Jabbok River and the narrative of the story make it likely that Jacob had already crossed the Jabbok near the King's Highway by the time he reached Mahanaim, which was probably on the south side of the Jabbok.

After meeting Esau, Jacob journeys to Succoth and then to Shechem.

As he crosses the Jabbok River, Jacob wrestles with a man (God), who blesses him. Jacob names the place Peniel. Soon after this, Jacob looks up and sees Esau coming.

-  Jacob's probable route
-  Esau's probable route

To SEIR

서(西, 요르단)



에서가 오고 있는 방향

브니엘

(edh-Dhahab, 90M)

남(南)

북(北)

야곱이 가족과 짐승을  
피란시킨 방향

동(東, 요르단)

서(西, 요르단)



에서가 야곰을 찾아  
오고 있는 방향

야곰이 브니엘에서  
에서의 이동을 주시

북(北)


동(東, 요르단)

남(南)



**열왕기상 12장 25절 :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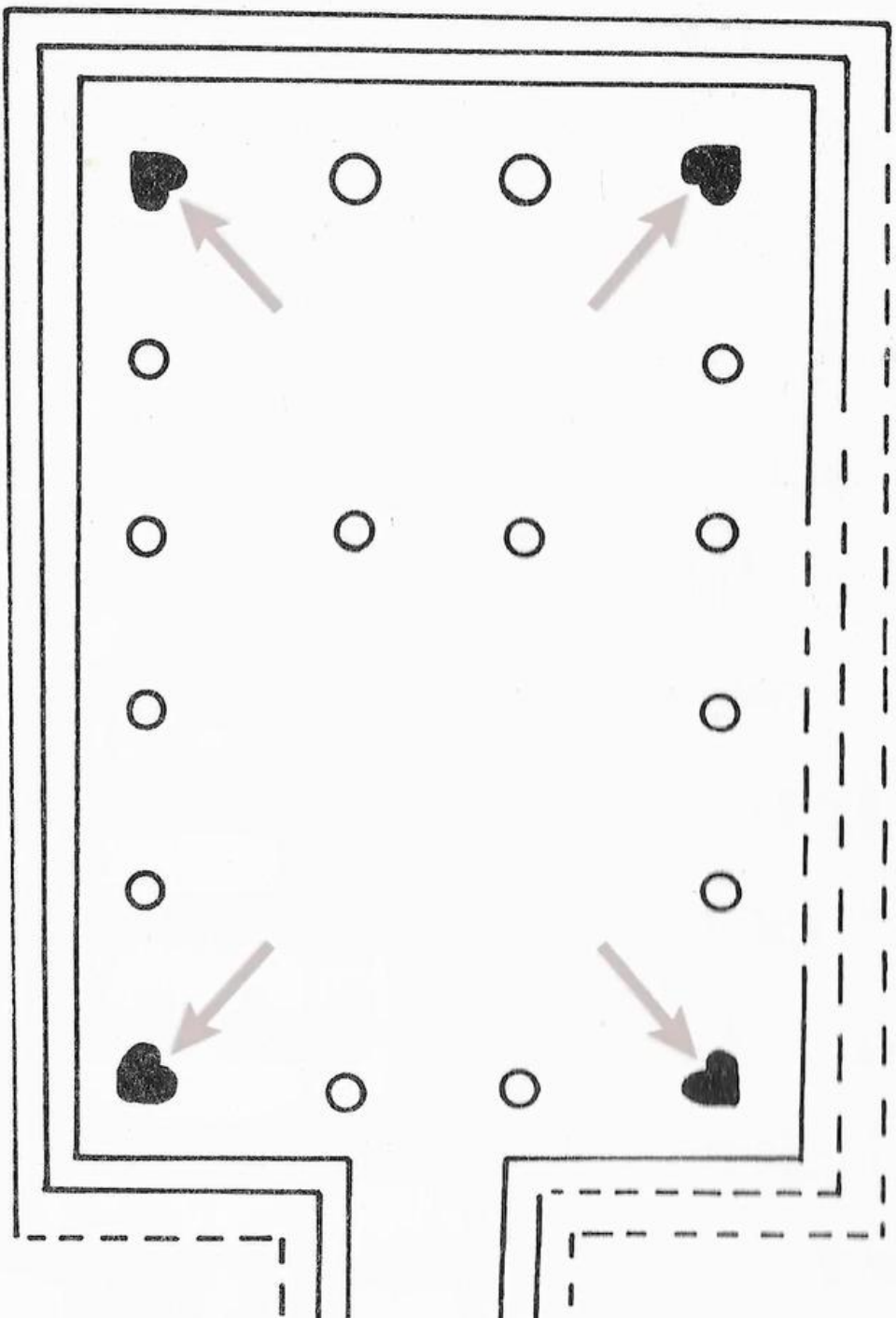
A man in a blue shirt and cap stands in a desert landscape with hills in the background. He is surrounded by large, rectangular stone blocks, some of which are stacked or arranged in a way that suggests an archaeological site. The ground is dry and rocky, with some sparse vegetation.

**브니엘 정상에서 발굴된  
유대교 회당의 모퉁이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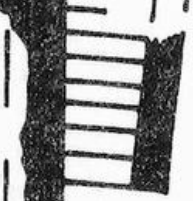
**ARCHAEOLOGIST**

Joel P. Kramer

유대교  
회당의  
하트  
모양의  
모퉁이들



STREET



**가버나움  
회당정면  
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돌**



**가버나움  
회당의  
동쪽벽면**



Looking at the East wall of  
the Capernaum Synagogue  
from inside the Synagogue

# 가버나움 회당정면 기둥비문



Front right of synagogue



*Inscription on  
pillar at  
front right  
of synagogue*

ΗΡΩΔΗΣ ΜΟΝΙΜΟΥ ΚΑΙ ΙΟΥΣΤΟΥΣ ΤΟΙΣ  
ΤΕΚΝΟΙΣ ΕΚΤΙΣΑΝ  
ΤΟΝ ΚΙΟΝΑ

"Herod, the son of Monimos, and Justus, his son,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erected  
this column."

**가버나움  
회당의  
1세기 바닥  
유적(현무석)  
과 4세기  
유적(석회석)**

30 AD Wall

300's Floor

300's AD Limestone Block Walls



**Remains of walls and  
floors of the first century  
basalt stone synagogue  
below the fourth century  
limestone synag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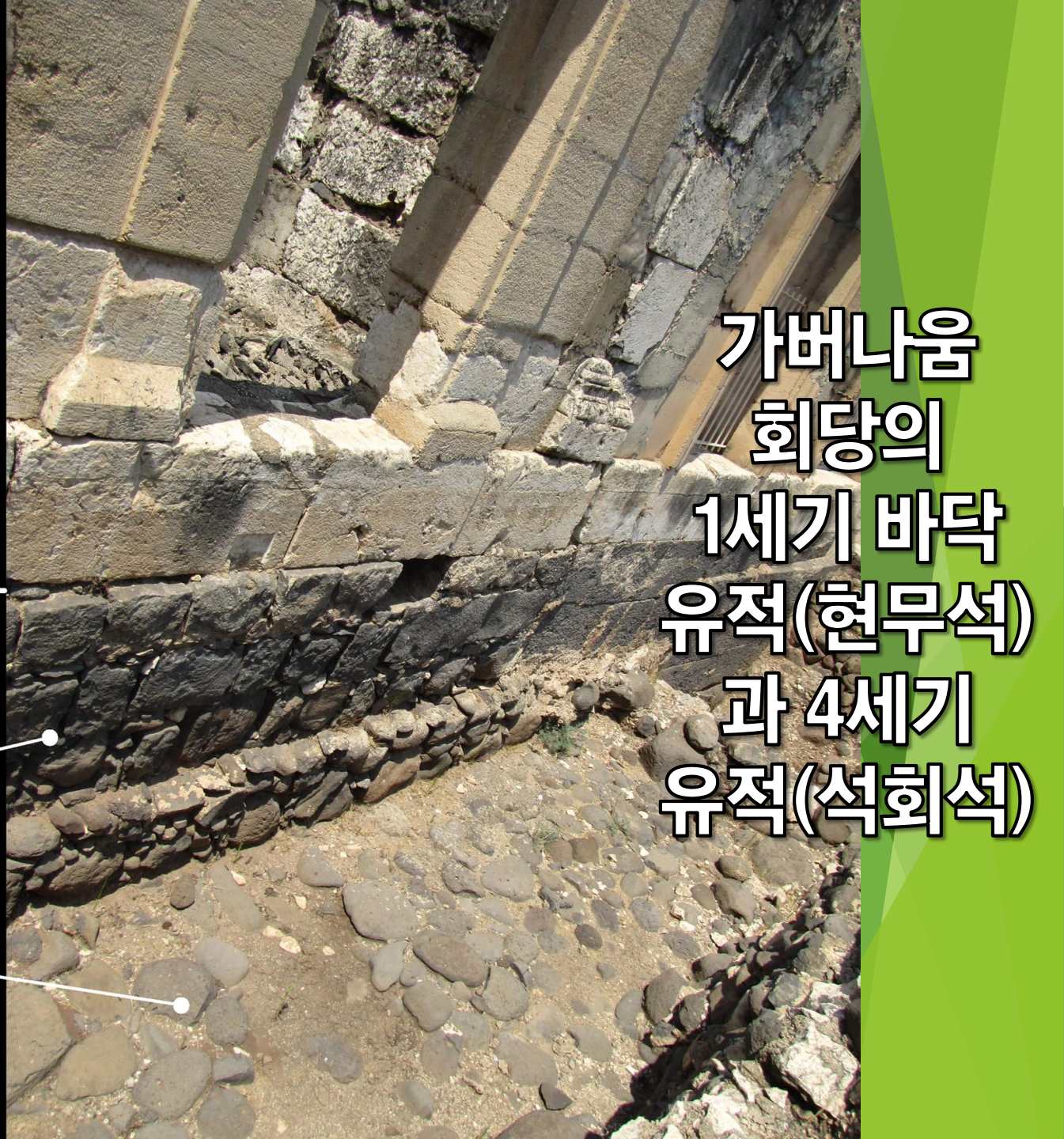


300's AD Limestone Synagogue

White Limestone blocks of 300's AD Synagogue

Basalt stone walls of the first century Synagogue where Jesus taught in 30 AD

30 AD Basalt Stone Synagogue FLOOR and WALL



가버나움 회당의 1세기 바닥 유적(현무석) 과 4세기 유적(석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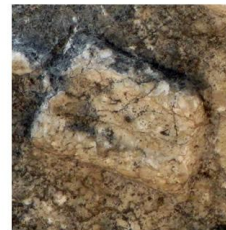
# 가버나움 회당 기둥머리문양



Seven Branched Menorah on a Tripod  
on a Corinthian capital from the Capernaum Synagogue



Incense  
Shovel



Ram's Horn  
(Shophar)



Corinthian  
Acanthus leaves

Tripod  
Base



# 가버나움 회당의 키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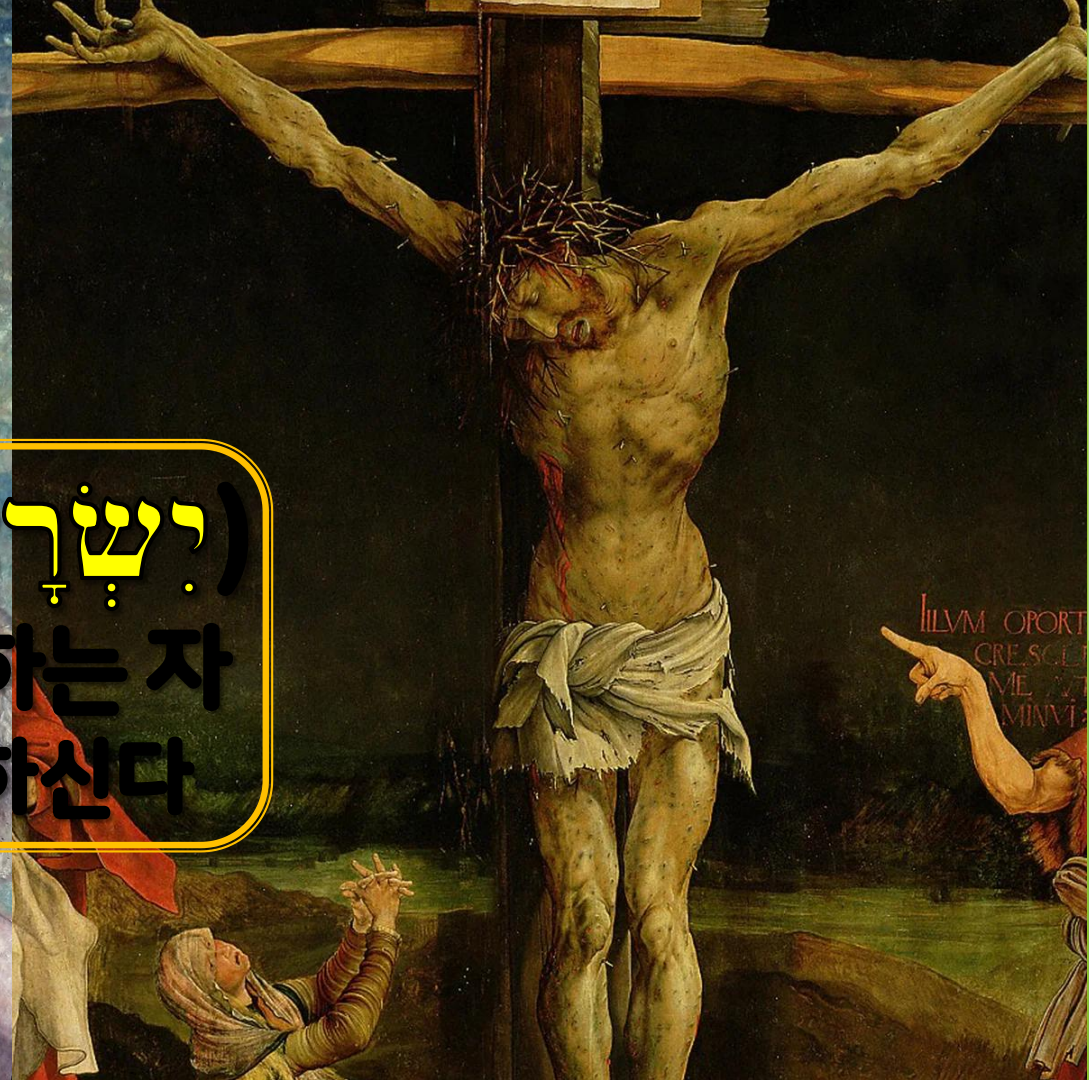


Keystone from Capernaum's white limestone synagogue. Features include: wreath encircling a shell with the double knot of the wreath held by the beaks of two birds that some religious group felt the need to deface.

➤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in great fear and distress, 7절) 야곱이 야훼께 드린 기도 내용**

➤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Save me from the hand of my brother Esau 11절)**

-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끝내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28절).
- 아침이 되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았다(31절).
-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종려(승리)주일과 부활주일의 예표였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단련)하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 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 부활의 새 아침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듯이(창 32:31) “Through It All”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란 칭송을 얻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 하나님과 그의 씨름(창 32:1-32)

-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총 550마리와 그 새끼들**

## 하나님과 그의 씨름(창 32:1-32)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흑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박 나무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하나님과의 씨름(창 32:1-32)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하나님과 의 씨름(창 32:1-32)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 ‘브니엘’에 관한 동영상 자료

[PENIEL: Where Jacob saw the Face of God and lived!](#)

[Peniel subtitles 브니엘 한글자막](#)

요르단에는 오래전에 고고학적으로 '브니엘'로 확인된 성경에 나오는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 요르단에 아랍어로 '자르카'(Zarqa, 푸른 강)란 시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압복(흐름)강이라고 불리는 시내입니다.



아랍어로 툴룰 에드 다하브(Tulul Adh-Dhahab, 황금 언덕들)라 불리는 두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더 큰 언덕이 브니엘(혹은 브누엘, 부느엘)입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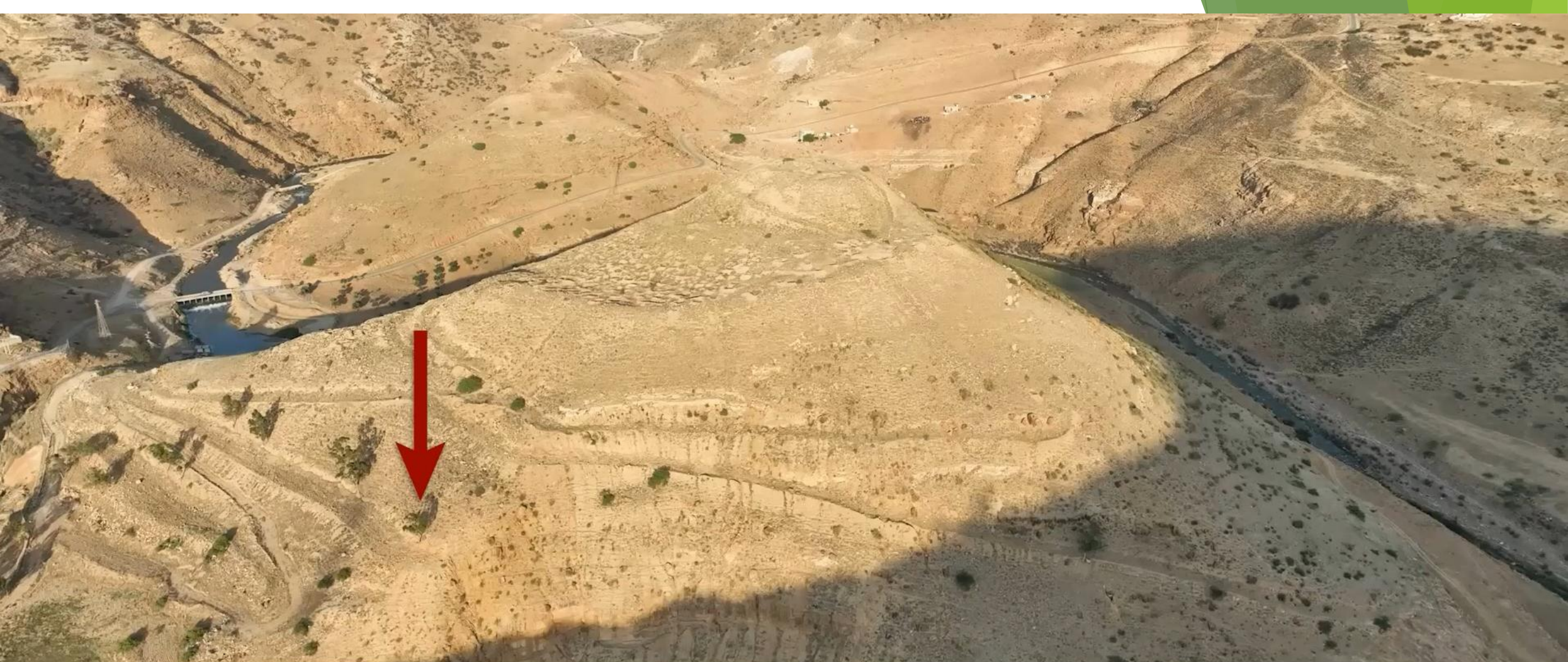
아랍어로 툴룰 에드 다하브(Tulul Adh-Dhahab, 황금 언덕들)라 불리는 두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더 큰 언덕이 브니엘(혹은 브누엘, 부느엘)입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desert canyon. A paved road runs along the top left edge. A river flows through the canyon on the right side. The canyon walls are steep and show signs of erosion. The ground is sandy and sparsely vegetated with small green shrubs. A large, dark, rectangular text box is overlaid on the bottom half of the image.

아랍어로 툴룰 에드 다하브(Tulul Adh-Dhahab, 황금 언덕들)라 불리는 두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더 큰 언덕이 브니엘(혹은 브누엘, 부느엘)입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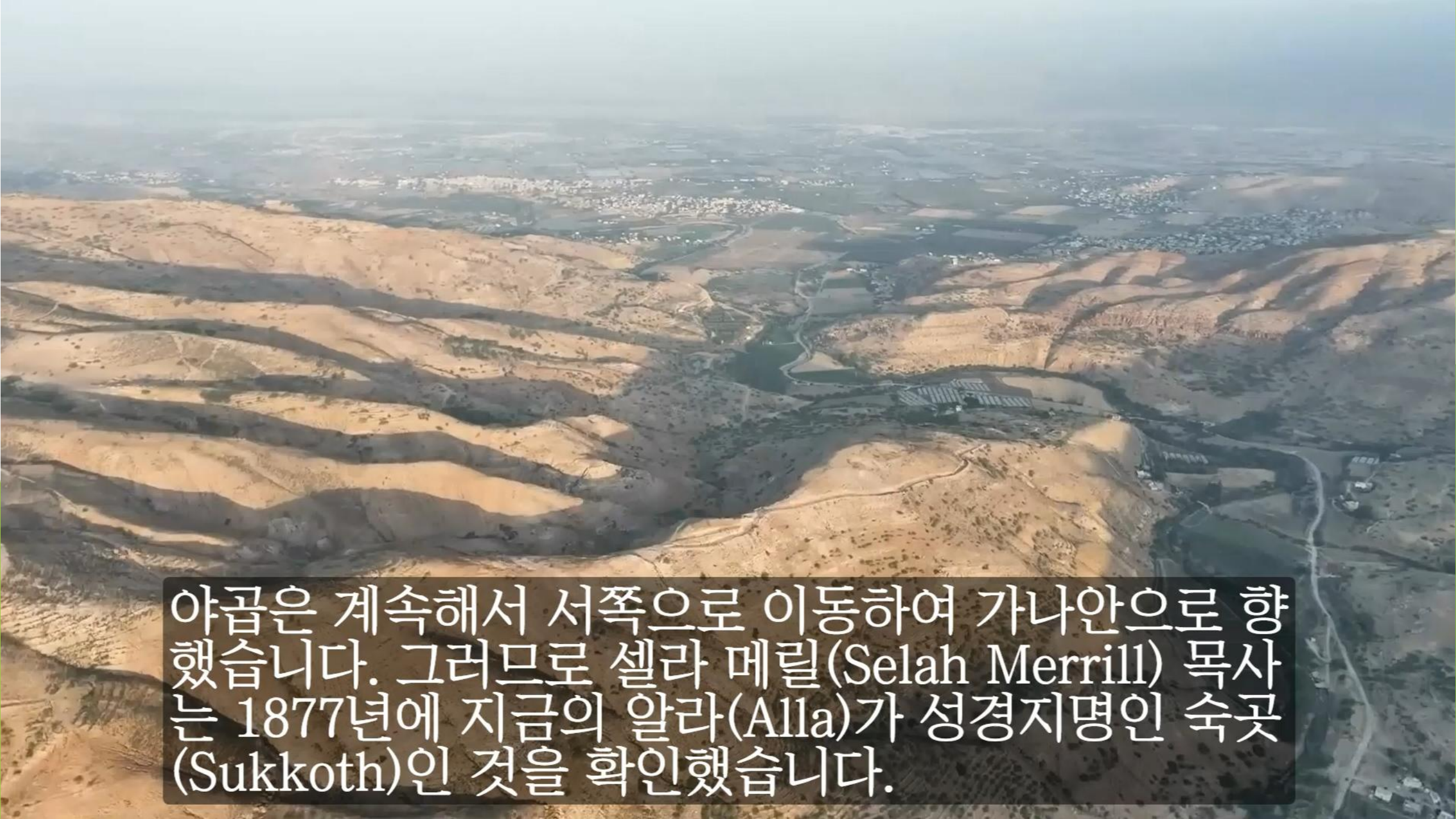
열왕기상 12장 25절은 여로보암이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성벽과 철기시대의 도자기 두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은 여로보암이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성벽과 철기시대의 도자기 두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브니엘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늘날 알라(Alla)로 불리는 '숙곳'이 있습니다. 숙곳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 향한 곳입니다.

An aerial photograph showing a wide valley with a river winding through it. The hills on either side are terraced, suggesting agricultural use. In the distance, a town or city is visible. The sky is clear and blue.

야곱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셀라 메릴(Selah Merrill) 목사는 1877년에 지금의 알라(Alla)가 성경지명인 숙곳(Sukkoth)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셀라 메릴(Selah Merrill) 목사는 1877년에 지금의 알라(Alla)가 성경지명인 숙곳(Sukkoth)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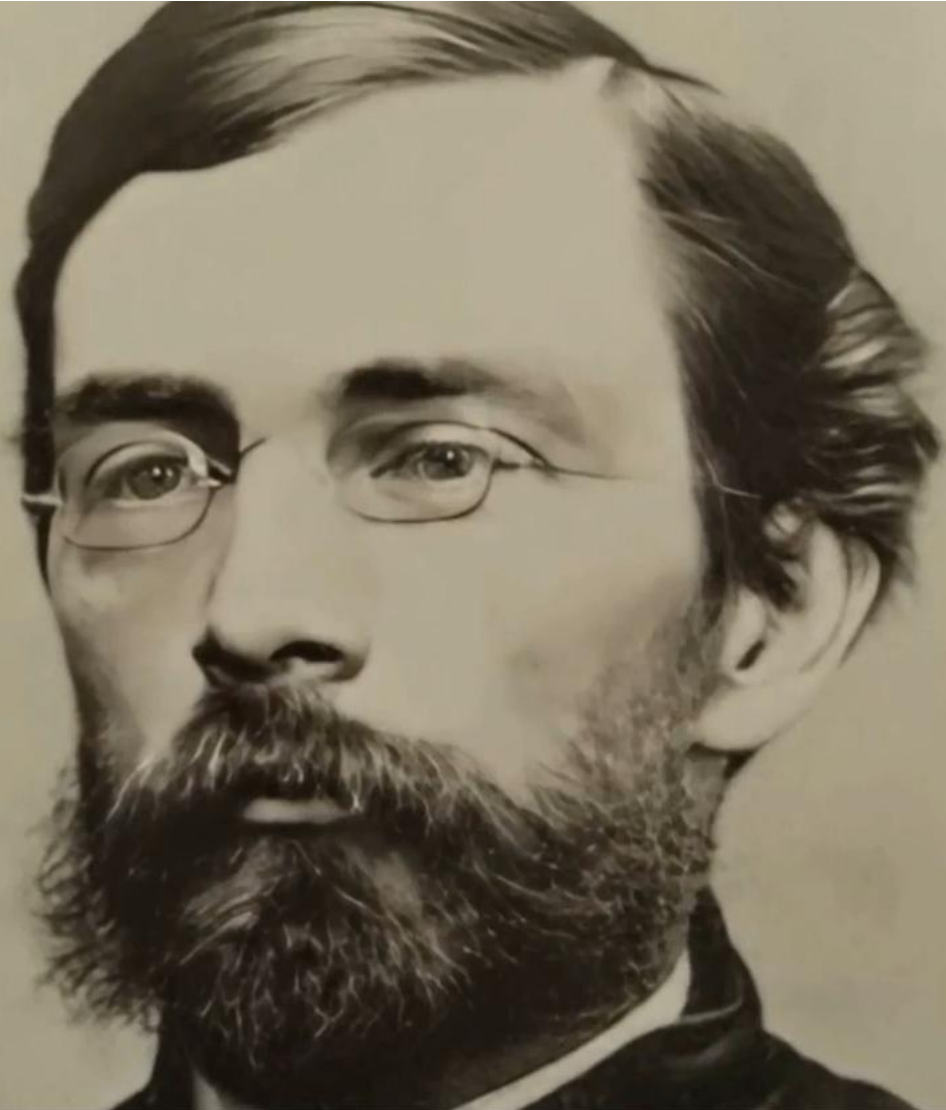
PEN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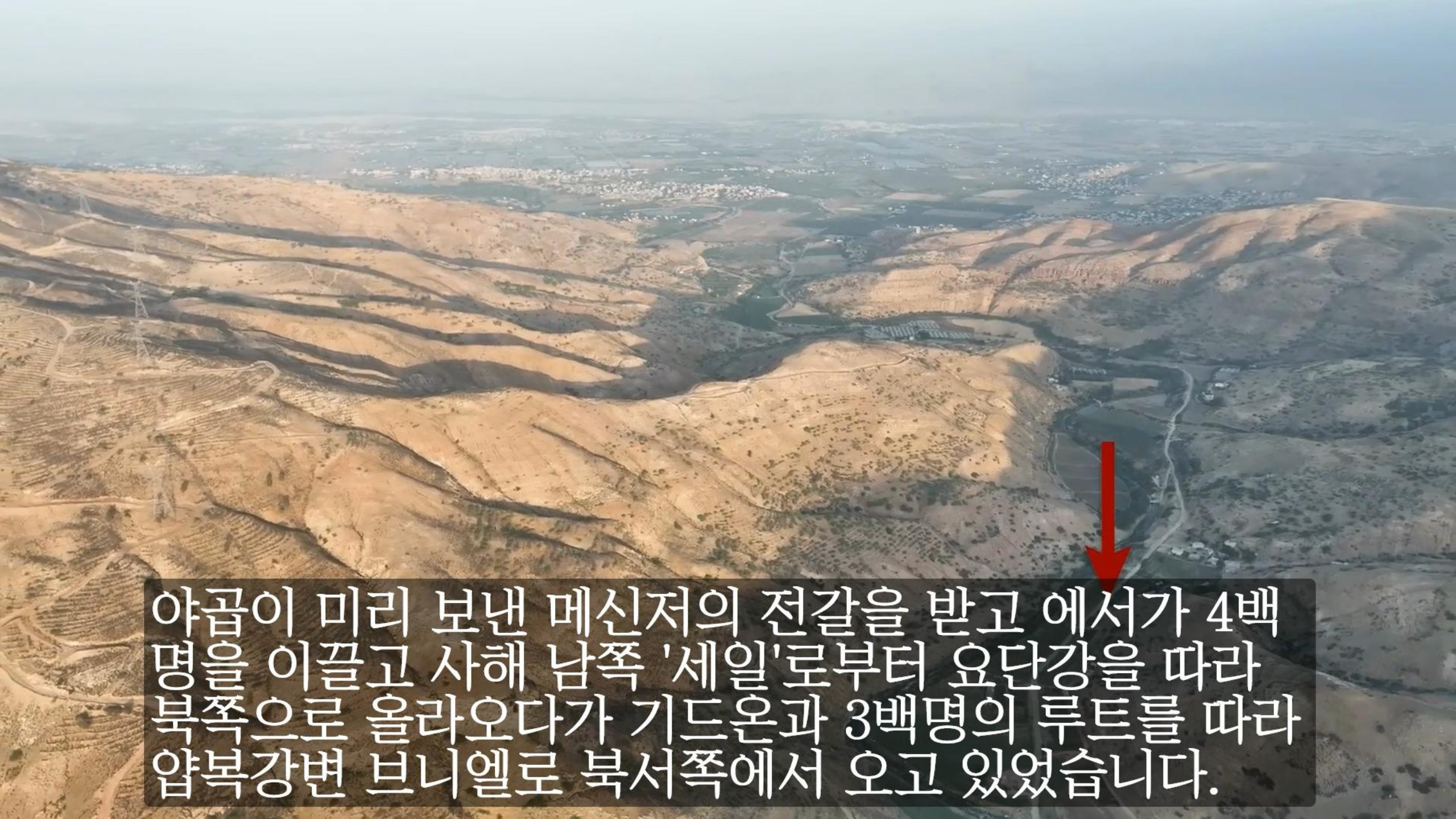
SUKKOTH



사사기 8장에 기드온과 3백 용사가 요단강 동편 속  
곳과 압복강변 브니엘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한 기  
사가 있는데, 야곱이 이동한 루트와 같지만,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메릴 목사가 1877년에 '다하브 언덕'을 '브니엘'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 당시보다 더욱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valley with a winding river. The terrain is hilly and appears to be a mix of agricultural fields and natural vegetation. A red arrow points to a specific location on the right side of the river. The sky is clear and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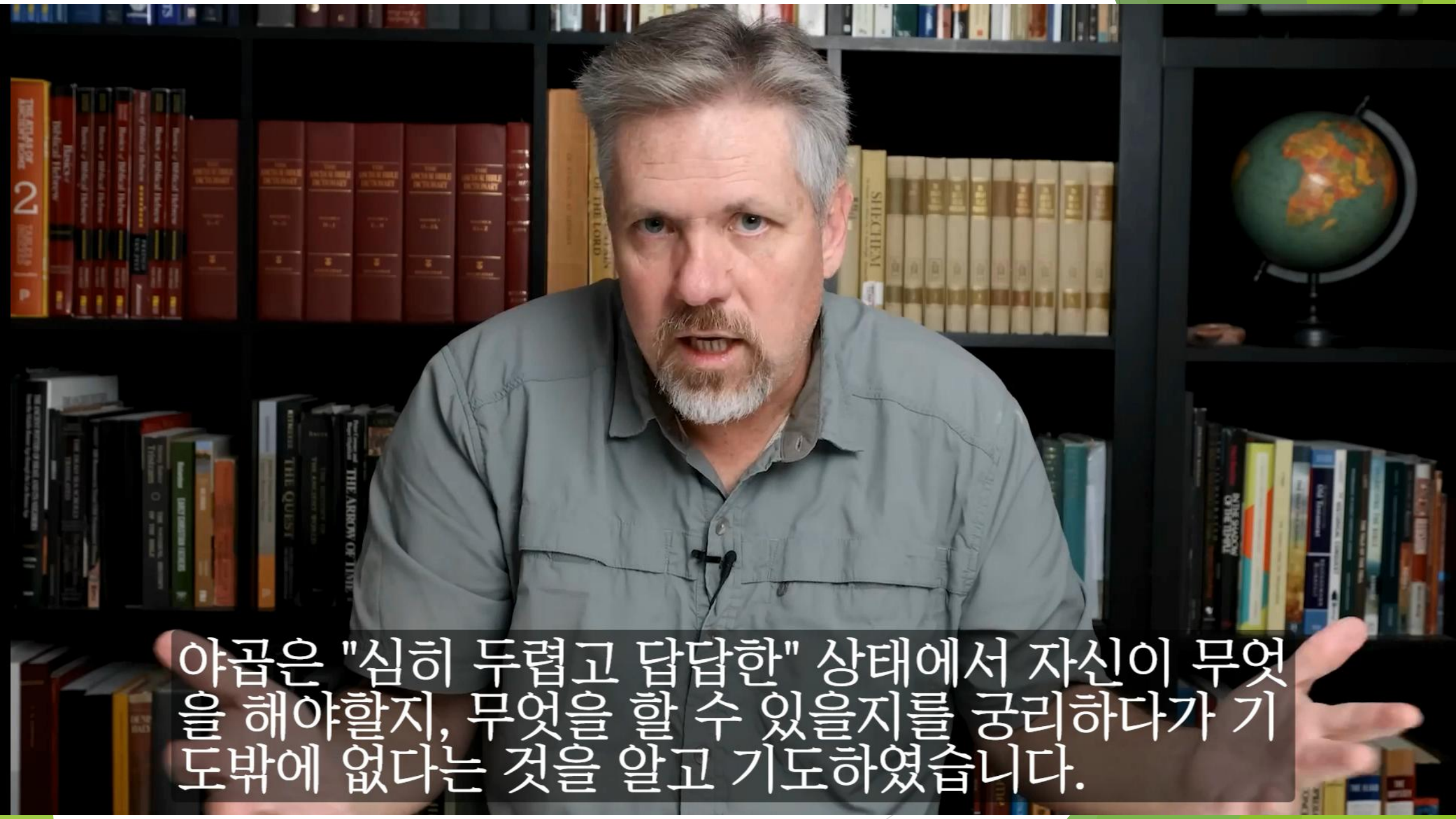
야곱이 미리 보낸 메신저의 전갈을 받고 에서가 4백  
명을 이끌고 사해 남쪽 '세일'로부터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기드온과 3백명의 루트를 따라  
압복강변 브니엘로 북서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콥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가족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거리를 두어 에서가 오고 있는 반대 방향인 브니엘 남쪽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은 강바닥에서 90미터 높이의 '다하브 언덕'이라 불리는 '브니엘' 정상에 올라 에서의 이동을 살피며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궁리하였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다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camps. <sup>11</sup> Save me, I pray, from the hand of my brother Esau, for I am afraid he will come and attack me, and also the mothers with their children. <sup>12</sup> But you have said, 'I will surely make you

창세기 32장 9-11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save me)."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꽤 단순한 기도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possessions. <sup>24</sup> So Jacob was left alone, and a man wrestled with him till daybreak. <sup>25</sup> When the man saw that he could not overpower him,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so that his hip was wrenched as he wrestled with the man. <sup>26</sup> Then the ma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합니다.

A middle-aged man with grey hair and a goate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He is wearing a light blue button-down shirt. The background is a dark bookshelf filled with books. On the left, there are several red leather-bound books with gold lettering.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tan leather-bound books with gold lettering.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man's face.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이 사람을 이  
깁니다. 야곱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man. <sup>26</sup> Then the ma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But Jacob replie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sup>27</sup> The ma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축복을 간구한다는 것은 그가 더 위대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sup>28</sup>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sup>27</sup> The ma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Jacob,” he answered.

<sup>28</sup>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s and have overcome.”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었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tell me your

<sup>29</sup> Jacob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Then he blessed him there.

<sup>30</sup> So Jacob called the place Peniel, saying, "It is because I saw God face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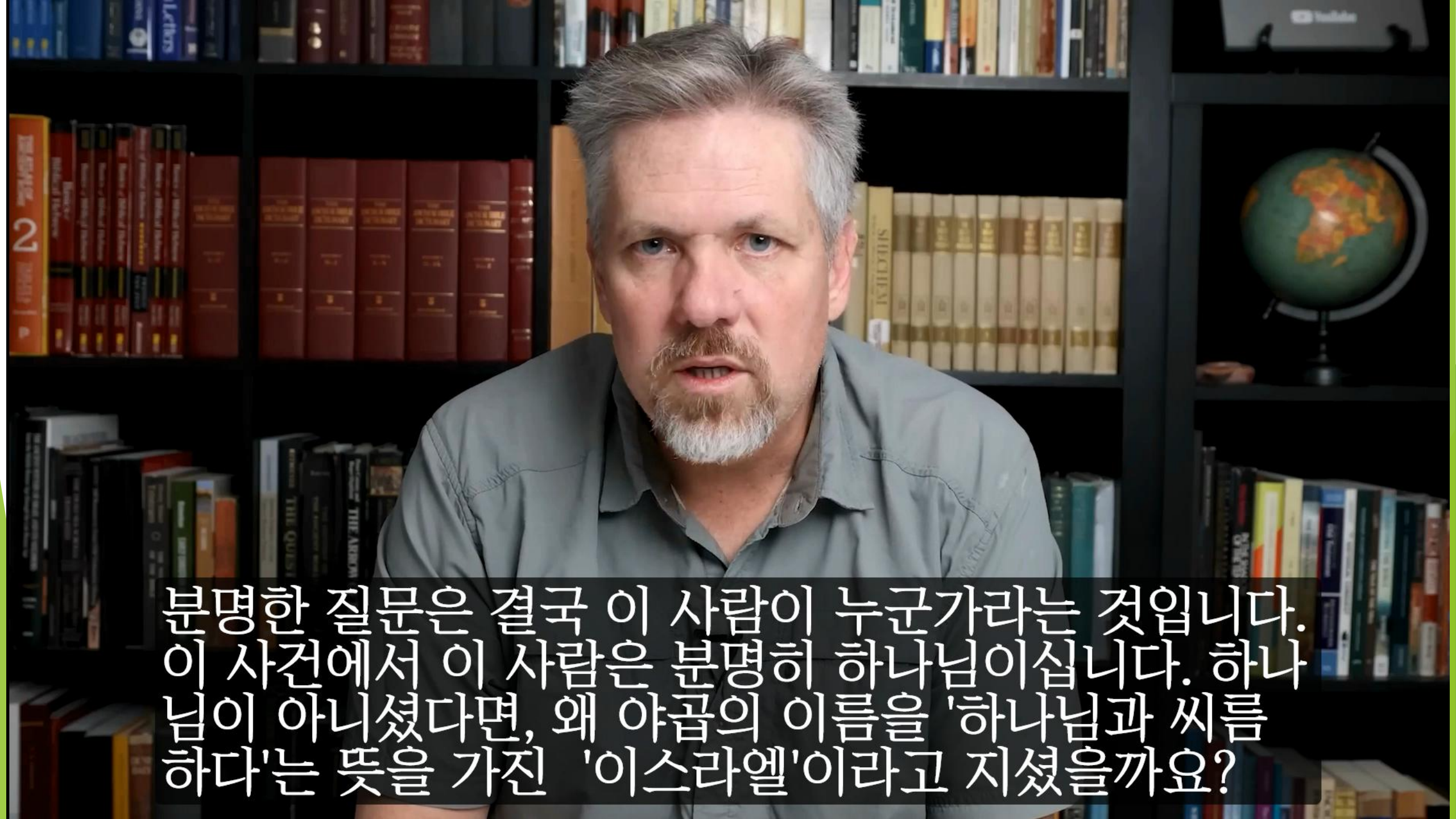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그러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  
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  
3에게 축복"하였습니다.

name?” Then he blessed him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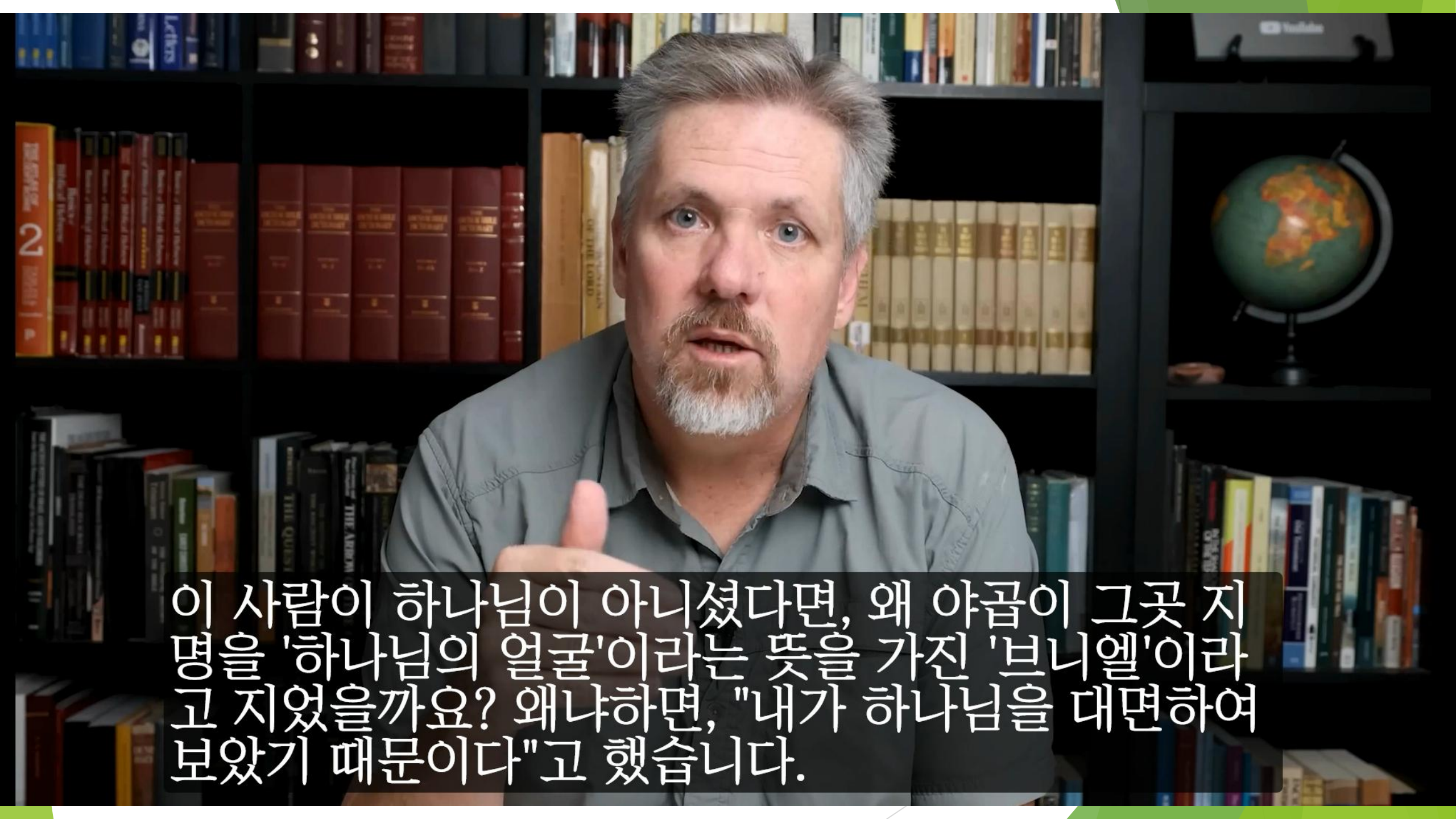
<sup>30</sup> So Jacob called the place Peniel, saying, “It is because I saw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sup>31</sup>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Peniel, and he was limping because of

his **아굽은 그곳을 '브니엘' (혹은 브누엘, 부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질문은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지셨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왜 야곱이 그곳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as a man he struggled with God.

4 He struggled with the angel and  
overcame him;

he wept and begged for his favor.

He found him at Bethel

호세아 12장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그분을 이겼다"(3-4절)고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브니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을 "주님" 곧 '야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야곱이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청한 질문의 답으로 "주님" 곧 "야훼"라고 말한 게 됩니다.

**22.** The *Jabbok* (modern Zerqa) flows westward through Gilead, in a deep cleft of the mountains, to the Jordan.

**23, 24a.** Jacob's motive in sending his family ahead was not to shield him-

self as **33** makes plain. Whatever or the savior) as '주님' (야훼) or '하나님' and 호환되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need to be left alone*

**24b, 25.** When God appears as *a man* in the Old Testament he is usually called the Angel of the Lord, a title interchangeable with 'God' or 'the Lord' (28, 30; cf. Hos. 12:3, 4). See Introduction,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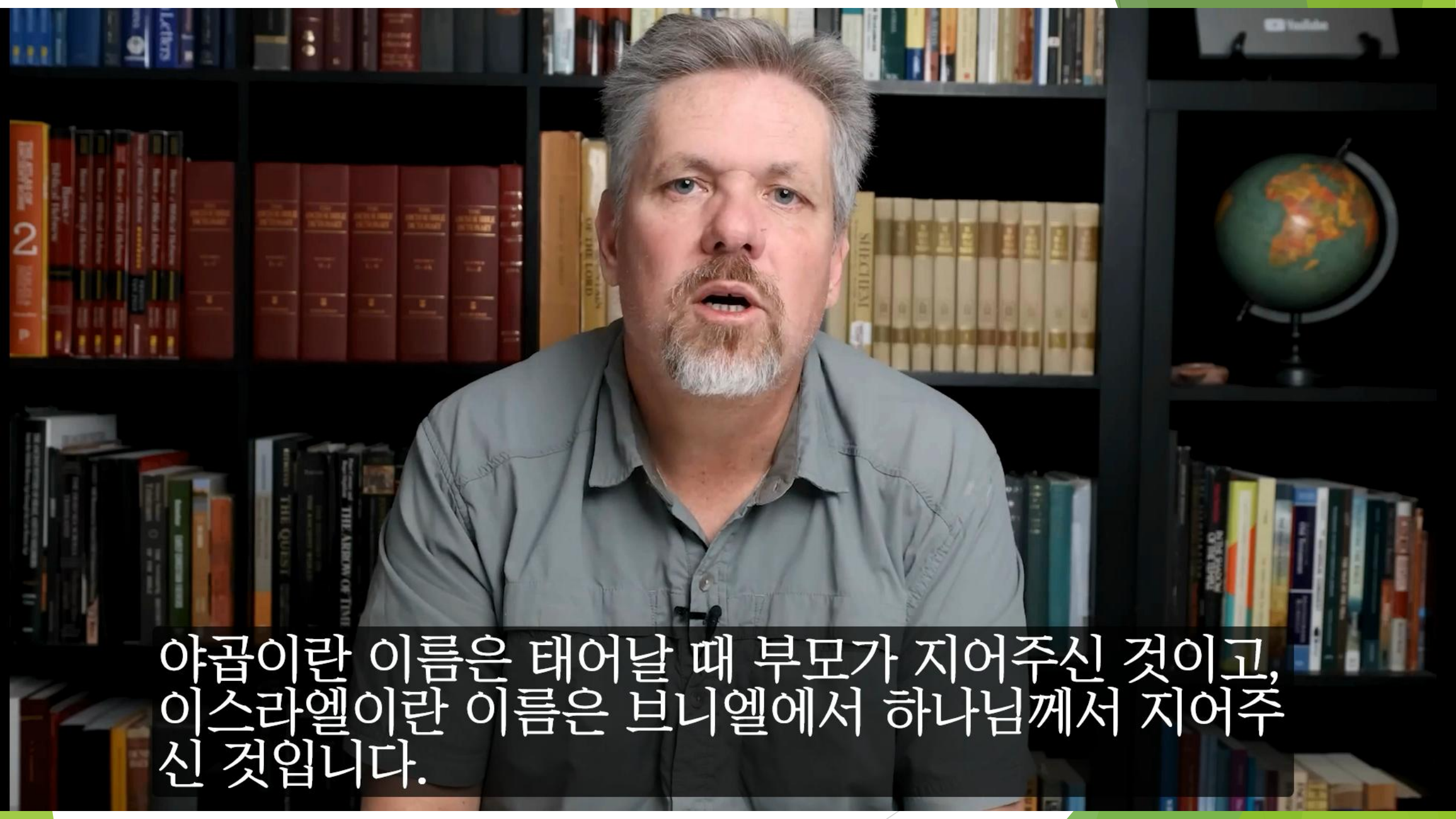
영국의 구약학자인 데릭 키드너(Derek Kidner)는 창세기 주석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천사"(야훼의 사자)로서 '주님'(야훼) 혹은 '하나님'과 호환되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introducing verses

lithic. A study of 'the Angel of the Lord' passages (listed in the footnote) leaves no room for doubt that the term denotes God himself as seen in human form; what should be added is that 'Angel', by its meaning 'messenger', implies that God, made visible, is at the same time God *sent*. In the Old Test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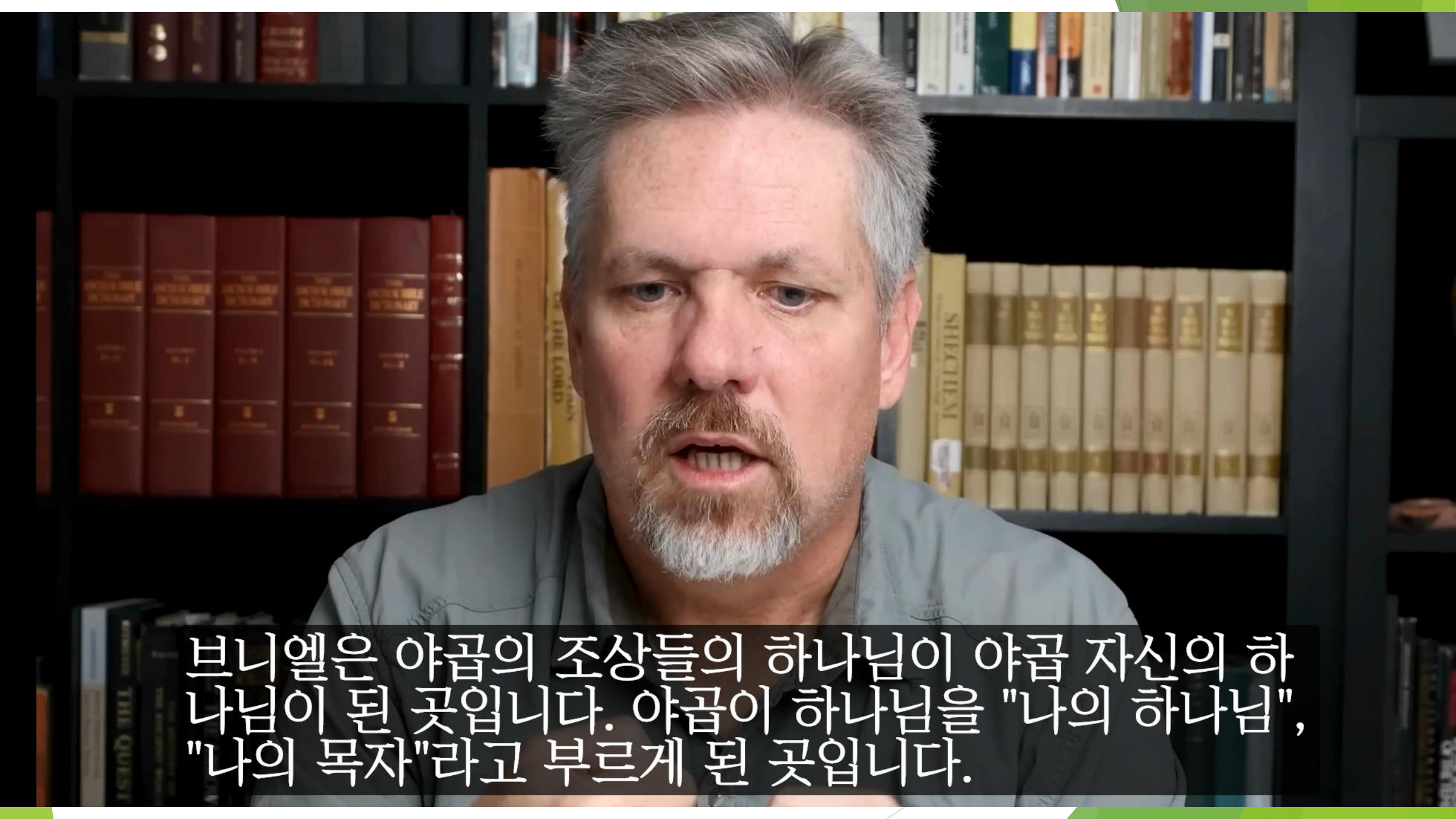
nothing is made of this paradox, but it 따라서 야곱과 씨름을 한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천사'에 관한 성구들의 연구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하신 것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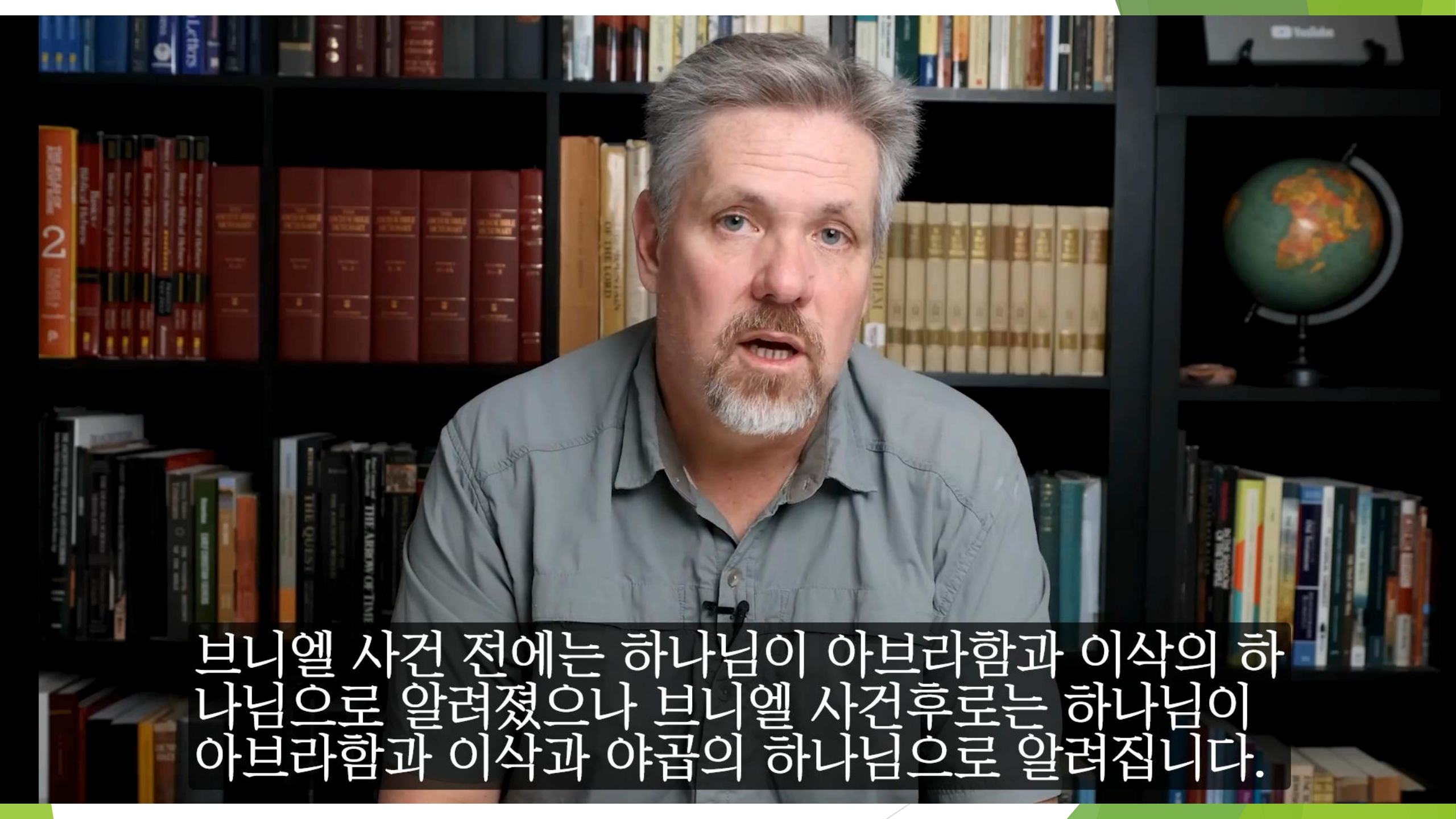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때였습니다.

A middle-aged man with grey hair and a goatee is speaking directly to the camera. He is wearing a light grey button-down shirt. The background is a dark bookshelf filled with books. To the right, a globe is visible on a shelf. The text is overlaid at the bottom of the frame.

야곱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  
신 것입니다.

A middle-aged man with grey hair and a goatee is speaking. He is wearing a light blue button-down shirt. Behind him is a dark bookshelf filled with books. On the left, there are several red leather-bound books with gold lettering.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tan-colored books with gold lettering. The man's expression is serious as he speaks.

브니엘은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된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부르게 된 곳입니다.



브니엘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려졌으나 브니엘 사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집니다.



우리가 브니엘 정상에 오른 이유는 씨름시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아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Tell adh-Lihab  
Terrace I, Square 90/91  
plan  
M. 1  
W. T.

S. Terrace I, Square 90/91.  
Map of ancient structures,  
style court I. (Drawing  
W. T. ...)

성경은 여로보암이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고고학 발굴 당시 이곳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성소터  
를 발견했고, 그 터 위에 건축된 유대교 회당의 유물  
인 대리석 원주와 하트 모양의 돌들도 찾아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고고학 발굴 당시 이곳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성소터  
를 발견했고, 그 터 위에 건축된 유대교 회당의 유물  
인 대리석 원주와 하트 모양의 돌들도 찾아냈습니다.

An aerial photograph showing the ruins of an ancient stone building on a hillside. The structure is composed of several rectangular rooms with thick walls, arranged in a somewhat symmetrical pattern. The surrounding terrain is rocky and sparsely vegetated with dry grass and small shrubs. The lighting suggests a bright, sunny day, casting shadows that emphasize the three-dimensional nature of the ruins.

발굴보고서는 이 건물이 무슨 용도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나 성소터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종교 시설인 회당이었음을 후대의 회당 건축 양식인 하트 형의 원주들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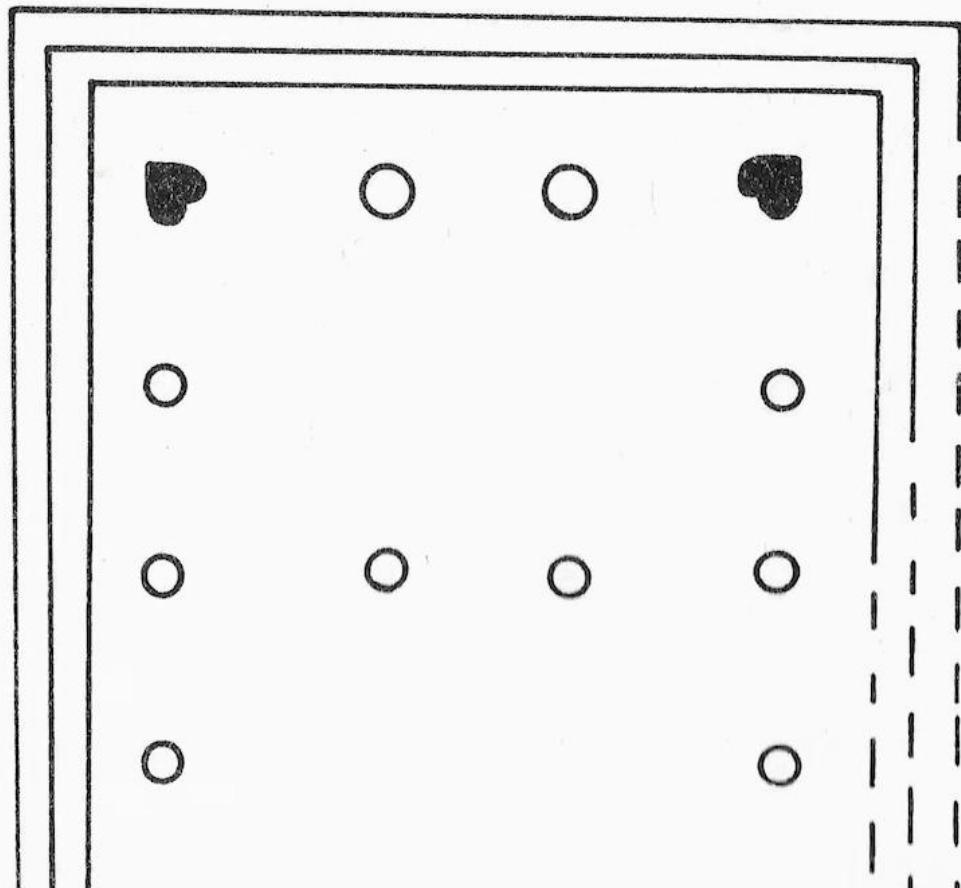


발굴보고서는 이 건물이 무슨 용도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나 성소터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종교 시설인 회당이었음을 후대의 회당 건축 양식인 하트 형의 원주들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SYNAGOGUES OF ERETZ-ISRAEL



이 책 <밝혀진 고대 회당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수많은 회당들에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고라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에 이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습니



STREET

이 책 <밝혀진 고대 회당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수많은 회당들에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고라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에 이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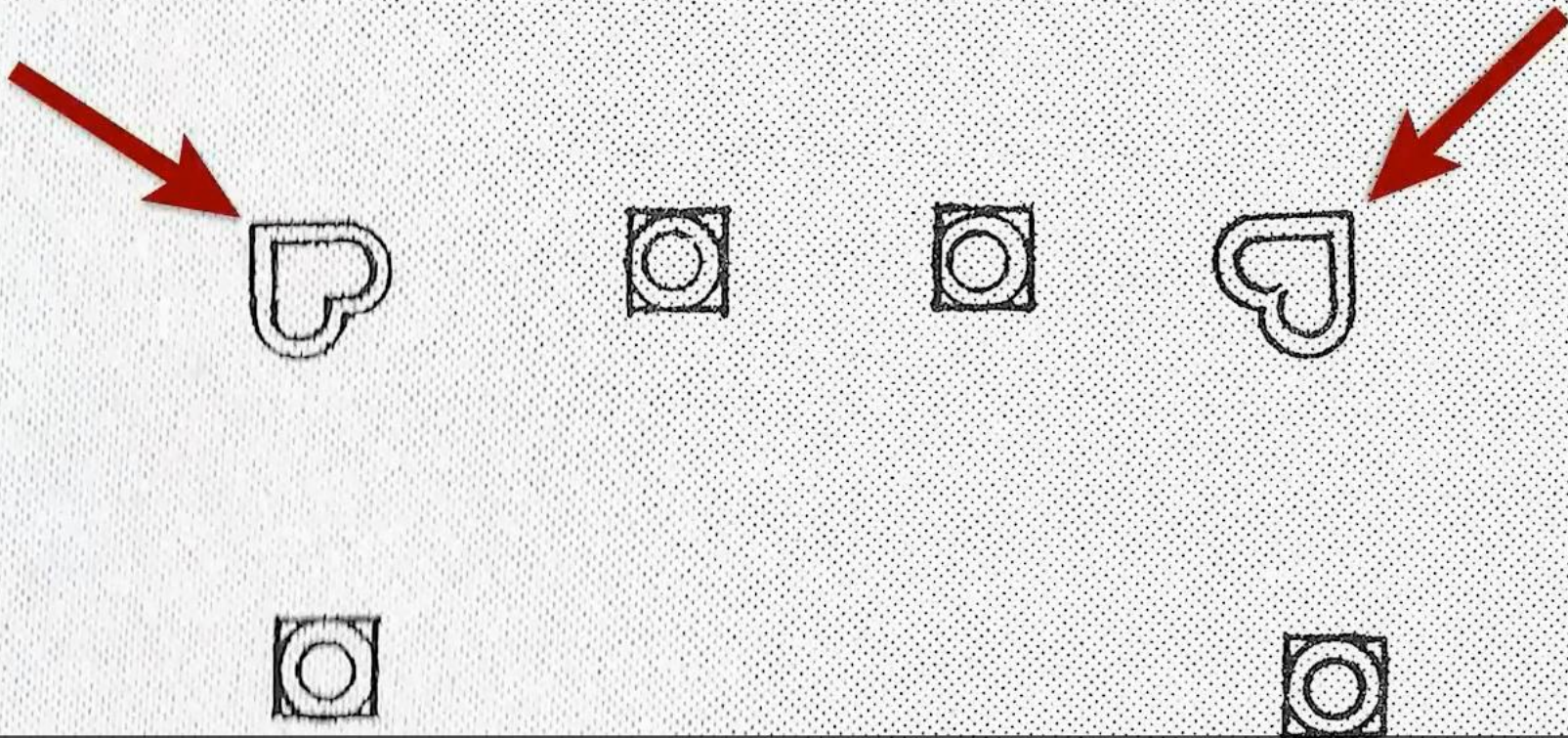
N.7

TR.

N.3

TRINCEA N.2

이 책 <밝혀진 고대 회당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수많은 회당들에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고라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에 이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 <밝혀진 고대 회당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수많은 회당들에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고라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의 회당들에 이 하트 모양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MadainProject  
<https://madainproject.com>

MadainProject  
<https://madainproject.com>

#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회당 복원도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 회당  
유적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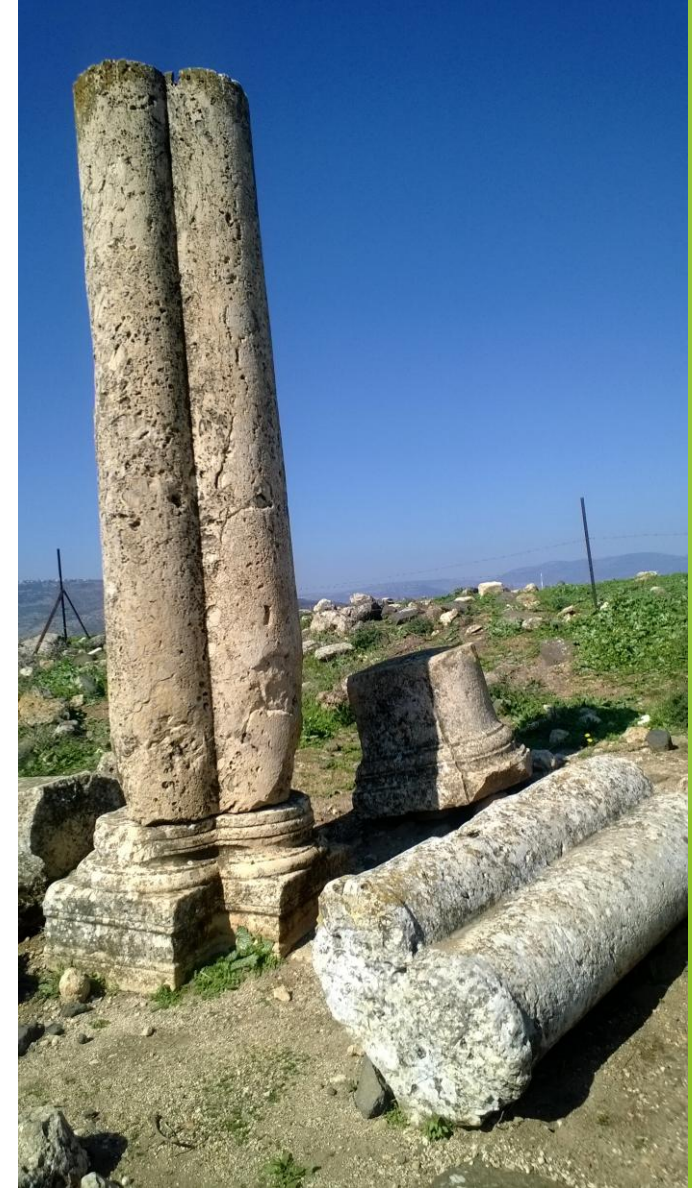
길릴라 호수 북서쪽 레바논 근처 인파르(마을) 바라암  
(Bar Bar'am) 회당 유적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 기둥

**갈릴리 북서쪽  
레바논 국경 근처  
크파르(마을) 바라암  
(Kfar Bar'am)  
회당 유적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 기둥**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회당 유적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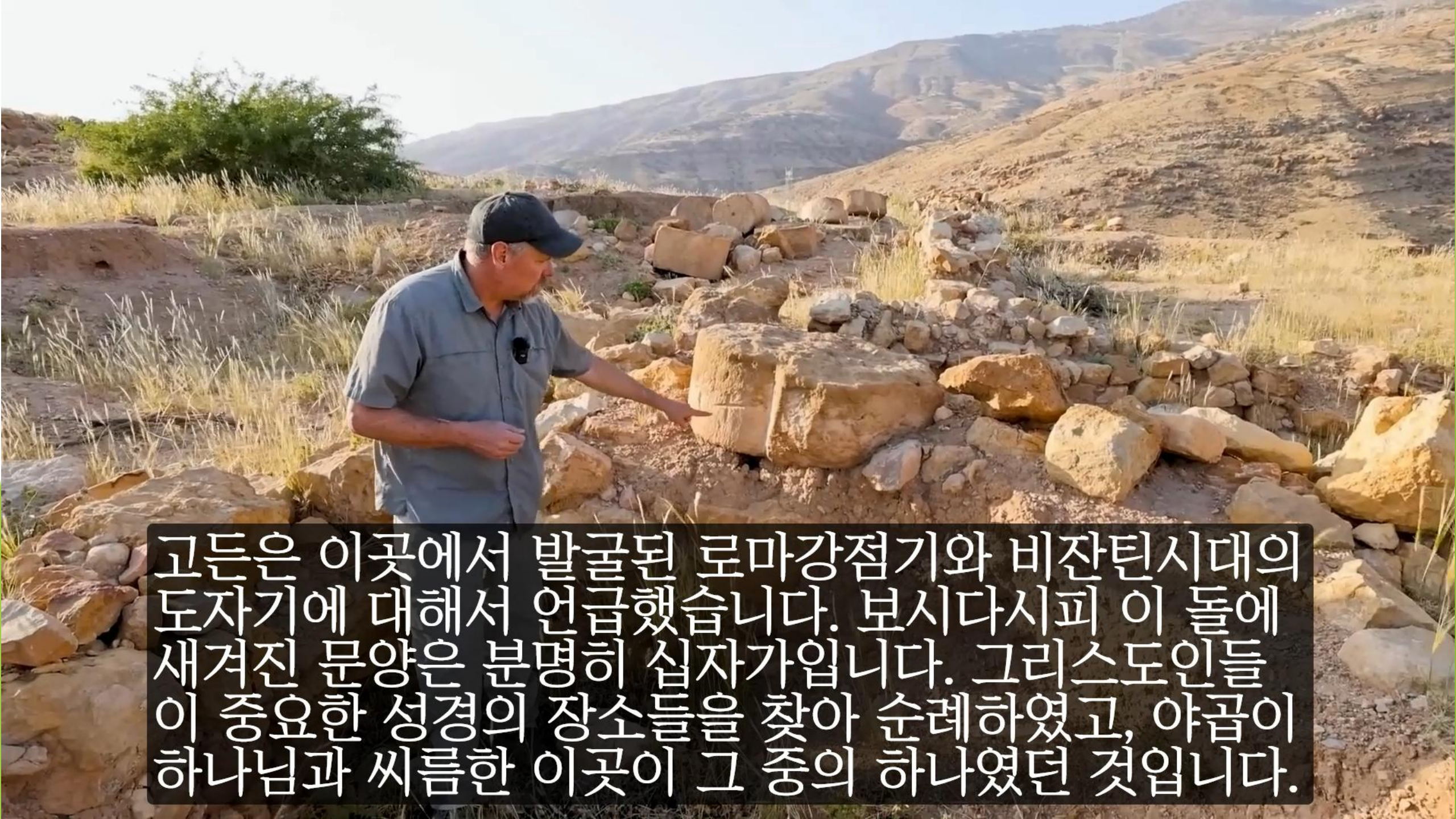


**갈릴리 호수 서편 후르바트 아무딴(Hurvat/Sde Amudim) 회당 유적과 하트 모양의 모퉁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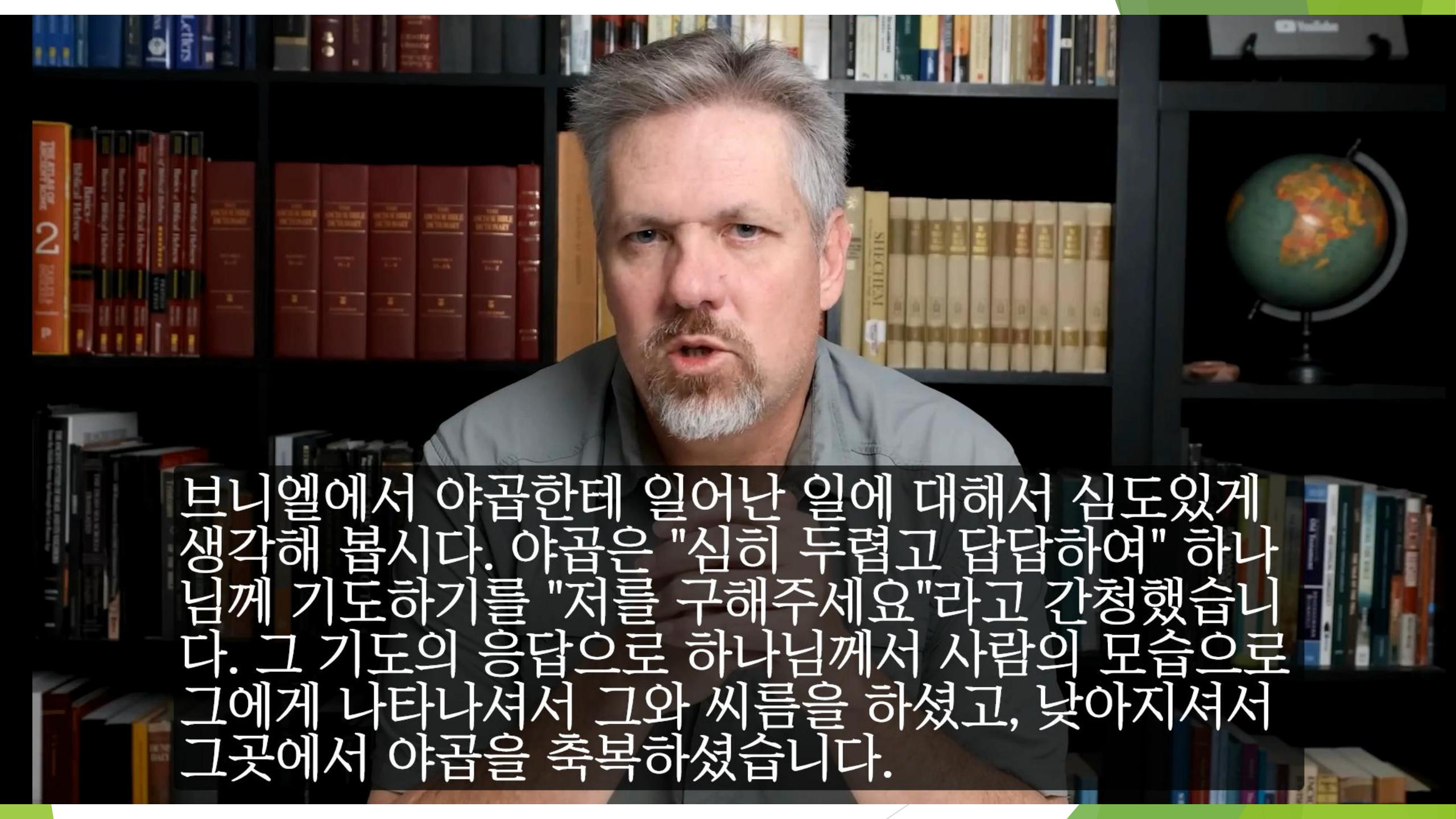
a. *The Survey of Robert L. Gordon (1980 - 82)*

Although Gordon's survey also included the environs of the site for about 5 km to the west and south, his interest was focused on the *tulul* as "the largest historic site in the survey area" (Gordon 1983: 275). His report is very valuable because it describes the state of the western hill before the above-mentioned bulldozing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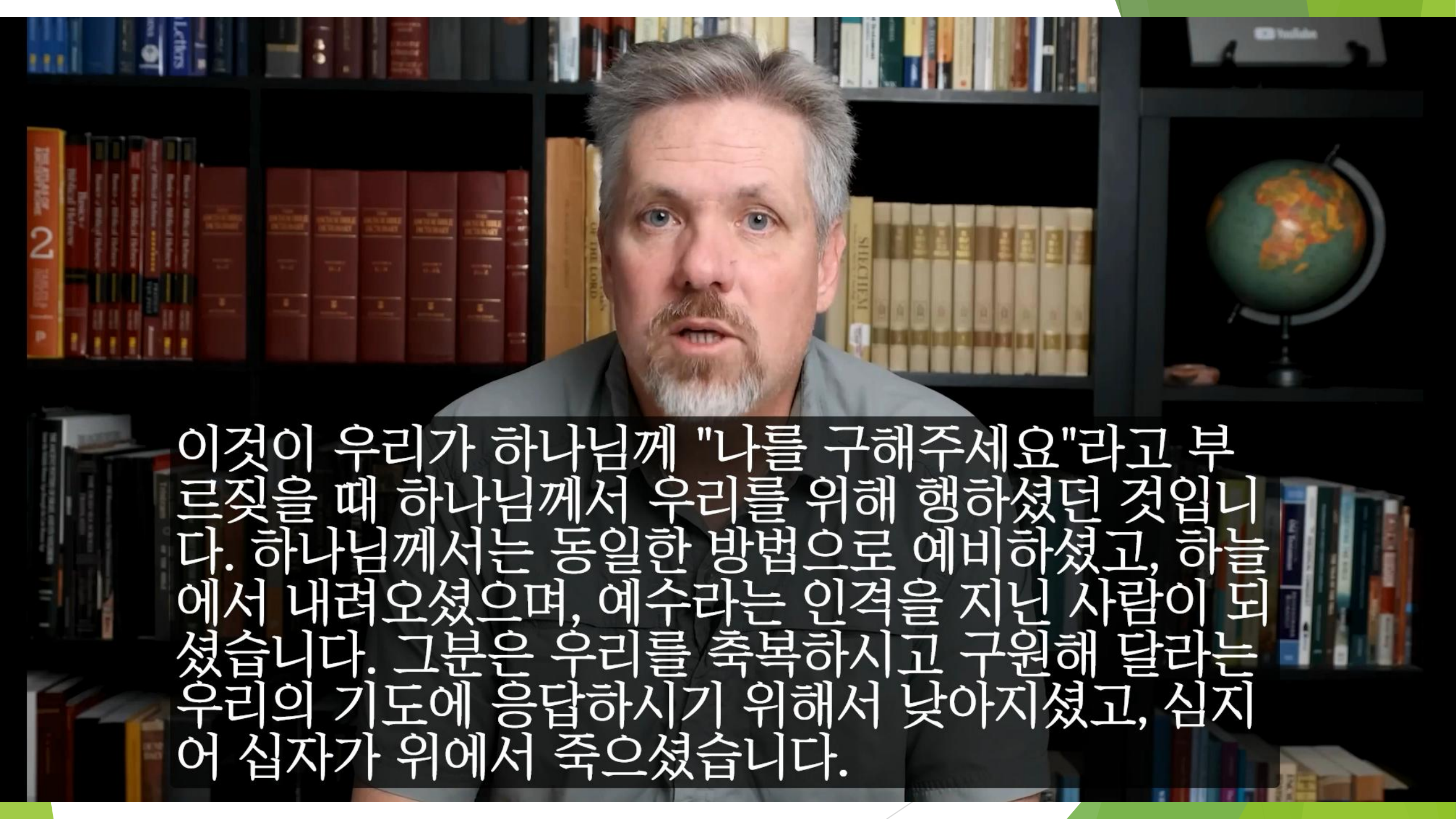
25 회당 건축을 위한 장소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브니엘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발굴 보고서에  
so서 고고학자들은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이 80년대에 실행한 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described by Gordon are not visible any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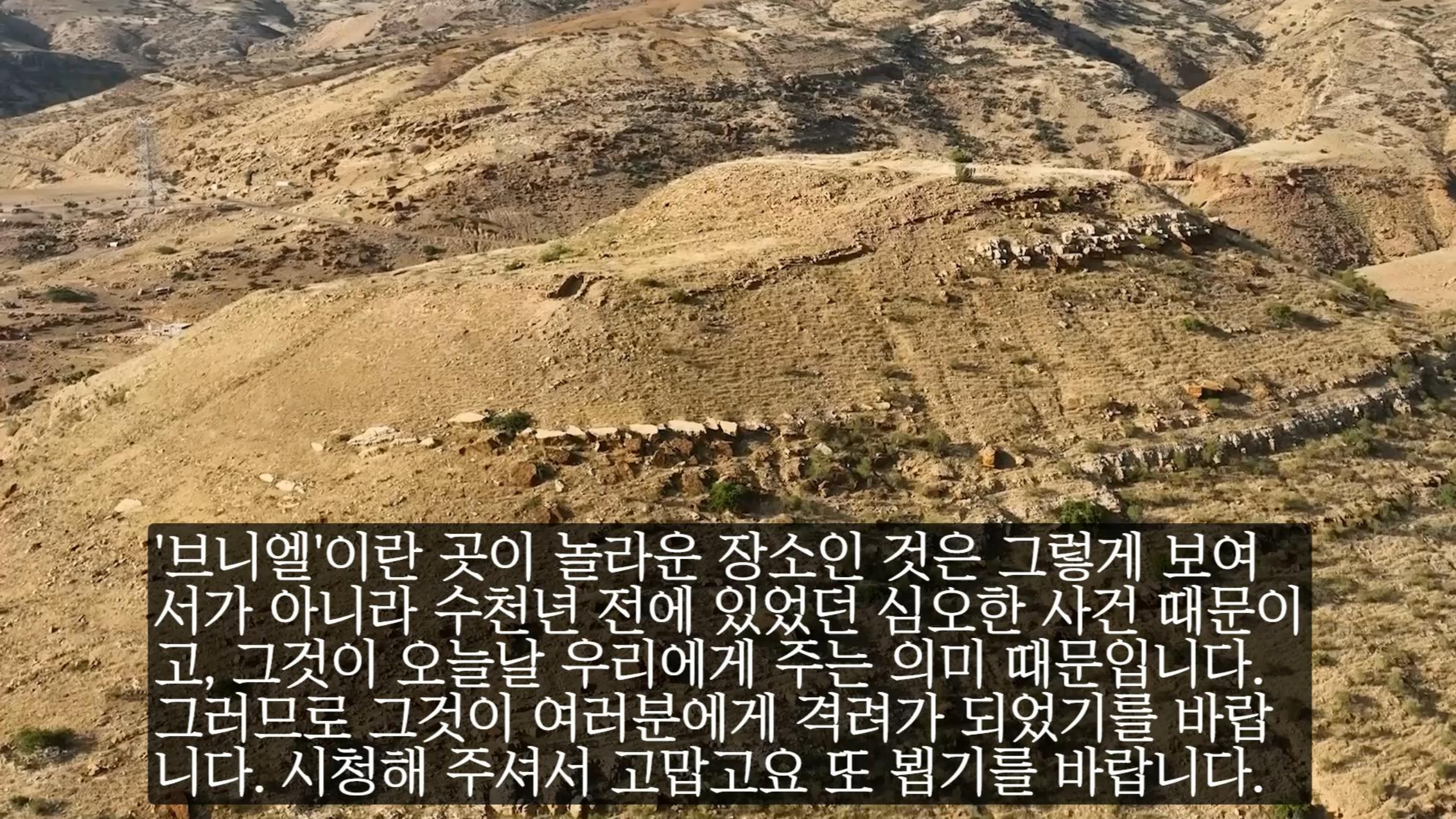
고든은 이곳에서 발굴된 로마강점기와 비잔틴시대의 도자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성경의 장소들을 찾아 순례하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곳이 그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A man with grey hair and a goatee is speaking in a library. He is wearing a light blue shirt.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bookshelves containing various books. A globe is visible on a shelf to the right. The text is overlaid on the bottom half of the image.

브니엘에서 야곱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셨고, 낮아지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A middle-aged man with grey hair and a goatee is speaking directly to the camera. He is wearing a grey button-down shirt. The background is a dark bookshelf filled with books. To the right, a globe is visible on a shelf. The text is overlaid on the bottom half of the image.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예수라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dry, hilly landscape. The terrain is brown and rocky, with sparse, dry vegetation. A prominent stone wall runs across the middle ground, following the contour of a hill. The background shows more rolling hills under a clear sky. The overall scene suggests an arid or semi-arid environment.

'브니엘'이란 곳이 놀라운 장소인 것은 그렇게 보여  
서가 아니라 수천년 전에 있었던 심오한 사건 때문이  
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  
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뵙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겔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겔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 פְּנֵי אֱלֹהִים פְּנֵי אֱלֹהִים = פְּנֵי אֱלֹהִים פְּנֵי אֱלֹהִים : 하나님의 얼굴
- סֹדֵי סֹדֵי : 숙곳, 초막들, 움막들, 부스들
- שֵׁכֶם שֵׁכֶם : 어깨, 목덜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쪽 어깨 빗땀
- קִשְׁיָה קִשְׁיָה :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은 돈(은?)의 무게 단위
- אֱלֹהֵי יִשְׂרָאֵל אֱלֹהֵי יִשְׂרָאֵל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 אל אלהי ישראל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리심 산

에발 산

그리심산(남, 881M) ← 1.6KM → 에발산(북, 937M)  
) 세겜



**이편 언덕(실패, 죄, 허물)과 저편 언덕(피안, 彼岸)  
사이를**

**강, 호수, 바다(공포, 죽음, 음부)가 막고 있어서  
저편 언덕에 이르려면**

**“회개, 사생결단, 배(방주)”가**

**필요하다. 나에게 배(방주)가 있는가?**

**피안(彼岸, 내세):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구원, 생명, 부활, 평화, 자유, 주권, 영광, 승리, 월계관)**



CH. GÖRLIKER. © 1967.

12/100

Marc Chagall, 1967

**야곱,  
야훼의 도움으로  
압복 강을 건너다!  
야곱의 배는 끈질긴 기도**

After meeting Esau, Jacob journeys to Succoth and then to Shechem.

The terrain along the Jabbok River and the narrative of the story make it likely that Jacob had already crossed the Jabbok near the King's Highway by the time he reached Mahanaim, which was probably on the south side of the Jabb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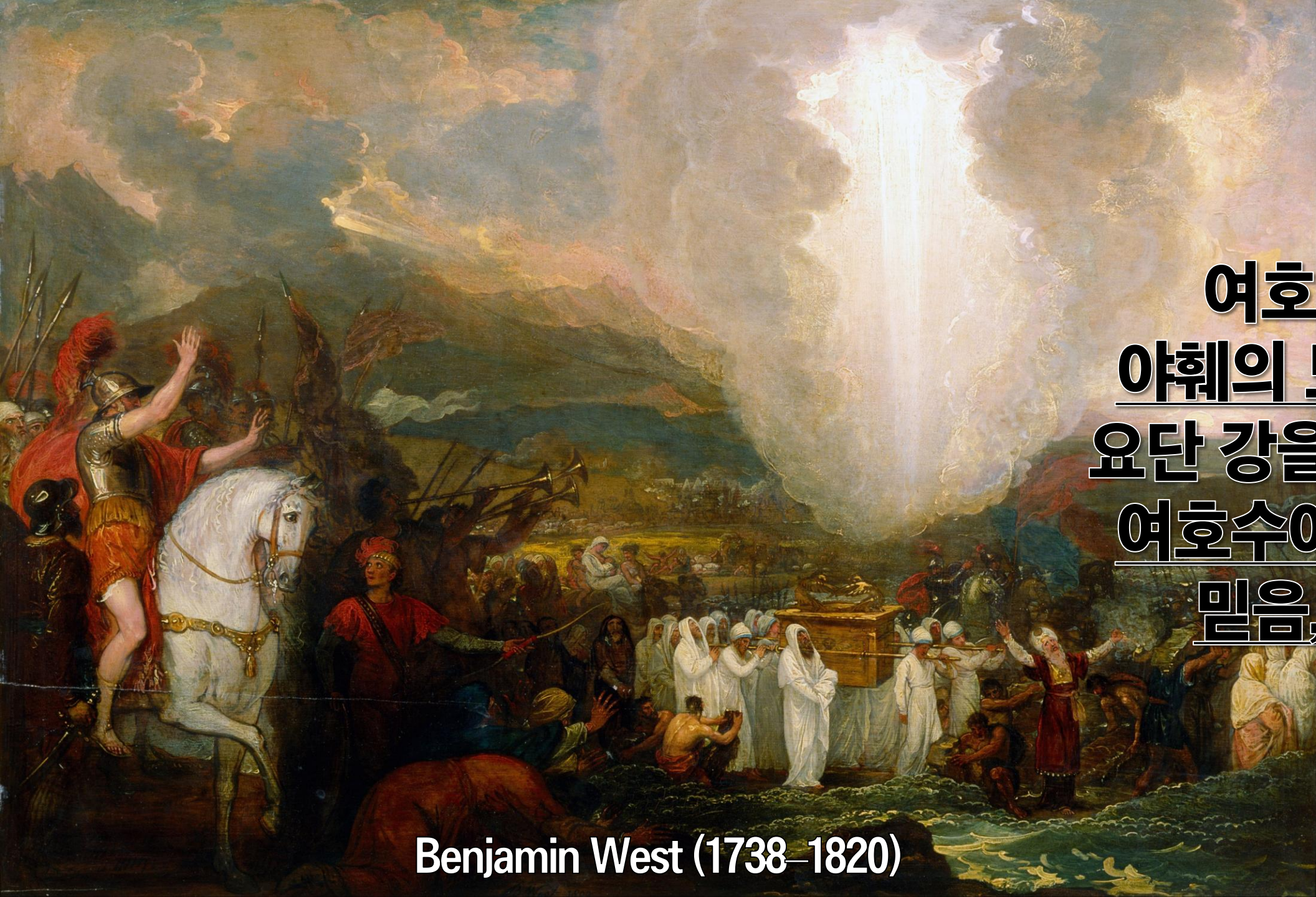
As he crosses the Jabbok River, Jacob wrestles with a man (God), who blesses him. Jacob names the place Peniel. Soon after this, Jacob looks up and sees Esau coming.



To SEIR

**모세,  
야훼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다!  
모세의 배는 믿음**





**여호수아,  
야훼의 도움으로  
요단 강을 건너다!  
여호수아의 배는  
믿음, 용기**

**Benjamin West (1738–1820)**



**헤라클레스, 아테나의 도움으로 아케론 강을 건너다!**  
**헤라클레스의 배는 믿음, 용기**



시저, 마르스의 도움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다! 시저의 배는 불굴의 용기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도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제자들의 배는 기도, 교회**




Rembrandt van Rijn (1606–1669)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도움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다!  
예수의 배는  
기도, 성령충만**



**이젠하임 제단화(마티아스 그뤼네발트, 1470경-1528)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요 3:30)**

A person is seen from behind, sitting in a boat on a river. The water is dark, and the sky is a mix of orange and purple, suggesting sunset or sunrise. The person is wearing a dark jacket and a hat. The overall mood is peaceful and contemplative.

**알렉산더 캠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의 강을 건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곱,**  
**야훼의 도움(배, 방주)으로**  
**두려움의 강, 미움의 강,**  
**분열의 강을 건너다!**  
**야곱,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발을 딛다.**

**오디세우스,**  
**아테나의 도움(배, 방주)으로**  
**전쟁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다!**  
**오디세우스, 마침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발을 딛다.**



Sir Peter Paul Rubens, 1625-28

##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해서 목마  
계책으로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  
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으나 파선에 파선을  
거듭하며 10년간 **거친 바다**  
**(포세이돈)**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숫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아테나가 멘토**로서 늘  
그의 곁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  
stamnos, ca. 480 BC, 대영박물관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이사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득권층인 원로원은 주전 50년에 카이사르의 로마소환과 군대해산을 결의합니다.
- 그러나 카이사르는 주전 49년 1월 10일 원로원의 결의에 불복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을 넘습니다. 그 국경에 놓인 강이 바로 루비콘인데, 이후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사를 건다는 뜻이 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것이 그렇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비통의 강인 아케론 강, 시름의 강인 코퀴토스 강, 불의 강인 플레게톤 강, 망각의 강인 레테 강, 그리고 증오의 강인 스틱스 강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뜻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압복 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생사를 건 씨름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이는 자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란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와 20년만의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하나님으로부터 문제해결의 답을 얻게 되니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에서와의 상봉이 화해와 기쁨으로 매듭지어지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분열이 변하여 일치이 되었습니다.
- 첫째,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사인 에서의 칼날이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에서의 장자권과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습니다.
-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야곱을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기 전까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32:7) 심정이었습니다.
- 노심초사(勞心魚思)하던 야곱이 생각해 낸 대응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써 에서에게 풍성한 예물을 보내어 그의 들끓는 분노를 식히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줄 수많은 짐승들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각각의 종들에게 맡겨서 에서를 향해서 가게 하였고, 가족들도 모두 강을 건너게 한 후에 두 패로 나눠서 서로 거리를 두고 이동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강가 높은 언덕(브니엘)에 올라 밤이 맞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브니엘의 아침햇살을 맞으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 비록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마음만은 날아 같듯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 야곱을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고, 언약을 확약해 주시고, 새 이름까지 주신 하나님은 야곱의 죄나 기지로써는 달랠 수 없는 에서의 분노를 이미 식혀 놓고 계셨습니다.
- 만일에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의 기지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의 선물이 아무리 풍성하였다 해도 20년을 하루같이 와신상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에서의 마음을 삭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풀어주니까 에서의 얼굴에 독기가 사라지고 그 마음이 천사처럼, 그 얼굴이 하나님처럼 밝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극적으로 상봉한 후에 말하기를,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10절)라고 하였습니다.
-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 에서에게 임하여 그의 얼굴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복수의 칼날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하나님께서 그 큰 어려움을 힘들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환난 중이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롬 5:3).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곧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둘째,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강탈당했다고 생각한 에서는 야곱에 대해 미움의 감정이 분수처럼 폭발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이미 축복해 버려서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 때, 에서는 방성대곡하면서(27:34) 야곱을 죽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27:41). 그 이후로 에서의 삶은 복수를 절치부심(切觸鷹心)하는 삶이었습니다. 더욱이 근동지방 사람들의 복수의 일념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그를 에서의 칼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에서의 마음속에 쌓여 온 미움의 감정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셨고, 그 자리에 대신 사랑이 들어차게 하셨습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일 2:9)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성도의 영혼을 좀 먹는 것입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잠 15:17)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하셨습니다(요일 3:15).
- 아무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라고 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한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셋째,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 주시니까 분열이 변하여 일치가 되었습니다.
- 야곱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에서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자 몸과 마음이 서로 분열되어 있던 두 형제는 일치하고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 낸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 결사적 기도가 있기 전 선물을 보낸 것이 인간적인 술책이라면, 하나님에 의해 바뀌어진 환경 아래 야곱이 에서를 '주'라 칭하며 예물을 주는 행위는 형에 대한 야곱의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반면에 그 예물을 받는 에서도 물욕(物愁)이 아닌 진정한 형제 재회의 기쁨의 증거로 생각하며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분열이 일치로 바뀌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뇌물이 변하여 선물이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 오늘날 물질문명의 가속화와 인간성의 황폐화로 인해 인간 상호간에 불신이 초래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賞益賞 富益富) 현상이 첨예화되고, 계층간에 반목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열이 정치적, 종교적 분열 못지않게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 20년만의 형제 상봉(창 33:1-20)

-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를 회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교회가 일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라고 고백했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처럼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 주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 주시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 주시면, 분열이 변하여 일치가 됩니다.
-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겔**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6] 세겔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겔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겔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겔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젬이 좋게 여기므로,

[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20]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겔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겔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겔을 죽이고 디나를 세겔의 집에서 데려오고,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에서 수치를 당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다**

**할례를 제안 받고  
받아 들였다**



**세겜은 한  
민족이 되어  
세력을  
넓히는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재산까지  
흡수할  
의도였다**



우연히 시작된 비극

#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가 목적이었다

한국 최초 정통 하드보일드 무비

복수는 나의 권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감독 작품 송강호 | 신하균 | 배두나

A FILM BY  
PARK CHAN-WOOK

SYMPATHY FOR MR. VENGEANCE

**언약의 징표 할례를  
이용하여 복수를 하였다**



A close-up photograph of a man in a dark blue suit and white shirt, pointing his right index finger directly at the camera. His mouth is open as if speaking or shouting.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다**

# 하나님은 벨엘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다**



## 신앙과 혈통을 지키라

- 디나(Dinah, דִּינָה, 공의, 판단) 사건은 있을 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을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 본다면,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노예신세가 된 유대민족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를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 성경은 ‘이스라엘’이 살아 남고 복을 받기 위한 규범을 제시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매년 한 차례씩 이 사건을 읽고 반추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28:6).

## 신앙과 혈통을 지키라

-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 역사기록에는 **‘사실’과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관한 교훈(의미)**이 담겨 있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4천년 역사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 곧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23:4)**로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그네’**란 말이 번역본에 따라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번**, **‘거류’**라는 말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는 **떠돌이 소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 디나 사건을 기록에 담은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 하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 떠돌이 소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불박이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젼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1-2절), … 하몰과 그의 아들 세젼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20-23절).

- 이들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신앙이 이방신들에게 정조를 빼앗긴 즉 종교를 빼앗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전조란 것입니다.**
- **아합과 이세벨이 북 이스라엘의 종교를 야훼신에서 바알신으로 바꾼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통혼은 혼합종교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종교만 빼앗기지 않고 땅과 주권까지 빼앗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 아합과 솔로몬의 통혼으로 나라가 붕괴되고,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약하고 소수인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강대한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 그 일들을 예견하듯이 앞서 벌어진 전조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비극들의 전조 사건입니다.
-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25-27절).

-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저주까지 내렸습니다.
-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족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
-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49장 5-7절).

출생 순서	이름	어머니	출생 당시 야곱 나이	이름 뜻	축복 순서	축복의 상징	야곱의 축복/예언	출애굽 이후 / 예언의 성취
1	르우벤	레아		보라, 아들이다	1	끓는 물	탁월치 못하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 (장자권 얻지 못함)	BC 9세기 모압에 멸망당함.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파
2	시므온	레아	84~88	들으심	2/3	잔해하는 칼	저주를 받아 분산될 것이다.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 (장자권 얻지 못함)	가나안에서 받은 땅이 박토인지라 유다 지파와 동맹하고 흩어져 지냄
3	레위	레아		더불어 연합함				전국에 흩어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업무를 주관 (민 35:2)
4	유다	레아	88	여호와를 찬송함	4	새끼 사자	장자권을 얻음. 왕이 되어 통치할 것.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영적 장자가 됨.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님 탄생
5	단	빌하 (라헬 여종)	88~91	심판관, 재판장	7	뱀과 독사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뱀 같이 싸움을 잘 할 것이다.	강한 힘과 강직한 성품 소유 (수 19:47)
6	납달리	빌하 (라헬 여종)		씨름	10	농인 암사슴	암사슴같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갈릴리 호수 주변 기름진 땅 소유. 웅변과 음악적 기질이 풍부함 (삿 5장)
7	갓	실하 (레아 여종)		복됨	8	전사	용감하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방인과의 마찰이 필연적이었음 (대상 5:18)
8	아셀	실하 (레아 여종)		기쁨	9	기름진 식물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잘 지어 왕의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갈멜 산 북방 해변의 옥토를 분배 받음 (수 19:24-31)
9	잇사갈	레아		보상	6	건강한 나귀	농사일, 노동, 섬김, 토지를 좋아함.	느긋한 기질과 강한 힘 소유 (대상 12:32)
10	스불론	레아		더불어 거함	5	해변의 배	배를 매는 해변(항구)에 거할 것이다.	지중해 해안 지역을 분배 받음 (수 19:10-16) 왕성한 해상 무역
11	요셉	라헬	91	더하심	11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음. 활 쏘는 팔에 힘이 있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배출하여 두 지파 몫의 축복을 누림
12	베냐민	라헬	106 ~ 108 사이	오른손의 아들	12	이리	호전적. 물어 뜯는 이리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호전적 생활 와중에도 안전을 유지함 (삿 20:12-48)

-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종교개혁을 가져왔습니다.**
-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35:1-5).

- 이 말씀들 속에는 약하고 소수인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불박이 민족들에게 당한만큼 보복하겠다고 나서면 살아남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만다는 교훈이 담겨있습니다.
- 시므온과 레위의 성공적인 보복의 의미는 민족주의적 보복 행위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전날 밤의 진한 잔치가 아침까지 가는 숙취와 같은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셀레우코스 제국을 몰아낸 마카비 전투의 승리(167-164BC)와 두 차례의 유대-로마전쟁(AD 68-73년, 132-135년)의 패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고 저주한 이유입니다.

- 역대기 사관에서 보면,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첫째, **야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야훼신앙을 보존하라).**
- 둘째, **민족혈통을 유지하라.**
- 셋째, **매일 세 번 기도회로 모이고 흠어지지 말라.**
-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나라 없이 혹은 나라를 빼앗긴 세월 3천년을 떠돌이로 산 소수 민족으로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혈통을 지키고 야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흠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실추된 명예와 가난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것들을 회복시켜 줄 제2모세인지, 곧 “위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내릴 자인지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야훼의 뜻에 어긋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헬라인들은 혈통의 공유를 중시하고, 로마인들은 정신의 공유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혈통의 공유를 중시했던 헬라인들은 정신의 공유를 중시했던 로마인들에게 패권을 넘겨야 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지만, 정신의 공유를 중시했던 로마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공유는 정신의 공유란 차원을 훨씬 뛰어 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 보기 때문에 민족간, 종족간의 형제애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건국 천년의 역사보다 배나 되는 2천년이 넘도록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나 하물과 세겜 부족의 모든 남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도륙을 당한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야훼 신앙의 순수성의 문제가 혈통의 순수성과 뉘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것이 민족과 민족종교의 전통을 타민족과 타종교와 차별적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랍세계의 사람들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오늘 본문에 보면, 디나는 소녀로, 세겔은 소년 또는 젊은이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겔이 히위 족속 중 한 부족의 추장인 것을 보면, 적어도 20대 청년이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디나는 이제 겨우 혼인이 가능한 12-15세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대에는 이 정도의 나이에 여자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세겔이 청혼한 것을 보면, 디나가 결혼적령기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어린 디나가 시집도 가기 전에 강간을 당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 **첫째,**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부족간의 전쟁이라는 면보다는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이 무너지면 신앙의 혼합이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둘째,** 아랍인들의 신앙문제는 혈통이나 국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동세계의 종교간 또는 종파간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순니파와 시아파간의 파벌싸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심지어 같은 민족 같은 종교인들을 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탄테러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방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 **셋째,**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 서서 행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문, “I Have a Dream!”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개신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곧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일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작다고는 하나 일개 성민의 모든 남성들을 죽이고, 아녀자들을 종으로 삼고 재산을 탈취한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디나' (30:21)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얻은 외동딸로서 그 이름의 뜻이 '공의' 또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디나를 강간한 세짐과 그의 성민 중 남성들은 도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자가 12세 정도 되면 결혼할 나이로 보았으므로, 이때 디나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 사이였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디나에게 지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된 것은 고대 가나안 사회의 도덕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말해주며, 젊고 혈기왕성한 세짐이 추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선민(選民)의 순수성을 잃을 뻔 했습니다. 강간 당한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짐에게 시집보내어 통혼의 길을 열었다면, 선민의 순수성은 영영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이 일은 디나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써 이스라엘의 명예와 자부심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듣고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7절) 행했다고 하며 근심하고 심히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과의 통혼이나 잡혼에 대해서 혈통의 순수성**이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이란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인해 선민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잡혼(雜婚)**을 싫어하신 이유가 **혈통이 섞이는 것을 막는데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혼합을 막는데** 있었습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통혼은 혼합종교로 가는 가장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시대에 인류가 타락한 것도 통혼 때문이었고(6:1-4),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종교가 다른 많은 외국인 신부들과 정략결혼을 함으로써 젊고 예쁜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타락한 그들의 종교의식에 불려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 족장들은 자녀들의 혼인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멀리 하란에서 데려왔고, 야곱도 그곳에서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통혼을 금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종교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향락에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듯이 이스라엘의 야훼신앙을 제외한 인근 세계의 이방종교들은 예배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나는 열 두 명이나 되는 남자형제들 사이에 낀 유일한 딸이었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인근 부족의 여자 아이들과 동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나의 이런 행동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과 동무를 함으로써 디나는 감각적이고 현란한 이방문화에 동화(同化)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디나는 이미 그들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1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세겜 성에 무슨 축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교 모임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겜 여자들의 특별한 차림과 그들의 춤도 보고, 또 어찌면 잘생긴 남성들의 눈에 띄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결국 디나는 젊고 혈기왕성한 추장 세겔의 눈에 띄었고,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나의 잘못된 호기심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듯이, 불미스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속적인 호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사는 송사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부릅니다. **하몰의 집안에서 통혼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그들은 숫자가 많고, 야곱은 그들과 힘으로 겨룰 만큼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서도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분을 삭이고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그들의 뜻대로 할 테니 남성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디나를 연모했던 세겜은 성민 중 남성들을 설득하여 자기를 포함한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로 인한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를 골라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육을 자행한 일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했다 해도 그 방법이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첫째로** 정중한 예를 갖추고 나오는 하물에게 할례를 전제로 통혼(通婚)을 허용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였고, **둘째로** 육신의 죄와 더러운 것을 제거함을 상징하는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보복의 수단으로만 삼았으며, **셋째로**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속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해야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고, **다섯째로** 할례로 인한 염증과 발열로 고통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시점을 기해 복수를 감행했으며, 이것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처사로 공명정대하지 못했습니다.

## 디나 사건이 갖는 의미(창 34:1-31)

-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부적절했고, 야곱도 이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 아들들을 책망했으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을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에 걸맞은 신약성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발하면 실수합니다. 욕망대로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 기독교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יִשְׂרָאֵ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Eugène Delacroix(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4-61)  
생 쉴피스(Saint-Sulpice) 성당의 성 천사들 채플의 벽화(프랑스 파리)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벤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며 그를 벤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תַּיִל תְּלֵיכָה** 통곡의 참나무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벤엘이라 불렀더라,

[16] 그들이 벤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헬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이요,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 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Sea of Galilee

Shechem

Shiloh

Ancient Bethel ~ Luz

Jerusalem

Bethlehem

Hebron

길르앗

브니엘

압복강

-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야곱의 별세까지 307년이 걸렸다.
-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25:20)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25:26).
- 이삭은 180세에 별세하였다(35:29). 이때 야곱은 120세였다.
-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고, 에서는 40세에 결혼하였다(26:34). 당시 이삭은 100세(시력상실)였다.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한 때가 이 무렵 곧 40세 때였다.
- 20년 후 곧 60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여정(迦南路歷程)을 시작했다. 이 무렵 요셉은 6세쯤이었다.
- 이후로 이삭이 별세하기까지 야곱이 가나안에 체류한 기간은 60년, 이삭 별세 후 이집트에 들어갈 때까지 10년(130세, 47:9), 총 70년을 거주하였고, 이집트에서 17년을 거주한 후 147세에 별세하였다(47:28).
- 요셉이 팔린 때가 17세 때 세겜에서였고(37:2, 12), 30세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41:46). 하란을 떠나 헤브론에 거주할 때까지 10여년 걸림.
-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76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야곱의 근성은 유대인들의 근성의 상징입니다. 그 근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듭된 위기들을 만나지만, 끝내 이기고 성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는 불굴의 인내와 야훼신앙 때문입니다.
- 벤엘은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야곱에게 희망을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땅에서 내쫓겨 수천년을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벤엘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 벤엘은 야곱이 자기 잘못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서도 야훼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다 보상받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꿈을 꾸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벤엘은 절망상태에 빠진 야곱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였습니다.
- 그런 이유로 벤엘은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 אֵילֵי כְּכֹת '알론바곳' 통곡의 참나무(Oak of Weeping)
- אֶבְרָתָה '에브라트' (베들레헴의 옛 지명, 19절)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 בְּנוֹנִי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
- בְּנֵימִין '베냐민' 오른 손의 아들
- מַגְדַּל־עֵדֶל '믹달 에델' 에델 망대, 짐승 떼를 감시하는 탑

## '야곱'(גַּבְעָה 야아콥)의 어원과 의미

- 히브리어 어근 **גַּבְעָה**(아퀘브)에서 파생되었으며, '발꿈치' 또는 '대체자' (지위 등을 빼앗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호 12:3, 창 25:26).
- 따라서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뒤를 쫓는 자' 혹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이다.

# '이스라엘'(יִשְׂרָאֵל)의 뜻

- יִשְׂרָאֵל He struggles with God.
-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32:28).
-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35:9-10).
-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뤘다”(as a man he struggled with God, 호세아 12:3).
- 따라서 이스라엘(יִשְׂרָאֵל)은 하나님과 싸름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다.

אֵל שַׂדַּי

샤다이 엘

“Guardian of the doors of Israel”

שׁוֹמֵר הַדְּלָתוֹת יִשְׂרָאֵל

שַׂדַּי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시는...

## “엘 샤다이”에서 “샤다이”의 다양한 의미

산(山) - 전능하신 하나님

파괴자 - 전능하신 하나님

젖가슴 -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들의 수호자

###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 35:11-12]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אל שַׂדַּי

샤다이 엘

*"Guardian of the doors of Israel"*

שׁוֹמֵר הַדְּלָתוֹת יִשְׂרָאֵל  
שַׂדַּי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28:3-4](이삭이 야곱에게 빈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49:25](야곱이 요셉에게 빈 축복)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אל בית אל '엘 베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אל בית אל '베엘' 하나님의 집, '엘'의 집  
אל '엘' 일반명사: 하나님, 신; 고유명사: '엘'  
(E1, A1, II, 가나안의 아버지 신), 상징물은  
황소(송아지), 고유명사가 일반명사화  
בית '베이트' 집, 거주지, 성전



יהוה

Yahweh : 야훼, 여호와

네자 이름

Tetragrammaton

Tetragram

**‘야훼’**는 신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여호와’**(예호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이후 **‘YaHWeH’**를 발음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16세기경부터 **‘야훼’**를 대신해서 사용한 **가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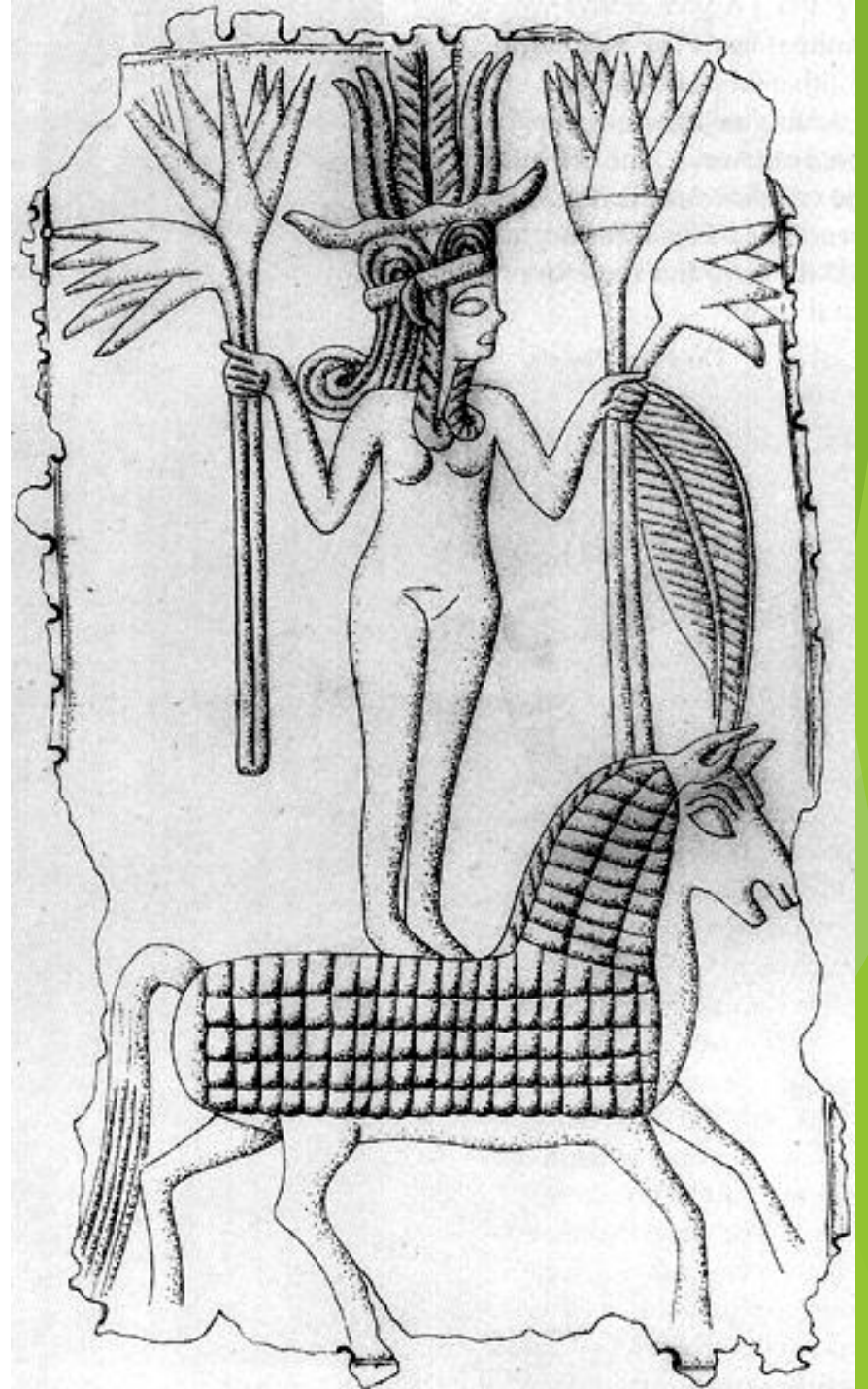
**‘엘’(EL)**은 본래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으로서  
**‘황소(송아지)+목자의 지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소는 힘을, 목자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엘’은 강력한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황소(송아지) 우상**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올라선 **보좌**  
또는  
**발등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  
(**‘엘’의 딸,**  
**바알의 누이,**  
**바알의 부인)**



**법궤**는 **야훼**(여호와)의 보좌 또는 **발등상**이었습니다.

- 시내광야에서 **아론**이 야훼의 발등상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는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신 10장).
- 이로써 이스라엘에서는 법궤가 황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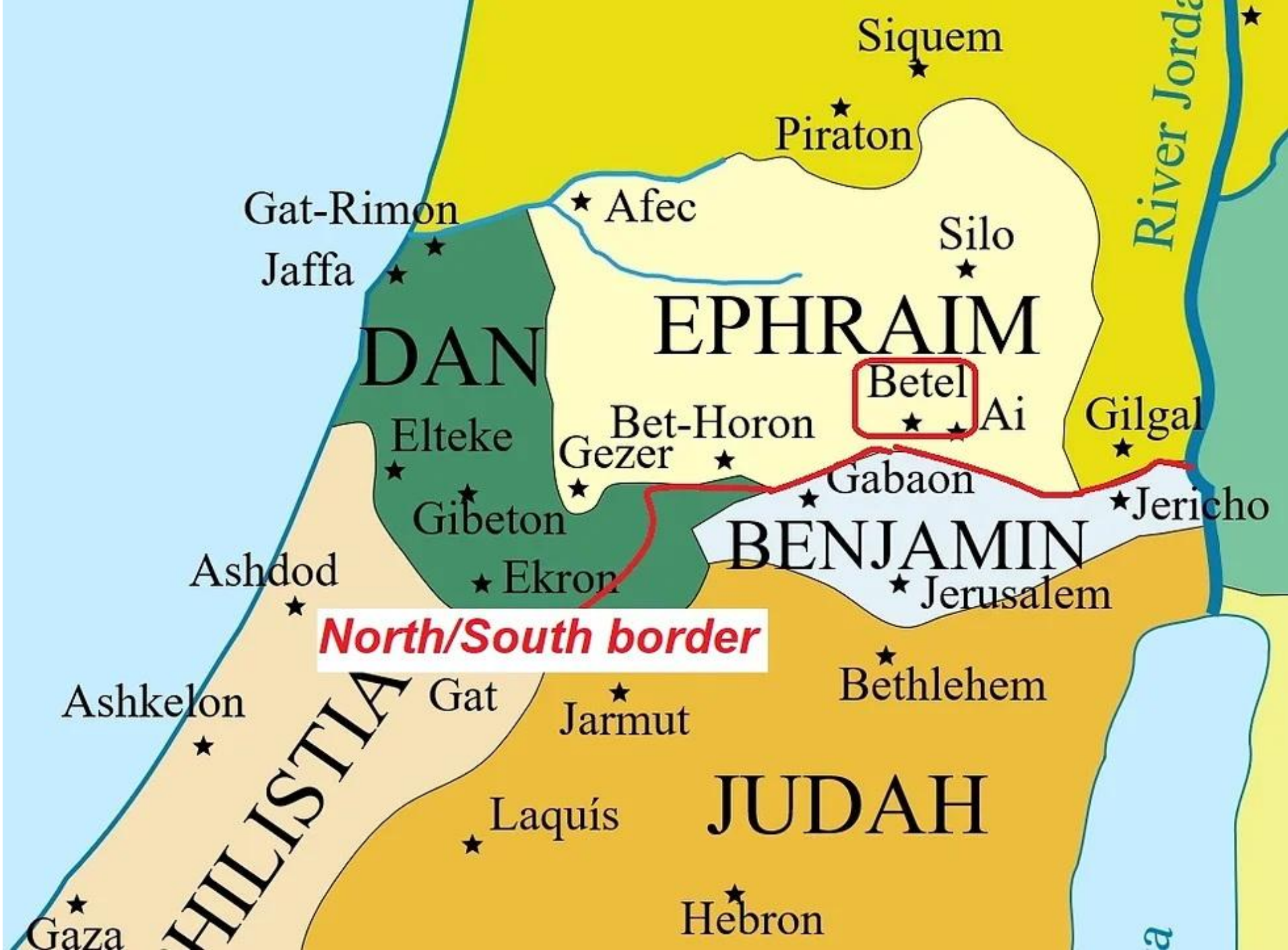
## 보좌 또는 발등상으로써의 황금송아지와 법궤의 차이점

- **황금송아지**는 형틀에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부어 만들거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 **법궤** 위 케류빔은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었고, 법궤에 썩은 금박도 금을 두들겨 펴서 감싼 것입니다. 오직 운반 막대기를 끼우는 고리만 부어서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문화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접수하면 신들도 통합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최고 신은 ‘엘’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야훼’가 ‘엘’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엘-야훼’**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함으로써 **‘벨-마르둑’**, 그리스가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아몬(암몬)-제우스’**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엘’, ‘바알’,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던 금송아지가 **‘엘-야훼’** 발등상 혹은 보좌로 단과 벤엘 성소에 200년 넘게 세워져 있어서 **혼합종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iquem

Piraton

River Jordan

Gat-Rimon

Afec

Silo

Jaffa

DAN

EPHRAIM

Betel

Bet-Horon

Ai

Gilgal

Elteke

Gezer

Gabaon

Jericho

Gibeton

BENJAMIN

Jerusalem

Ashdod

Ekron

North/South border

Ashkelon

Gat

Jarmut

Bethle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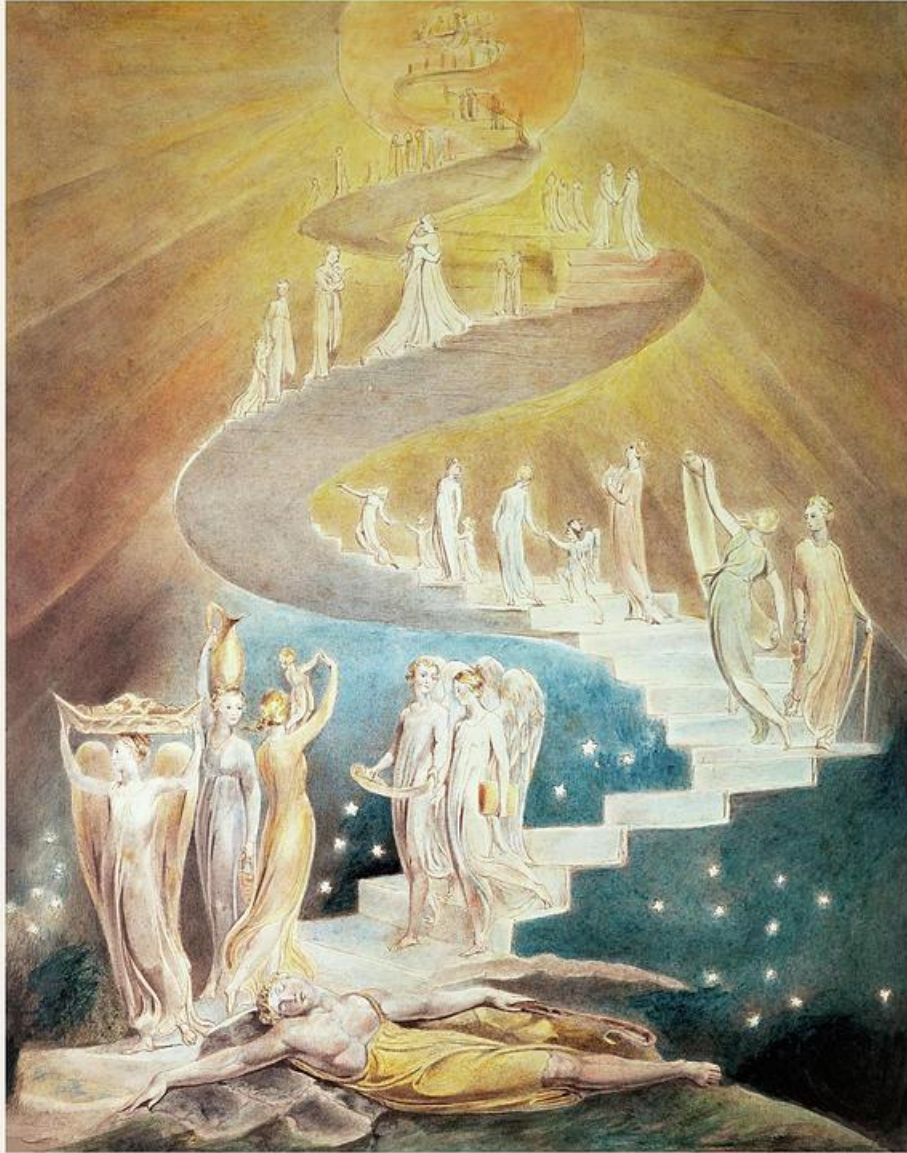
SIMEON

Laquis

JUDAH

Gaza

Hebron



Jacob's Ladder  
1805

## 야곱의 꿈(희망)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는 조상의 하나님 야훼와 연결하는 믿음(신앙)의 다리, 믿음의 통로(채널)였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1805년에 그린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야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꿈 곧 희망 사항이 성취되는 모습을 묘사했다.

# 벧엘(880M)은 예루살렘(해발 750M) 북쪽 10Km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

Golden Calf Altar

황금송아지 제단

Tabernacle

여로보암 성전

야곱이 꿈꾼 곳

אל בית אל  
EL BETHEL God of the House of God

HolyLandSite.com

SUBSCRIBE

**벨엘(880M)은 예루살렘(해발 750M) 북쪽 10Km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



**여로보암의  
성전터**



Jeroboam's temple

Tower

Tomb

Old oak tree

Walls

Crusader chapel

Muslim shrine

Jacob's dream rock

황금송아지 여로보암  
제단 성전

야곱이 꿈꾼 곳



# 황금송아지 제단

Golden Calf Altar

Golden Calf Platform

Bethel High Place of Worship



Ancient Bethel ~ Luz



Abraham & Jacob Altars



Ai ~ Site 1



Ai ~ Site 2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이어나 멀리 여행을 떠날 사람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챙기고 불필요한 것은 놓고 가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 합니다. 세심한 계획도 필요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나거나 이사를 한다면 고생을 사서 하게 될 것입니다.
-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벤엘을 목적으로 길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전 가족이 이사할 채비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였는데, 그만 그곳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동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대학살로써 그들에게 보복하였던 것입니다. 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역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피를 흘린 세겜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였을 것이고, 그 때 떠오른 영감이 벤엘이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즈음에 야곱은 거처 문제 뿐 아니라, 가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였을 것입니다.
- 야곱이 얻은 **결론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 **첫째는 세겜이란 환경**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세겜의 남성들을 대량 학살한 불행의 원인이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피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듯이, 야곱도 가문에 이미 나쁜 영향을 미친 세겜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둘째는 집안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부인들과 아들들 그리고 일군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세속적인 향락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벤엘로 이사할 것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 아시다시피 **벤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야곱이 벤엘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잘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28:12-15).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야곱은 기도하던 중에 세속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영적인 터전을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인 벤엘**,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벤엘을 생각해 내고, 이전에 만나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집을 떠나 고생하며 유리하던 탕자가 극한 시련에 직면하여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벤엘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 **둘째는 세속적인 물질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신앙의 열정보다는 물질 욕심에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떠나기에 앞서 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이에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까지 빼어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 **우상이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종교이든, 물질이든, 교만이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땅 속에 내려놓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귀고리는 물질 욕심이나 향락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그들이 귀고리를 빼서 땅 속에 놓고 묻어버린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장사지내 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는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소중한 돈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물질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이고 보면 헌금을 바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가난해진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또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찌든 때로 더러워진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세속에 찌든 때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과 사치의 상징인 귀고리를 땅 속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바꾼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도와십니다.
-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청산한 후에 하나님의 집인 벤엘을 향해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겟을 떠날 때에 그들을 추격하는 적대세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겟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문제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과 문제는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동반자로 누구를 꼽느냐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기를 원하십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입니다. 부모에게서 멀어진 어린 자녀는 사고를 당하기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벤엘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의 벤엘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적들이 오히려 야곱일행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 야곱은 헤브론(기랴아르바의 마므레)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의 집인 벤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여정에서 야곱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고 끝에 죽은 일이고, 둘째는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본문에서 얻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런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의외로 의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라헬이 산고 끝에 죽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노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남긴 '베노니'란 이름을 라헬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의 아들' '운 좋은 아들'이란 의미를 지닌 '베냐민'으로 고쳐 부릅니다.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지어 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들이 출생 시의 어려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희망 즉 확실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또 한 가지는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야곱이 흥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동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야곱은 흥분하여 날뛰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의외로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런 문제들을 눈감고 덮어버린 유아무야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운명하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행한 유언을 보면, 아버의 침상을 더럽힌 맏아들 르우벤과 디나의 일로 세짐 사람들을 도륙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29)

- 우리는 창세기 34장과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 곧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집'인 벤엘을 벗어나 세겔과 베들레헴에 거주할 때 음행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벤엘을 찾을 때마다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  
독립지사, 자선가, 교회 개척자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목사**

**야곱이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엘에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배출석을 게을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주시고, 힘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